

충청남도 거주 니트 청년의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1. 8. 24

충남사회혁신센터

## 제 출 문

『충청남도 거주 니트 청년의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8. 24

수행기관 (주)청그라미

송악동네사람들사회적협동조합

아산YMCA

- 책임연구원: 이영석 (청그라미 대표)
- 연 구 원: 홍승미 (송악동네사람들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손용감 (청그라미 본부장)
- 연구보조원: 이희남 (청그라미 매니저)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충남사회혁신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I. 서론 .....	4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4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6
1) 문헌연구 .....	6
2) 사례연구 .....	7
3)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	9
II. 국·내외 니트 청년 지원정책 현황 .....	12
1. 캐나다 니트 청년 지원정책 .....	12
1) 캐나다 지원정책 현황 .....	12
2) 캐나다 니트 청년 지원 전달체계 예스 (Youth Employment Champions)사례 .....	16
2. 독일 니트 청년 지원정책 .....	29
1) 독일 청년 노동시장 환경 .....	29
2) 독일 니트 청년 지원정책 현황 .....	32
3. 국내 니트 청년 지원정책 .....	42
1) 니트 청년 법률 현황 .....	42
2) 중앙정부 니트 청년 지원정책 현황 .....	44
3) 니트 청년 민간지원사업 사례 .....	46
III. 충남 니트 청년 지원정책 현황 .....	49
1. 충남 청년 지원 법률 현황과 니트 청년 .....	49
2. 충남 유형별 니트 청년 정책 현황과 니트 청년 .....	51
1) 일자리 분야 청년 지원 정책과 니트 청년 .....	51
2) 복지문화 분야 청년 지원 정책과 니트 청년 .....	53
3) 참여권리·주거 분야 청년 지원 정책과 니트 청년 .....	56

3. 충남 니트 청년 정책 제언 .....	58
-------------------------	----

#### IV. 충남 니트 청년 사례연구 ..... 65

1. 충남 니트 청년 사례연구 분석개요 .....	65
2. 충남 니트 청년 사례분석 .....	67
1) 실업형 니트 청년 유형 .....	67
2)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유형 .....	76
3)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 유형 .....	89
4) 유형별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화 .....	99

#### V. 충남 니트 청년 리빙랩 아이디어 제안 ..... 102

1.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개요 .....	102
2. 리빙랩 아이디어 .....	106
1) 『충남 어찌다 백수』: 온라인 회사 체험 .....	106
2) 『쉽 학교』: 쉽을 기본으로 한 인문학 아카데미 .....	110
3) 『충남 니트 청년 직장백서』: 니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매뉴얼 .....	113
4) 『충남 니트 청년 멘토링 어서와유』: 니트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	117
5) 『충남 토닥 토닥』: 니트 청년 상담 프로그램 .....	120
6) 『충남 슬기로운 직업생활』: 니트 청년 커리어 디자인 프로그램 .....	123
7) 『충남 니트 스타트업 챌린지』: 니트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	126
8) 니트 청년 가족 및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	130
9) 『충남 니트 청년 조직화』: 니트 청년 조직화 및 정책 활동 .....	132

## 참고문헌

## 표 목 차

[표 1] 니트 청년 심층면접 개요 .....	7
[표 2] 니트 청년 전문가 인터뷰 진행 현황 .....	8
[표 3] 니트 청년 잠재적 위험요소 .....	15
[표 4] 고용서비스 프로그램(YES Employment Service) 지원내용 및 자격 .....	20
[표 5] 취업연계 프로그램(YES Youth Job Connection) 지원내용 및 자격 .....	21
[표 6] 직업 체험(YES Youth Job Connection Summer) 지원내용 및 자격 .....	22
[표 7] 취업 워크숍(YES Youth Collaboration) 지원내용 및 자격 .....	22
[표 8]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YES Lighthouse Project) 지원내용 및 자격 .....	23
[표 9] 온타리오 고용 연계 프로그램(YES Ontario Works Programs) 지원내용 .....	24
[표 10] 『청년 기본법』 주요 내용 .....	42
[표 11] 청년지원정책 현황 (일자리 위원회,2020) .....	44
[표 12] 지역 참여 기관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9) .....	46
[표 13] 각 지역센터별 주요사업 및 전환계획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2019) .....	49
[표 14]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주요 내용 .....	50
[표 15] 충남 청년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 .....	52
[표 16] 충남 청년 복지문화 분야 지원사업 .....	55
[표 17] 충남 청년 참여권리 및 주거 지원사업 .....	57
[표 18] 니트 청년 사례연구 참여자 명단 .....	66
[표 19] 실업형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 유형 .....	99
[표 20]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 유형 .....	100
[표 21] 휴식 · 돌봄형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화 .....	101
[표 22] 리빙랩 아이디어 인터뷰 참여자 명단 .....	102
[표 23]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총괄표 .....	105
[표 24] 『충남 어찌다 백수』 프로그램 .....	108
[표 25] 쉽 학교 주요 프로그램 .....	112
[표 26] 니트 청년 문제 해결 단계 .....	115
[표 27] 직장 니트 청년 정착을 위한 규범 예시 .....	116

##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	6
[그림 2] 리빙랩을 활용한 공공연구개발의 사업화 .....	11
[그림 3] 예스(YES) 2019-2020 사업 활동 현황, 2020 예스(YES) 연간 보고서 .....	16
[그림 4] 2019-2020년 예스(YES) 사업성과 현황 .....	17
[그림 5] 2019-2020년 예스(YES) 사업 범주별 현황 .....	19
[그림 6] 1995-2013년 독일 실업률 추이 .....	30
[그림 7] 독일 청년실업 기간, 독일연방고용청 통계 .....	32
[그림 8] 2005-2012년 독일 니트 청년 증가 추이 .....	33
[그림 9]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요 .....	43
[그림 10]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연도별 참여인원 및 예산 추이 .....	46
[그림 11] 희망플랜사업 추진 프로세스 .....	48
[그림 12] 니트 청년 사례연구 면접자 모집 공고문 .....	65
[그림 13] 리빙랩 아이디어 워크숍 현장 스케치 .....	103
[그림 14] 『충남 어찌다 백수』 온라인 회사체험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06
[그림 15] 니트컴퍼니 사례 .....	109
[그림 16] 『쉽학교』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10
[그림 17] 『충남 니트 청년 직장백서』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14
[그림 18] 『충남니트 청년 멘토링 어서와유』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18
[그림 19] ADDIE모형 멘토링 프로세스 .....	120
[그림 20] 『충남 토닥토닥』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21
[그림 21] 『충남 슬기로운 직업생활』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24
[그림 22] 『충남니트 청년 스타트업 챌린지』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27
[그림 23] 『가족 및 부모역량 강화프로그램』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31
[그림 24] 『충남 니트 청년 조직화』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133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청년 이슈는 실업 문제를 중심으로 주거, 금융, 건강, 빈곤,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청년들이 겪는 고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충남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충남의 청년고용률은(40.9%) 서울(48.3%), 경기도(42.3%), 충청북도(46.1%)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21년 1월 기준). 정부는 그동안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충남은 2021년 충청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 등 5개 분야의 청년정책에 989억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성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과연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실효적인 정책들인지 의문이다.

청년 실업 문제는 더이상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청년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진형익, 2020). 즉, 취업에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일·훈련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학생과 취업자가 아니고 정규적인 교육기관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다니지 않으며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 않는 배우자가 없는 15~29세 청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진형익, 2020).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니트 청년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청년 니트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청년보장제는 모든 25세 이하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정규교육을 마치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지속적인 교육, 견습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김기현, 2018).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한국경제연구원)에서 니트족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비용이 GDP의 3%인 50조원이라고 분석하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충남에 니트 청년 통계치는 없기 때문에 OECD 기준 우리나라 니트 청년 비율 18%를 충남에 대입해본다면 충남 청년 인구 720,829명 중 니트 청년은 129,749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충남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니트 청년의 증가는 자발적 인적자본손실로 이어져 충남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청년 니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은둔형 외톨이 확대, 중·장년 니트의 증가, 고령 니트의 빈곤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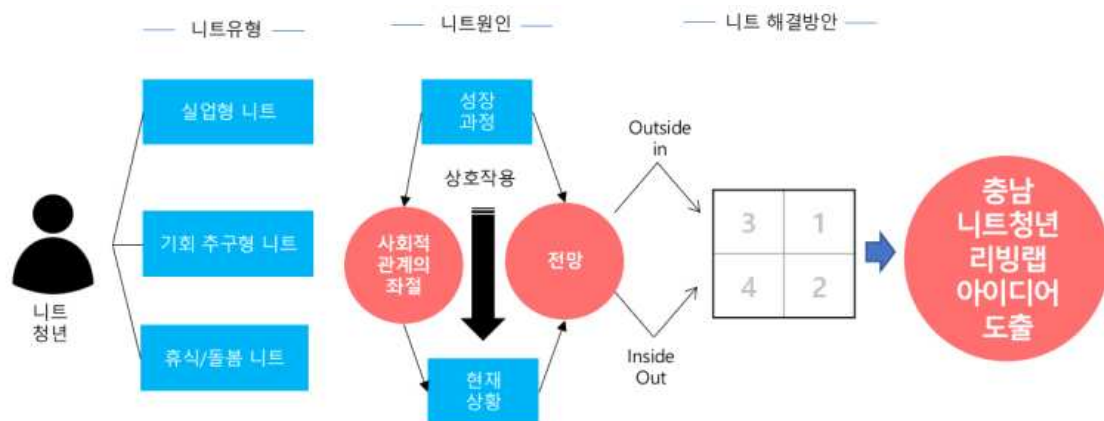
무엇보다 니트 청년 문제의 심각성은 충남 노동인구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에서부터 충남의 청년 창의성 약화, 사회문제 해결능력 약화와 그에 따른 충남 전반의 무기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충남은 이와 같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집행에 집중했을 뿐, 상대적으로 가시적 활동성이 없는 니트 청년 문제에 대한 조명과 접근은 소외되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충남의 새로운 사회문제인 니트 청년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교육 및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함으로써 충남 사회혁신의 주체인 청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자본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본 문헌연구는 충남 니트 청년 정책 개발에 참고가 될 만한 국내외 우수 참고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고,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및 니트 청년 현황 분석을 통해 충남 거주 니트 청년의 정책 제언 및 리빙랩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문헌연구를 수행했다. 해외 니트 청년 지원정책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연구보고서들을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을 선정했다. 연구대상은 니트 청년 감소율의 성과를 나타냈으며, 니트 청년보장(Youth Guarantee)이 잘 정립된 독일과 니트 청년 전달체계의 세밀한 시스템을 구축한 캐나다의 자료들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국내 니트 청년 지원정책은 중앙정부 청년지원 법률, 주요 청년 정책, 니트 청년 민간지원사업들을 검토하고 진단했다. 충남의 니트 청년 지원정책은 충남의 청년기본조례, 충남 분야별 지원정책의 니트 청년 활용에 대해 검토하고, 캐나다와 독일 등의 해외사례 충남 적용점과 중앙정부 및 타기관 니트 청년 지원사업 자료 분석을 통한 충남 니트 청년 전달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림 1] 연구 모형

## 2) 사례연구

본 사례연구는 충남 유형별 사례 심층분석을 통해 니트의 원인 및 경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니트 청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및 리빙랩 아이디어 기획을 위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심층면접에서 대상은 니트 청년이며 내부이질적 특성 도출을 고려해서 3개의 유형으로 총 1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구분	내용	비고
면접대상	- 충남에 거주하는 15세~34세 미만 니트 청년 11명 (유형별로 3~4명)	
선정방법	- 임의표집 (모집공고게시 후 신청/ 상담기관 연계)	
*대상 유형	- 실업형 니트 청년 :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 -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및 진학을 준비하는 니트 청년 - 돌봄형 니트 청년 : 비경제활동 인구 중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	
* 조사내용	- 성장과정 : 자라온 성장환경 등 사회적 진입 시도 좌절의 원인 - 사회적 관계와의 좌절 : 사회생활, 첫 직장 등 사회적 관계의 좌절 경험 - 상호작용 : 사회적 관계 좌절과의 상호작용 (정서, 회피, 불안, 관계, 문제 등) - 현재의 상황 : 현재 니트화의 문제 (일상, 가족관계, 지지망, 구직활동, 취업준비 등) - 본인전망/정책제안 : 꿈, 미래, 니트 해결을 위한 방법, 니트 지원정책	
조사방법	심층면접	
조사시기	2021년 4월~5월	

[표 1] 니트 청년 심층면접 개요

\*대상유형/ 조사내용: 니트 청년 현상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리서치(신희경, 2014), 청년핵심정책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김기현, 2018) 등 재구성

니트 청년 유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형 니트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 및 진학을 준비하는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비경제 인구 중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거나, 단순히 쉬고 있는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으로 구분했다. 연구 참여자는 실업형 니트 청년 3명,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4명,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 4명을 포함한 총 11명이 참여했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3명, 나머지 8명이 여성이었고, 지역과 유형을 고려하다 보니 여성 참여자들이 월등히 많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별로는 아산에서 3명이 참여했고, 천안이 2명으로 많았으며, 나머지 보령, 청양, 홍성, 당진, 공주, 태안은 1명씩 참여했다. 아산의 사례참여자가 3명인 이유는 휴식·돌봄형은 임의적 표본추출방식으로는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아산의 상담전문기관에 의뢰해 사례연구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조사내용은 사회적 진입 시도 좌절의 원인이 탐색하는 성장과정, 사회생활, 첫 직장 등 사회적 관계의 좌절 경험, 사회적 관계 좌절과의 상호작용, 현재상황, 자신의 전망과 니트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 등 이었다. 참여자 연령대는 최저연령은 24세이며, 최고연령은 31세로써 본 연구의 니트 청년 규정으로 정의된 연령대를 최대한 포함시킬 수 있었다.

니트 청년 정책연구와 조사 도구 설계를 위한 전문가 인터뷰는 니트 청년 지원 경험이 풍부한 니트컴퍼니, 충북 일하는 공동체 등 니트 청년 지원기관의 대표 및 종사자를 인터뷰했다. 이를 통해 니트 청년 연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자의 자문을 통해서 니트 청년 타기관 지원 정책과 해외사례에 대한 견해들을 파악했고, 충남의 공감상담심리센터 대표의 자문을 통해 충남 니트청년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NO	이름	소속	일시	비고
1	전성신	니트컴퍼니 대표	2021.03.30	니트 청년 지원조직 운영
2	박은미	니트컴퍼니 대표	2021.03.30	니트 청년 지원조직 운영
3	박미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원	2021.03.31	니트 청년 정책 연구자
4	이은주	충북 일하는 공동체	2021.04.06	니트 청년 지원프로그램
5	김성림	공감상담심리센터	2021. 04.07	충남 니트 청년 사례

[표 2] 니트 청년 전문가 인터뷰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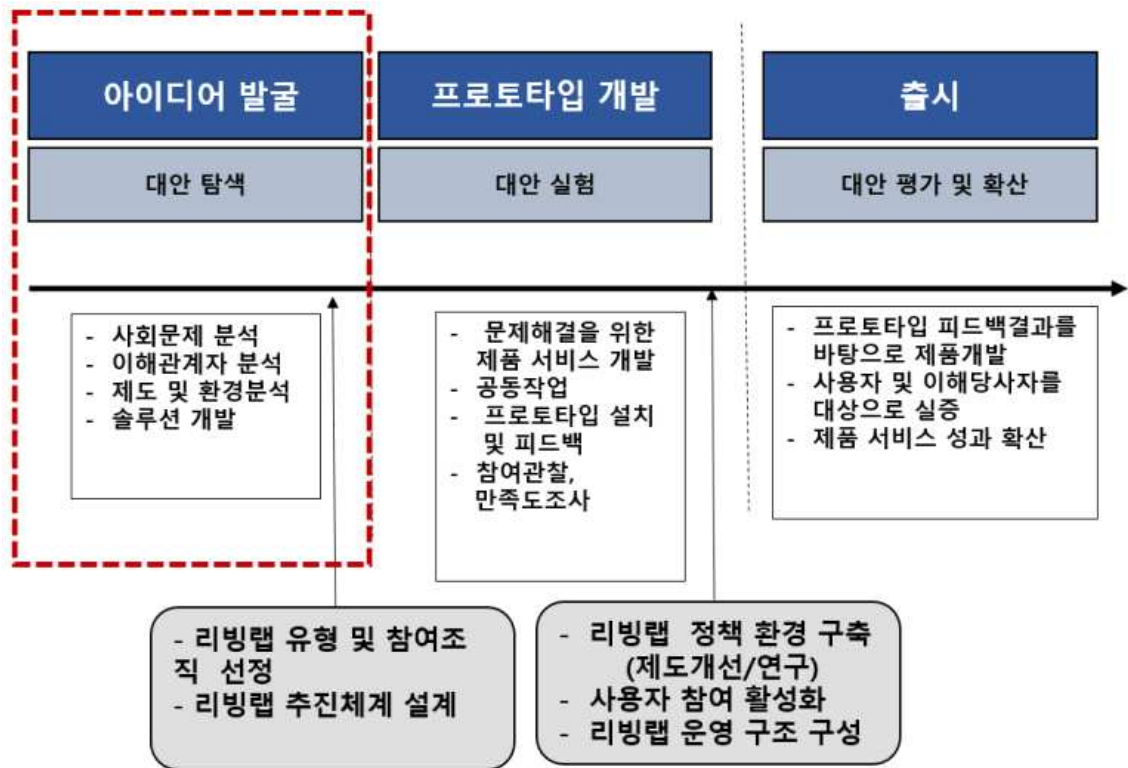
### 3)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사용자와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living)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인 리빙랩이 사회혁신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리빙랩은 일상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생활공동체 속에서 연구와 혁신체계를 통합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수단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리빙랩에서는 개방형 혁신이 중요하다. 이는 산업계, 정부, 학계 중심의 고전적인 혁신체계에 시민참여자 또는 ‘이용자(user)’로 불리는 참여자들이 공동 협력하여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행정안전부,2019). 이렇듯 리빙랩은 연구자가 중심이 되어 실험을 수행하는 일반적인 실험실이 아닌 기술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실험하는 참여적이며 개방적인 공간이다. 리빙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설과 대안을 이끌어내고 이를 검증하는 실험을 반복된다(행정안전부,2019).

해외에서 리빙랩은 실제 공동주택에서 생활, 관찰, 실험을 진행했던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의 미국 플레이스랩(Place lab) 실험이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리빙랩은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용자 참여형 과학연구를 위한 연구방법 중 하나로 간주되기 시작한다(조영태, 오명택, 2019). 리빙랩의 활용성이 인정되면서 사회혁신 수단으로써 리빙랩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는 점차 R&D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 혹은 혁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도구로 그 쓰임이 확장되고 있다. 리빙랩이 점차 사회문제(교육, 복지, 공동체회복 젠더 등)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간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R&D)이 주된 리빙랩 형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유럽연합의 역할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럽에서 혁신역량 제고를 핵심 의제로 제시한 헬싱키 선언 이후 유럽 리빙랩이 연합하여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Uving Labs, 이하 ENOLL)가 결성되면서 리빙랩은 명실상부한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김희연, 2015).

리빙랩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첫번째 단계는 리빙랩의 아이디어 발굴, 프로토타입 개발,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는 리빙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리빙랩 추진체제를 설계하고 참여할 사용자 그룹을 선정하며 리빙랩 운영장소와 운영시설을 설치하거나 서비스의 경우 제공될 솔루션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본 연구는 바로 첫번째 단계로 사회문제, 이해관계자, 제도 및 환경 등을 분석하고, 대안실험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구간이다.

본연구 수행의 결과를 토대로 진행할 리빙랩 두번째 단계는 최종 사용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개념을 설계하는 대안 탐색 단계이다.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최종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와 함께 논의한다. 그러면서 충족되지 않는 니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념을 설계한다. 프로토타입 제품이나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조사·분석하고 사용자들이 변화한 상황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파악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 기존 제도와 부딪치는 부분은 없는지 탐색한다. 이를 위해 참여관찰,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심층면접, 디자인 씽킹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전 단계인 대안실험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그런 다음 현장에서 만든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사용 전과 사용 후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제해결 효과는 충분한지, 개선 및 보완사항은 없는지, 제품·서비스를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인증 및 표준 관련 문제는 없는지 알아보고 사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양한 통로를 이용해 성과를 확산시킨다.



[그림 2] “리빙랩을 활용한 공공연구개발의 사업화”의 재구성 송위진(2017)

## II. 국·내외 니트 청년 지원정책 현황

### 1. 캐나다 니트 지원정책

#### 1) 캐나다 지원정책 현황

##### ○ 캐나다 청년실업 상황

안정적인 경제 상황과는 달리 캐나다의 청년고용률은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Government of Canada, 2016).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의 전일제(Full-time) 고용률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며(Statistics Canada, 2015), 청년고용률의 형태는 전일제에서 일시적 고용상태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고용률의 추이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캐나다 청년들은 2008년~2009년 경기침체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청년고용률은 경기침체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Government of Canada, 2016).

경기침체 이후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청년들 중 일부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용되지도 못하며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놓이게 된 니트(NEET)청년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캐나다 토착 청년들과 최근 이주 청년들을 포함한 노동시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청년들은 니트 청년들이 되었다. 2015년에는 청년(15세~29세)의 12.6%가 니트 상태로서 구직 중이거나 노동시장을 완전히 떠났다(Government of Canada, 2016).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범죄 증가, 정신 건강 문제, 폭력, 약물 남용, 사회적 배제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제 근무, 비정규직, 노동권의 제약, 구직 희망과 직업 정체성의 저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청년 실업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Bell & Blanchflower, 2010; Oreopoulos, Von Wachter, &

Heiz, 2008; Sonnet, Quintini, & Manfredi, 2010; Standing, 2011; Verick, 2009; Bell and Blanchflower, 2011).

#### ○ 캐나다 니트 청년 프로그램에 대한 논거

일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의 지표는 고용률과 실업률이다. 이 지표들은 현재 고용된 사람들과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Bălan, 2014). 그러나 노동시장의 청년고용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청년고용과 실업률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현재 증가하고 있는 니트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들과 장애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Bălan, 2014).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니트 청년을 15세~29세의 청년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용되지도 못하며 훈련을 받지 않는(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상태라고 정의한다(OECD, 2017). 니트 청년에 대한 통계 측정은 대부분의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 기간이 지속되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기간이 계속 길어질수록 이 비율을 노동인구로 통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OECD, 2017). 노동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니트 청년은 2개의 하위 범주로 나눈다. 교육, 고용, 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일할 의지가 있는 구직 니트(NEET-NILF: NEET youth Not in the Labour Force)와 일할 의지가 없으며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구직(non-NEET-NILF)의 니트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구분된다. 니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집단의 지원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비구직 니트 청년(non-NEET)과 대조적으로 니트 청년이 직면한 고용 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캐나다 정부는 연방 정부 또는 지역 주요 정책의 초점을 니트 청년의 노동시장 통합에 맞추고 있다.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에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Inclusion of Marginalized People)정책은 “소외된 집단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제공하는 포용적 사회의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7). 캐나다 정부는 포용적 기관들을 설립하고, 지지의 목소리, 임파워먼트(Empowerment), 목표와 대상이 정해진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한 의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17). 진실과 화해 위원회(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는 취약 계층의 중등 과정 이후 교육을 주요한 과정으로 보며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기회와 접근성은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 ○ 온타리오주 니트 청년의 인구통계학적 상황

2018년 이후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온타리오주 15세 이상의 주민들 약 770만명(64%)이 취업한 상태 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Statistics Canada, 2018). 온타리오주 전체 실업률은 5.5%이며, 15세~24세 청년의 실업률은 11.1%로 집계됐다(Statistics Canada, 2018). 대학 학위를 취득한 25세~54세 성인의 실업률은 5%이며, 그렇지 못한 성인의 실업률은 7%로 나타났다(Statistics Canada, 2018).

캐나다 15세~24세의 청년들 중 니트 청년의 인구는 9.6%로 나타났다(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2016). 온타리오주의 15세~19세의 청년들 중 니트 청년의 비율은 5.2%이다(Statistics Canada, 2018). 그러나 25세~29세 성인 청년 중 니트 청년 비율은 17%이다. 이 통계는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한 실업 상태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15세~24세 사이의 청년 10명 중 1명은 니트로 분류될 수 있다(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2018). 2011년에는 15세~29세 청년 중 13%가 니트로 분류됐다(Marshall, 2012).

#### ○ 캐나다 니트 청년의 특성

니트 청년 인구(NEET-NILF를 포함)는 다차원적이며 항상 변화하는 집단으로 인지해야 한다(Russel, 2013). 이들은 개인의 정체성, 성장 배경(어릴 적 경험과 가정환경), 사회적 경험을 기반으로 한 넓은 스펙트럼의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나아가 비구직 니트 청년과 핵심연령 노동자(core-age workers)와는 다르게 니트 청년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니트 청년의 전형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니트 청년들을 위한 교육, 고용, 훈련들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정책들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담당자들은

니트 청년들이 다층적이며, 변화하는 집단의 하위 범주란 것을 인식한다면 니트 청년들의 욕구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MacDonald, 2011).

니트 청년들의 다양한 특성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때론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니트 청년의 상태는 어릴 적에 경험한 위험요소들(초·중학교 진학, 대학교 진학, 또는 취업 및 취업 훈련을 위해 가족과 떨어지는 경험들과 관련되어 있다. 아래 [표 3]에 개인, 가족, 사회라는 3가지 범주로 잠재적 위기 요소를 구분해 놓았다(Canada 2020, 2014; Canadian 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 2017; Government of Canada, 2017c; Inui, 2005; Marshall, 2012; Mawn et al., 2017; Mendolia & Walker, 2015; Pullman & Finnie, 2018; St. Stephen's Community Housing & Access Alliance, 2016; Zudina,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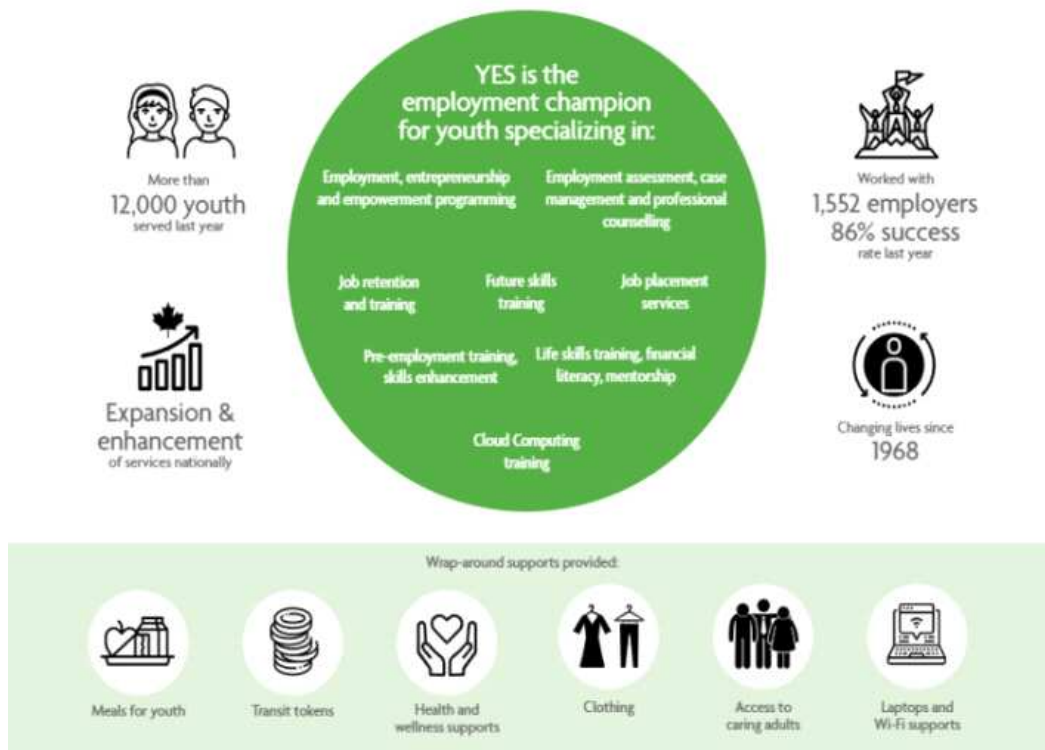
개인	가족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li> <li>- ‘위기’의 커뮤니티에서의 삶</li> <li>-이주민 지위와 배경</li> <li>-캐나다로 이주한 지 5년 미만 이민자</li> <li>-건강 미약(육체적, 정신적, 정서적)</li> <li>-청년 가장</li> <li>-장애</li> <li>-소수 성 또는 종교 정체성</li> <li>-약물 남용 경험</li> <li>-약한 동기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 가정</li> <li>-열악한 집</li> <li>-작은 시골 마을의 삶과 먼 거리 정착</li> <li>-한부모 가정</li> <li>-실업 상태의 부모</li> <li>-낮은 교육을 받은 부모</li> <li>-부모의 낮은 관심, 직업 경력 지도 미흡함 또는 전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탁 양육 상태</li> <li>-저학력</li> <li>-교육에 대한 부정적 경험(교육 실패, 교사의 낮은 기대와 무관심)</li> <li>-학교에서의 쓰기 및 수학에 대한 도전</li> <li>-학교에서의 괴롭힘 경험</li> <li>-정학 및 퇴학</li> <li>-학업 중도 포기</li> <li>-근무 경험 부족</li> <li>-형사 사업 제도 경험</li> <li>-청년고용 지원과 서비스가 효과적이지 못함</li> </ul>

[표 3]니트 청년 잠재적 위험요소

## 2) 캐나다 니트 청년 지원 전달체계 『예스(YES): Youth Employment Champions』 사례<sup>1)</sup>

### ○ 『예스 (YES): Youth Employment Champions』 프로그램 및 서비스

1968년 창립 후 현재까지 구직을 원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예스(YES)’의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고, 청년들이 구직 계획을 세우고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 후 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토론토 대도시권 지역 외에 7개의 예스(YES) 지원센터가 있으며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스(YES)’는 국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해 오고 있으며 2019년~2020년 동안 ‘예스(YES)’를 거쳐 간 청년들은 12,000명이 등록하였고 1,552명의 고용주와 86%의 매칭이 완료됐다.



[그림 3] ‘예스(YES)’ 2019-2020 사업 활동 현황, 2020 ‘예스(YES)’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1) ‘예스( YES)’ 사례는 ‘예스( YES)’ 2020 연간보고서( ANNUAL REPORT)를 주로 참고하였음.

‘예스(YES)’ 프로그램을 수료한 24세 이하 청년들은 36%이며, 수료자 중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새로이 취득한 사람은 20%이다. 신체적 장애, 정신 건강 문제 또는 건강 문제를 드러낸 청년은 27%고, 장애가 있는 청년들 53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언어를 장벽으로 인식한 청년의 숫자는 10% 증가했다.

참여자의 56%가 BIPOC(Black, Indigenous and People of Color)였고, BIPOC 청년은 ‘예스(YES)’에서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86%의 취업 성공률을 달성했으며, 1,887명의 BIPOC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을 찾았다. 청년의 38%가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에 지원할 때, 일관되지 않은 근무 이력을 고용의 장벽으로 인식했다. 실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의 79%가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했으며 989명의 청년들이 미래의 인력을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에 성공했고, 온라인 워크숍에서 청년 성공률은 91%로 나타났다.



[그림 4] 2019-2020년 ‘예스(YES)’ 사업성과 현황

고용, 훈련, 교육에 관해 86%의 성공률을 달성했으며, 2019년~2020년 프로그램 참여자 11,827명과 워크숍 참여자 987명을 포함하여 ‘예스(YES)’에 총 12,814

명이 지원했다. 참여자 중 남성 47%, 여성 52%, 트랜스젠더 0.5%, 기타 0.5%이며 연령대는 15세~19세 29%, 20세~24세는 36%로 가장 높았으며, 25세~30세는 25%였고 37세 이상은 10%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4%이고, 대학 졸업이 35%이다. 실직 기간 또는 훈련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기간은 15일 이하 청년들이 56%였으며, 16일~51일 이하인 청년들이 24%, 52일 이상인 청년들은 20%를 차지했다.

‘예스(YES)’는 2019년~2020년에 1,552명의 고용주와 함께 1,712개의 직업 체험 장소를 만들었으며, 고용주들의 고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주와 고객들에게 6,356,500달러의 임금 보조금과 교육 수당을 지급했다. 예스(YES)는 공항(Pearson Airport), 지하철 (Metro) 및 약국(Shoppers Drug Mart)을 포함한 여러 고용주를 위한 고용 행사를 개최했으며 교육지원 센터(Pathways to Education), 중독치료 센터(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등 캐나다 전역의 200개 이상의 커뮤니티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예스(YES)’와 협력하고 있는 고용주들의 사업장 규모는 1인 이상 10인 이하가 36%고, 11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43%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1인 이상 500인 이하는 17%, 500인 이상 사업장은 4%를 차지했다. 사업 유형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서비스업으로 63%를 차지했고, 소매판매업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4%를 차지했으며 기타 업종이 8%를 차지했다. 섹터별 현황은 일반 개인 기업이 91%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이며 공공분야는 6%, 비영리 단체 및 기관도 3%를 차지했다.

## YES'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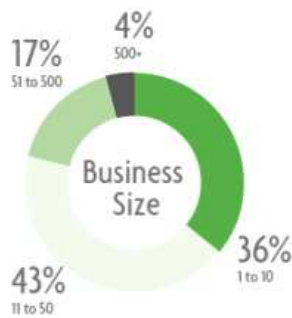
We worked with 1,552 employers last year that resulted in 1,712 work experience placements. We paid out \$6,356,500 in wage subsidies and training allowances to employers and clients on behalf of the three levels of government supplementing initial training costs in order to encourage employers to hire and to boost local economies.

YES hosted numerous hiring events for employers including Pearson Airport, Metro, Cargo Cabbie, FirstService Residential, A.S.P Security and Shoppers Drug Mart!

We continued to work with more than 200 community partners across Canada, including Pathways to Education, Centre for Addiction and Mental Health, 360 Kids, Boys & Girls Club Calgary, DIVERSEcity, and Covenant House.

## For more than 50 years

YES has been able to achieve so much success thanks to the generous support of those in our community. Our most important partners are those employers that work tirelessly with YES to give our clients an opportunity to realize and meet their potential.



[그림 5] 2019-2020년 '에스 (YES)' 사업 범주별 현황

## ■ ‘예스(YES)’ 세부프로그램

### ○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Employment Services 『ES』)

『ES』 프로그램은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참여자 유형과 레벨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서비스와 고용주 훈련 보조금을 제공하며 프로그램 운영자는 참여자의 구직 욕구와 경력 목표를 파악 후 지원 방법을 결정한다. 참여자들이 바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직업 경험이 필요한지 파악한다.

또한, 학생들과 구직자들에게 자원과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가가 취업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구직 전략,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인터뷰, 시간제 또는 정규직에 따른 구인 구직 작성, 자원봉사, 경력 정보, 직업훈련기회, 지역 노동시장 정보, 또한 구직활동을 위한 인터넷, 와이파이, 팩스, 사진 출력 및 전화사용이 무료로 제공된다.

지원 내용	참여자 유형과 레벨에 따른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주 훈련 보조금 제공
	구직 욕구와 경력 목표 파악
	구직 전략, 이력서 작성, 연봉협상, 인터뷰, 구인구직란 작성, 자원봉사, 경력 정보, 직업훈련, 지역 노동시장 정보
지원 자격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구직자

[표 4]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YES Employment Service) 지원내용 및 자격

### ○ 취업연계 프로그램 (Youth Job Connection)

15세~29세를 대상으로 취업과 취업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일부는 유급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들에게 인터뷰 기회가 제공되며 전문가와 함께 구직 준비를 할 수 있고 예스(YES)에 등록된 고용주와 매칭을 진행한다.

▶ 계획하기와 코디네이션 : 취업 상담을 통해 직업 목표 설정, 지속 가능한

직업 경로 탐색 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설정

▶ 구직활동 경험(Pre-employment Activities) : 60시간~90시간 동안 구직활동에 참여해야 하고, 최소한 60시간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자의 기술과 욕구에 따라 구직활동 경험을 선택한다. 경력 개발, 인사관리, 취업 준비, 취업 달성, 직무 기술과 고용 유지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 최저 급여가 지급된다.

▶ 취업 알선 및 현장실습 : 최소 60시간의 구직활동 경험을 마친 후 일을 시작한다. 현장실습은 26주간이고, 실습 기간 동안 예스(YES)가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하며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고용주와 업무에 관한 소통을 계속 진행한다. 현장실습 기간동안 실습생의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 교육 및 직업 전환 지원 : 현장실습 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대일 코칭, 네트워킹 활용, 다른 프로그램의 멘토가 될 수 있다.

지원 내용	계획하기 및 코디네이션
	구직활동 경험
	취업 알선 및 현장실습
지원 자격	15세~29세

[표 5] 취업연계 프로그램(YES Youth Job Connection) 지원내용 및 자격

#### ○ 직업 체험 프로그램(Youth Job Connection Summer)

13세~18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여름 시즌에 아르바이트와 방과 후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참여 자격조건은 15세~18세 이하이며 온타리오에 거주하며 재학 및 복학 예정인 고등학생이면 가능하다. 프로그램 내용은 현장실습을 준비하기 위해 20시간 유급 훈련을 진행한 후 8주간의 직업 체험을 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학교에서 허가해 준다면 시간제 근무와 방과 후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멘토들은 참여자들을 일대일로 직무 코칭 및 멘토링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내용	현장실습 준비를 위한 유급 훈련
	8주간 직업 체험
	시간제 근무, 방과 후 근무
	일대일 멘토, 직무 코칭, 프로그램 종료 후 학교 복귀 지원
지원 자격	13세~18세 이하
	온타리오 거주
	재학 및 복학 예정인 고등학생 또는 중등 과정 후 교육 과정 예정자

[표 6] 직업 체험(YES Youth Job Connection Summer) 지원내용 및 자격

#### ○ 취업 워크숍 (Youth Collaboration)

15세~30세 청년을 대상으로 그룹별 취업 기술 훈련과 직업 실습 경험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재학 중이지 않으며 실업 상태에 있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전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3주간 그룹별 취업 능력(employability)과 생활 기능(life skill)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기간 청년들은 최저 임금과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훈련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에게 유급 직업 실습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장실습 종료 후 정규직 취업의 목표를 갖고 최대 10주간 진행한다.

지원 내용	2~3주간 그룹별 취업능력 및 생활 기능 워크숍
	워크숍 기간 최저 임금 지원과 TTC 토큰 <sup>2)</sup> 지원
	훈련 기간 완료 후 유급 직업 실습 자격 부여
	현장실습 종료 후 10주간 정규직 취업 지원
지원 자격	15세~30세 이하
	재학 중이지 않은 실업 상태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또는 협약 난민의 지위에 있는 자
	캐나다 합법적 노동 자격이 부여된 자
	고용보험 수당을 받지 아니한 자

[표 7] 취업 워크숍(YES Youth Collaboration) 지원내용 및 자격

2) TTC(Toronto Transit Commission)토큰은 토론토 내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하는 동전 모양의 티켓

○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

정신 건강 이슈가 있는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풀타임 근무(주 30시간 이상)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소한 주 30시간 이상 풀타임 근무를 원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룹별 워크샵과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 개인별 관심사와 니즈, 또는 배경에 따라 맞춤형 12주 이상 유급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셀프 케어와 대처기술을 포함한 취업 인터뷰 준비를 진행한다. 구직 탐색과 직무 탐색 및 계획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을 조사 및 탐색하고, 이력서 및 연봉협상 스킬을 개발하고 공개 검토를 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스킬 향상과 직장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유지하며 자신들의 직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참여자들은 근무 중 지원과 훈련 지원을 받으며 각 단계마다 개인별 맞춤 코칭을 받는다.

지원 내용	개인 관심사, 니즈, 배경에 따른 맞춤형 유급 현장실습(12주 이상)
	취업 인터뷰 준비(셀프 케어, 대처기술)
	구직 탐색 지원
	직무 탐색 및 계획
	노동시장 조사
	이력서 및 연봉협상 개발
	공개 검토 및 협상
	직장 스트레스 관리 및 재발 방지 계획
지원 자격	정신 건강 이슈가 있는 구직 청년 누구나
	풀타임 근무를 원하는 자(최소 주 30시간 이상)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또는 협약 난민 지위
	캐나다 합법적 노동 자격이 부여된 자
	최근 고용보험 수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최근 5년 동안 고용보험 수당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동안 665시간 이상 근무를 아니한 자

[표 8]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 (YES Lighthouse Project) 지원내용 및 자격

○ 온타리오 고용 연계 프로그램 (Ontario Works Programs)

직업발굴(Career Discovery)프로그램은 진로 탐색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며, 참여자들이 전문적인 직업 테스트의 기회를 제공받고 추가적인 기술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 전망(Career Opportunity)프로그램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업을 찾아 안착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며 참여자들은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이며 사례 관리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직무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매칭하며 공개 취업 설명회와 고용 이벤트들을 제공한다. 구인 구직과 노동시장 정보 및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취업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다양한 내부 세미나 및 특별 강연이 열리며 이력서 작성법과 연봉협상 시 필요한 전문적 내용과 기술들을 지원하고, 취업 인터뷰 훈련과 모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인터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원 내용	일자리 연계, 직무 개발, 일자리 매칭
	공개 취업 설명, 고용 이벤트
	구인 구직, 노동시장 정보, 취업 정보 제공
	개인별 취업 상담 및 지원
	다양한 내부 세미나 및 특별 강연
	이력서 작성과 연봉협상에 대한 전문적 지원
	취업 인터뷰 훈련 및 모의 인터뷰

[표 9] 온타리오 고용 연계 프로그램(YES Ontario Works Programs) 지원내용

○ 멘토십 프로그램 (Mentorship Program)

‘에스(YES)’ 멘토링 프로그램의 목표는 ‘에스(YES)’ 고객을 업계 리더(전문가 멘토)와 연결해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가능성을 높이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구직, 취업 시장 진출, 자신의 진로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취업 멘토가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참여자들은 이

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현직에 있는 분에게 멘토링 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멘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멘토들은 전문적 기능, 동료 관계, 생활 기술, 그리고 청년의 전반적인 자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취업 장벽을 경험하는 청년을 위해 멘토링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큰 효능감을 기르며, 청년의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적인 생활능력을 장려한다. 또, 직장 내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내고, 그들의 가족관계는 물론 또래 관계도 발전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다(Madia & Lutz, 2004). 멘토가 되면 기업가를 꿈꾸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풍성한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멘티의 삶에 많은 가치를 부여해 줄 것이고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멘토와 멘티는 지역사회에 대한 연결감을 높이고, 고용을 연계시키며 토론토 대도시권에서 차세대 젊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예스 멘토링 허브(YES Mentoring Hub)에 가입한 청년들은 취업과 진로선택 과정에 나침반의 역할을 하며 기업가적 열정에 도움을 주는 멘토를 찾을 수 있다. 업계 전문가 멘토로 위촉되면 5년 이상 전문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겪을 수 있는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며 지지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또, 멘티가 직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코칭하며 배려심 있고 긍정적인 역할도 한다. ‘예스(YES)’ 코디네이터와 협력하면서 멘토링에 참여하고 중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멘토의 스케줄에 따라 매달 일대일 매칭이 되어 개별적 멘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최소 월 1회(연간 10시간) 멘토링을 진행한다. 취약 섹터 경찰 기록 확인 허가(Vulnerable Sector Search Police Reference Check Clearance)를 받을 수 있으며, YES 사전 선별 과정에 참여하여 이메일을 보내고, 참여자와 연락하고 AODA(Accessibility for Ontarians with Disabilities Act, 2005) 고객 서비스 표준 모듈을 완성한다.

#### ○ 예스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YES On Demand Program)

씨티재단(City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토론토 대도시권 지역의 저소득 청

년들을 대상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능력과 기업 운영 스킬을 향상해 취업에 성공시키거나 창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온라인 구직능력 향상과 기업운영 기술 훈련, 멘토링, 정신 건강 문제를 지닌 청년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YES on Demand)은 네 가지 입증된 증거 기반 솔루션인 멘토링 프로그래밍, 온라인 취업능력 및 기업가정신 기술 교육, 정신 건강 문제를 지닌 청소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기업가정신을 추구하는 청년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씨티재단(City Foundation)의 글로벌 보조금 선정 절차(Pathways to Progress) 계획의 일부인 이 보조금은 예스(YES) 고객이 이러한 4가지 중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통해 예스(YES)는 전국적인 지식 공유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이러한 자원을 다른 비영리 단체와 공유할 수 있다. 향후 모든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후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 기타 프로그램

특수직 체험(Pre-Apprenticeship) 프로그램은 노동교육센터(Labour Education Centre) 협력 기관으로 건설업에 취업하고 싶은 희망자에게 수습 전 프로그램을 전일제로 8주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8주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어려운 기술 훈련과 취업 준비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건설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다양한 업종에 노출되도록 설계된 실습훈련과 기술 훈련(hands on training/Technical Training)을 통해 도구들의 안전한 사용법을 익히며 여러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10학년을 수료하고 실업 상태이며 아침 일찍 일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취업 카운슬러와 직업 선택사항을 상담한 후 욕구 사정 평가를 마친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직업개발 전문가가 건설업 현장실습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노숙인 취업 연계 (Street to Jobs) 프로그램은 노숙인 또는 노숙인이 될 위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 상담사 또는 직업개발 상담사가 조력하며, 프

로그래 참여자는 고용 전 훈련과 생활 기능 훈련, 구직활동 조력, 재정적 지원, 직업개발 서비스, 보조금이 지원되는 직업 연수, 지원센터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노숙 청년들의 안정적 거주와 재정 안정성을 위해 긍정적인 단계적 발전을 지원하고, 무주택자 관계 구축 계획(Homelessness Partnership Initiative)를 통해 토론토시가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한다.

학생지원(Student Services) 프로그램은 1년 동안 학생들이 일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학기 중 시간제 일을 구하거나 여름 동안 방학 취업 연계 서비스(Summer Jobs Service)와 여름 방학 회사 체험(Summer Company program)을 통해 전일제 일을 찾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기 중(9월~5월)에 학생들이 시간제 일을 구하기 위해 자원연계 지원센터(the Resource and Phone Centre)를 이용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 구직활동, 이력서 작성, 급여협상과 인터뷰를 개인별로 지원하며, 예스(YES)의 시간제 및 전일제 구인·구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컴퓨터, 인터넷, 와이파이, 팩스, 사진 인화, 전화기 사용이 무료이다. 예스(YES) 정기 운영 시간 외에 매주 수요일 상담프로그램(the Student Drop-In)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워크숍과 센터 클래스룸 가이드 투어, 커뮤니티 그룹을 제공한다.

취업훈련(This Way ONward) 프로그램은 2007년 시작했으며, 올드 네이비(Old Navy)에서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연결하는 취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특화된 소매판매 훈련과 그 외의 훈련을 받는다. 소매판매, 소프트웨어 스킬, 스트레스 관리, 일과 삶의 균형, 자기 계발과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 준비 훈련을 마친 클라이언트는 기관을 통해 올드네이비 매장과 연결된다.

취업연계 센터(Job Central) 프로그램은 킬/에클링턴 인근의 고용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15세~30세 청년을 대상으로 그룹별 취업 기술 훈련과 직업 경험 실습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재학 중이지 않은 상태이며 실업 상태에 있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3주간 그룹별 취업 능력(employability)과 생활 기능(life skill)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 기간 청년들은 최저 임금과 TTC 토큰을 받는다. 훈련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들에게 유급 직

업 실습의 자격이 주어진다. 현장실습 종료 후 정규직 취업의 목표를 갖고 최대 10주간 진행된다.

예스 청년 장애인(YES Ability)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는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직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실천 계획, 경력 상담, 특수 직업개발, 노동시장 정보, 현장실습 기회, 임금협상 지원(accommodation support), 재직 중 일대일 코칭을 지원한다. 또, 운송과 보조 공학을 포함한 고용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더욱 발전된 능력을 함양시키고, 통역사 및 수화 전문가와 같은 협상 장치와 서비스들을 지원한다. 장애가 있는 노동자를 고용할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포함해 장애 인식 정보와 훈련을 제공한다.

토론토 기업 연계(Toronto Youth Job Corps) 프로그램은 15세~30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룹 기반 직무 기술 향상 훈련, 개인 개발, 직업 경험을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그룹으로 약 17일 동안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 개발 워크샵으로 진행된다. 본 워크샵은 인터뷰, 직무 준비, 의사소통, 목표 확립, 갈등 해결 등의 토픽 등을 다룬 후 약 17일은 수작업 직무 경험의 일부분으로 벽화 작업에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소정의 급여와 TTC 토큰(교통비)을 받게 된다.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친 참가자를 대상으로 유급 현장에 실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현장실습이 끝나면 안정적인 취업을 목표로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의 선발 조건은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협약 난민 지위에 있거나 캐나다 합법적 노동 자격이 부여된 자이며, 고용보험 수당을 받지 않고 재학 중이거나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으며, 월~금에 9시 30분~16시 30분까지 근무 가능하고, 5주 동안 훈련이 가능한 자이다.

## 2. 독일 니트 청년 지원정책<sup>3)</sup>

### 1) 독일 청년 노동시장 환경

#### ○ 독일 청년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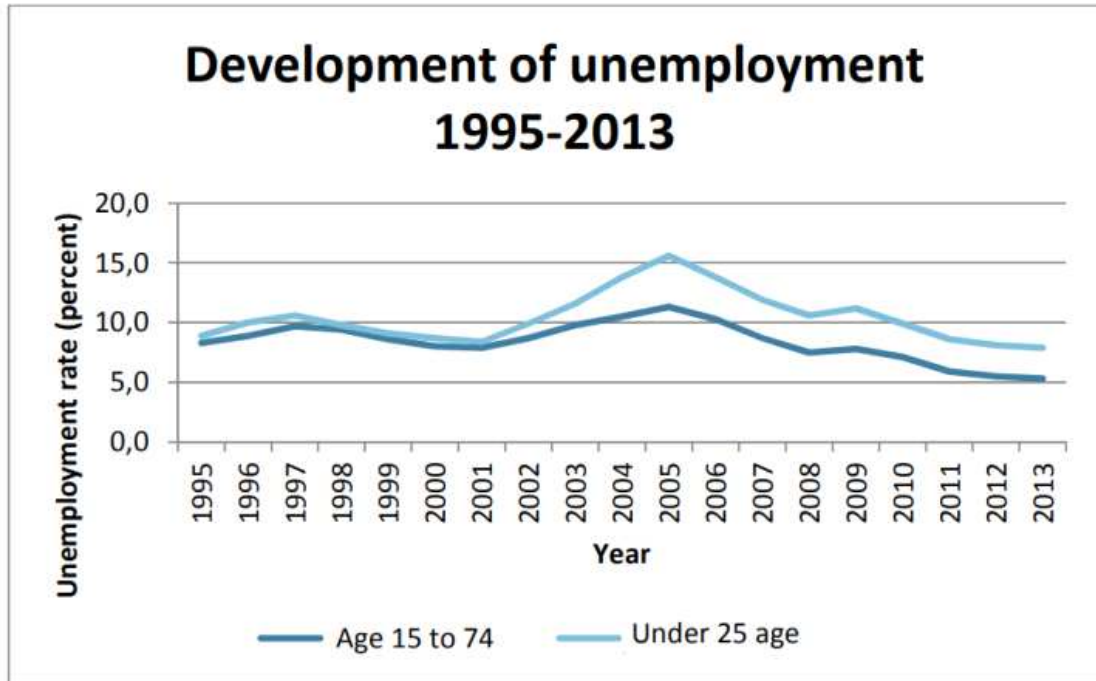
2012년 독일의 25세 이하 청년 900만명 중, 약 460만명이 경제활동 노동인구이다. 통계에는 일반적으로 25세 이하 청년들이 여전히 학업 중에 있거나, 직업 교육과 훈련을 받고있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 독일 사회법 제2권(SGB II)에 명시된 구직자 기본 안전보장 수당을 받는 독일의 25세 이하 청년실업률은 2005년 15.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전체 실업률은 최고 11.3%에 달했다. 25세 이하 청년들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훨씬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25세 이하의 청년들이 다른 연령 집단보다 실업 상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005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2001년도 8.4%에서 7.9%까지 떨어졌다. 2009년에는 실업률이 0.6% 상승하고 감소 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전체 실업률 또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다소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림 6]은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에 독일 노동시장이 완충작용을 잘 해주었고 이를 잘 극복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25세 이하 청년의 고용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2013년 청년실업률이 7.9%(약 355,000명)였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여주었다. 독일 청년실업률은 유럽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실업률(2013년 유럽 청년실업률 23.5%)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독일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대의 평균 실업률(5.5%)보다 증가하였다.

---

3) 독일 니트 청년 지원정책은 독일 연방 고용청(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이 발행한 “National implementaion plan to establish the EU Youth Guarantee in Germany” 를 주로 참고하였음.





Source: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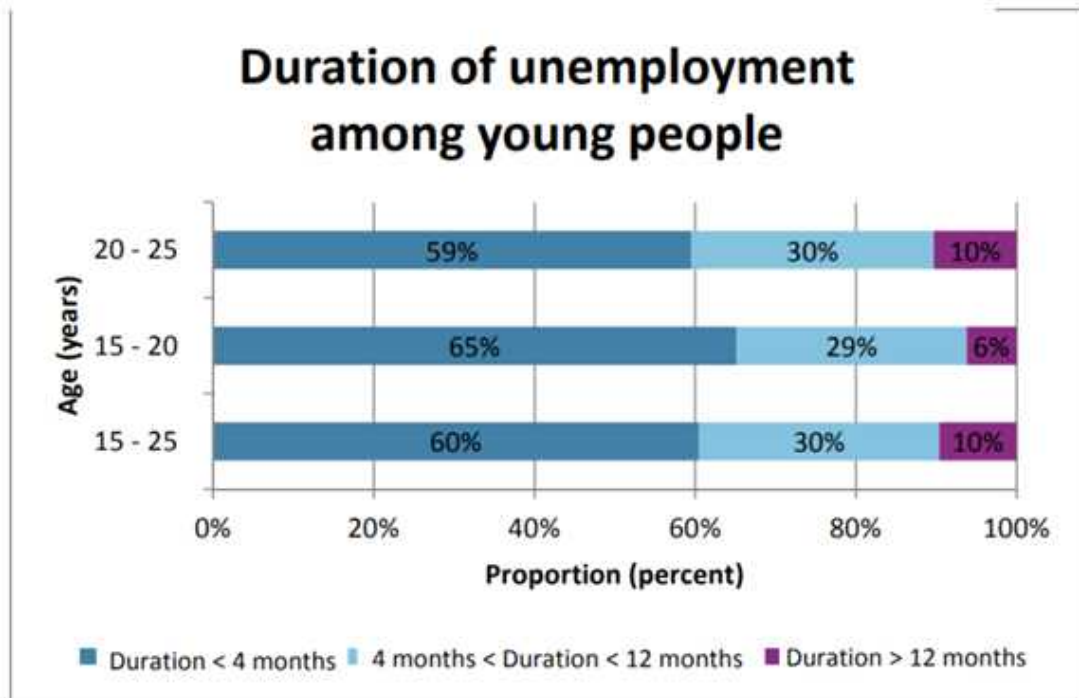
[그림 6] 1995-2013년 독일 실업률 추이, 유럽 통계청 (Eurostat)

#### ○ 독일 청년 실업 인구통계 구조

독일 연방 고용청(the Federal Employment Agency)에 따르면, 2013년 15세~24세 청년의 약 276,000명이 실업자로 등록되었다. 이들은 독일 노동법에 따른 최소 노동시간인 주당 15시간을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었지만, 이와 같은 비교적 낮은 수치의 이면에는 큰 변화가 감춰져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135만명의 청년들이 실업자로 등록되었고 같은 해 130만명의 청년들이 실업 상태를 벗어났다. 통계를 각 연령대로 구분해 보면 20세~25세의 청년이 83%였고, 17%만이 15세~20세 청년이었다. 청년 실업의 지역적 특성 또한 분명하게 나타났고 독일 동부와 서부의 뚜렷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서부지역 청년실업률은 평균 5.2%였고, 동부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9.6%로 동부의 청년실업률이 서부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2012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보인 지역은 베를린으로 12%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바이에른으로 나타났다.

## ○ 독일 청년의 실업 기간

독일 청년의 실업 기간은 2013년 평균 3.9개월로 집계되었다. 15세~24세 청년 60%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취업 자격증(vocational qualification)이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업 기간이 긴 경향이 있다.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은 약 109,000명이었고 약 15%가 15세~20세 청년이었으며, 나머지 85%가 직업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세~25세 청년들 중에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비율은 60%로 집계되었다. 유럽재정 위기 이후 취업자격이 없는 성인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 20세~29세 14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치는 20세~29세 청년들 중 15%를 차지한다. 전환 국면(transition phase)에 있는 청년들의 통계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약 267,000명의 청년들이 전환 국면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청년들이 취업자격이 없거나 더 큰 실업 위기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전환 기간의 청년들을 조력한 후 직업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환 국면에 있는 15세~24세의 청년들 중 약 10%(약 27,000명)가 1년 이상 실업 상태에 놓여있으며, 이 중 89%가 20세~25세 청년이며 약 73%가 취업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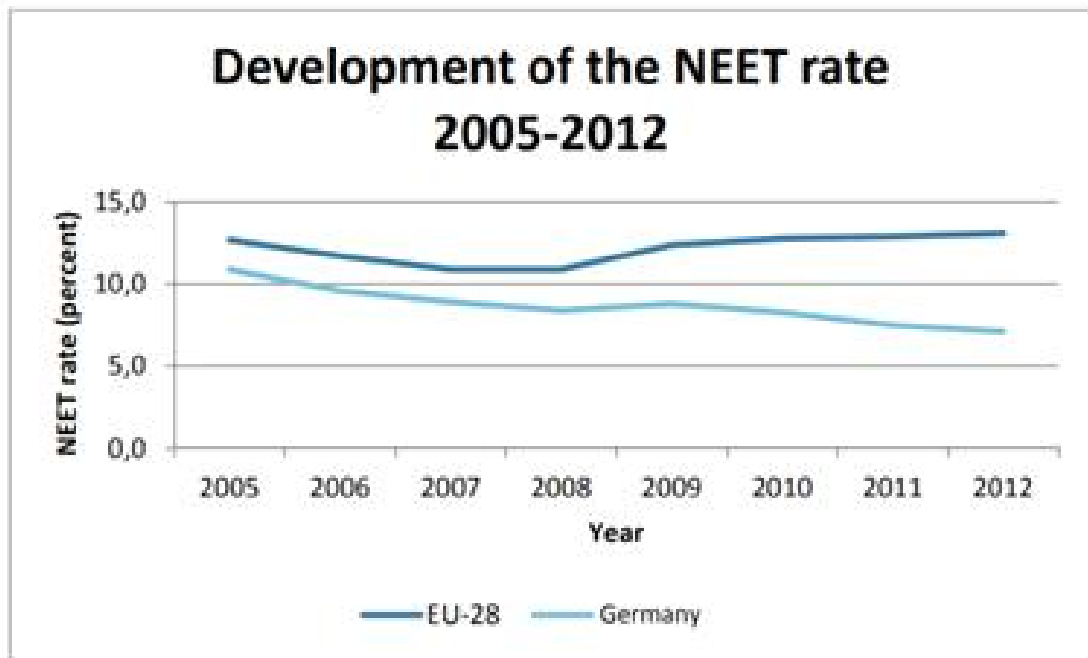
Source: Federal Employment Agency statistics

[그림 7] 독일 청년실업 기간, 독일연방고용청 통계

## 2) 독일 니트 청년 지원정책 현황

### ○독일 니트 청년

2012년 독일의 니트 청년 인구는 640,000명으로 집계됐다. 다양한 집단의 개인들은 노동, 직업 교육, 훈련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적 지원이 필요했다. 니트 상태가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니트 청년 집단은 270,000명의 실업자와 370,000명의 비활동적(non-active)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직업이 없는 청년들을 나타내지만, 이 청년들은 ‘일할 수 있는(available for work)’ 상태와 ‘일을 찾고 있는(seeking work)’ 상태라는 기준으로만 분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청년, 일할 수 없는 건강상태에 있는 청년, 장애가 있는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니트 청년들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니트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Source: Eurostat

[그림 8] 2005-2012년 독일 니트 청년 증가 추이, 유럽통계청(Eurostat)

#### ○ 공공 고용 서비스에 등록된 니트 청년에 대한 사항들

청년 고용과 관련해 특별히 조력해야 할 청년 집단이 니트이다. 니트 청년의 일부는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센터에 직업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유급 직업을 찾고 있다고 등록되어 있지만, 일부는 공공 고용 서비스 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독일 니트 청년은 청년 복지서비스 경로를 통해 고용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회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청년이거나, 개인적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는데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청년들이라면, 이들은 독일 사회법(제8권 제13조/청소년 사회사업)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한 직업 교육과 고용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각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 범위는 2007년~2013년에 독일 연방정부(BMFSFJ)가 JUGEND STÄRKEN 프로그램<sup>4)</sup>을 시작하여 2014년~2020년까지

4) JUGEND STÄRKEN은 청년들이 훈련을 통해 학교, 직장 및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 지방정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독일 전역에서 파일럿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청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적 이유 또는 사회적 불이익 때문에 일반 경로를 통해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었던 청년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법(제8권 제13절)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과 고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의 목적은 불이익을 받는 청년들이 안정적 고용상태에 이르게 하고 이들을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 시스템과 기관들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평가는 독일 사회법(제8권 13절)에 따른 청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Soziale Stadt -Investitionen im Quartier)와 같은 도시 발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파일럿 지역들 및 청년 고용 이슈가 특별히 심각하고 불이익을 받는 지역을 선택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 청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포함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고, 이들이 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는 비영리 민간 복지 전달체계,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관할 행정지구, 기업체, 지역의 로컬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니트 청년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도전 과제를 확인해야 하며,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청년들에게 맞춤 서비스와 고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 투쟁을 위해 설립된 연합체와 연방정부의 청년강화(JUGEND STÄRKE)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기관들과의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접근

학교 졸업 후 취업전선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청년 고용의 문제는 다양한 정부 이해관계자들과 비정부 이해당사자들이 직면한 청년 고용의 문제에 관해 서로 협업한다. 고용지원센터, 취업센터, 청년복지서비스센터와 같은 기본적 사회서비스 제공자들이 실행될 정책들을 승인하고 조정해야 하고, 학교와 고용주들

그리고 연합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 ○ 학교와 직업 안내 서비스센터와의 협업

학교와 직업 안내 서비스센터의 협약에 기초하여 독일 연방 고용청(the Federal Employment Agency)과 독일 지방 교육문화부 상임위(the Standing Conference of the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of the Länder)는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직업 교육, 훈련 또는 취업에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트너들과의 협업은 전환기의 청년들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을 고려해 더욱 강화되었다.

다양한 지역의 학교들은 직업전문학교(SCHULEWIRTSCHAFT)들과 비즈니스 연합회를 통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협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들에게 사업과 고용 현장에 대한 실용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고용주들은 학교의 권한과 방법들, 그리고 학교가 제공하는 고용기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다.

#### ○ 고용지원센터와 취업센터, 고용주, 노동조합, 산업협회 간의 협업

독일 연방 고용청은 독일 사회법에 따른 권한 수행에 있어 자치 공공기관으로 활동한다.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감독 및 입법적 역할을 모두 하는 노사정 행정위원회이다. 고용주, 직원, 공공기관은 각각 7명의 명예 이사를 이사회에 임명한다. 마찬가지로 자치 행정 기관인 지방 고용 기관에는 자체 노사정 행정위원회가 있다. 이는 고용주, 고용주협회 및 노조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연방 고용관리청에 의해 구현된 고용 촉진 조치와 관련하여 모든 사회 정책 요구를 구조화하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직업 오리엔테이션은 비즈니스와의 특수 협력 이니셔티브(예: SCHULEWIRTSCHAFT 제휴)에서 공동으로 수행된다.

구직자를 위한 기본적인 보안 혜택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 고용청은 자체 관리 기관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신, 연방 노동사회부(BMS)에 법적 및 정책적 역량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연방 노동사회부는 구직자를 위한 기본 보안 혜택에 관한 법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혜택을 이행하는 데 관련된 핵심 쟁점을 감독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협회 및 연방 고용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워킹그룹이 소집되었으며, 그중 하나는 독일 사회법에 따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직자를 위한 기본 혜택 조정을 위한 법적 협력 위원회도 2011년 이후 독일의 16개 주 모두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편익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호평을 받았다. 지역 고용 기관 및 일자리 센터는 실업자를 위한 교육 계획이나 구직자를 위한 훈련이 지역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지역 고용주, 노동조합 및 산업협회와 긴밀히 협력한다. 고용주는 또한 직업 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이드를 제공한다. 청년 및 직업 동맹(Arbeitsbünnsse Jugend und Beruf)은 전국 청소년 직업 훈련 기관(Jugendberufsagenturen)과 같은 협력기반 접근방식을 확립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역 참가자(취업 촉진 서비스 및 구직자에게 기본적인 직업 혜택을 제공하는 참가자), 그리고 시 행정부와 학교 간의 직업전환을 관리하고 프로세스 협력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한 후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독일 사회법 제2권, 제3권 및 제8권에 따른 조항을 조정하였다. 연방 노동사회부를 대신하여 연방고용청(BA)은 2010년에 일자리 센터, 고용 기관 간의 접점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직자 기본 직업 안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복지서비스 목적은 독일 사회법 제2권에 명시된 노동시장에 청년들을 통합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여, 각자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독일 연방 고용청은 초기 테스트 단계를 거친 후 청년 및 직업 동맹(Arbeitsbünis Jugend und Beruf)과 함께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작업 자료를 개발하여 인터페이스 관리를 개선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관리 체계는 100개 이상의 장소에 소개되었고 일자리 센터, 고용 기관 및 청년복지 서비스 기관의 청년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연합이 다루는 네 가지 주요 요소는 투명성, 정보 교환, 프로세스 및 협업, 원스톱 원칙이다. 각 기관 및 단체들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센터(Jugend job 센터)와 청년 직업 기관(Jugendberufsagenturen)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비록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마인츠와 다름-스타트, 그리고 로스토크 구역에서 이미 확립되어 관

련 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었다. 함부르크는 특히 청소년 직업 소개 기관에 대한 접근방식이 매우 발달 되어있다. 여기에서 얻은 다양하고 귀중한 경험을 통해 협력의 형태가 더욱 확대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연합 협정에 따라 청년 고용 및 청년 직업 기관과 조율하기 위해 동맹에 사용되는 조정된 협력 접근방식을 전국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환 단계에 대한 지방정부 고유의 준비 및 요건의 지역적 차이와 같은 측면을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역 및 참여자들은 전환 단계에 대한 접근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조건을 설명해야 한다. 지역 기관과 조직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수월하게 전환될 수 있게 조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환기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들이 축적됨에 따라 청년들이 니트가 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 연방정부-산업 조직 간 직업훈련 조약

경력 훈련 및 숙련 인력 개발을 위한 협약(The National Pact for Career Training and Skilled Manpower Development)은 연방정부와 주요 산업 조직이 지난 10년간 연방 고용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교육문화부 상임위(The Standing Conference of the Ministers of Education and Cultural Affairs of the Län-der)는 2010년 협약에 가입했으며, 이전에 특정 현안과 주제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협약은 2010년~2014년까지 시행됐다. 협정 당사자들은 현재 노동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특정 이슈와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 1년에 여러 번 실무 수준에서 만난다. 연방 각료와 산업단체장들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는 기자회견이나 언론 발표를 통해 대중에게 발표된다.

협약 파트너들은 직업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노동시장 진입 청년들에게 공인된 직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훈련 장소를 제공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따른다. 이 직업훈련협약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에서 직업훈련으로 전환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른 시점에 직업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청년과 고용주와 만남을 제공하여 직업인터뷰 기술을 개선



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약자인 젊은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포함된다.

업계는 매년 평균 6만여 곳의 신규 교육장을 만들고, 3만여 곳의 신규 교육업체를 모집하겠다고 공약했다. 2013년에도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해 66,000개의 신규 교육 장소(2012년 69,100개), 39,100개의 신규 교육 사업체(2012년 41,660개)가 설립되었다. 독일 연방 고용청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교육 공약을 이행했다. 교육비율은 2012년 사회보험료 대상 7.5%, 근로자는 7%를 초과했다. 협약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유일한 분야는 입문 교육(EQ)과 특수 욕구를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입문 교육(EQ Plus)을 받는 것이었다. 2014년 2월에 이루어진 직업훈련교육(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디딤돌로 입문 교육에 대한 공동 선언에서 이 협약 파트너들은 『EQ』 및 『EQ Plus』 제도를 개선했다. 이 협약의 파트너들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사내 교육기관과 젊은이들 사이의 수요에 따른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11월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교육 기관 및 기업들이 직업교육 매칭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다.

#### ○ 초기 개입 활성화

청년들이 직업 방향 설정과 안내, 직업 교육과 훈련 알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통 창구들이 있어야 한다. 직업기회와 안내 서비스들이 제공된다는 것을 가능한 빨리 청년들에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협업이 필요하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직업 상담사, 고용지원센터의 직업 안내 서비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 고용주, 위원회에게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에 관해 정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와 후견인은 직업 설정 과정에 직업 연결의 핵심이며 조언자로 신중하게 참여해야 한다. 졸업하기 1년~2년 사이에 직업 선택의 방향 설정에 관해 대화하고, 직업 설정 방향성은 교육의 일부로 초창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 ○ 학교에서의 초기 직업 방향성 설정과 직업 안내

직업 선택이 사회 참여의 기본이다. 전국적으로 고용지원센터는 직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정보센터(BiZs)에서는 그룹별 프로그램, 개인 직업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독일 연방 고용청(the Federal Employment Agency)에서는 풍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연방 고용청은 청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디어 유형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 파일럿 프로그램에 선별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직업 안내 담당자와 청년 구직자는 온라인 채팅 상담을 한다.

청년들에게 취업 방향성과 직업 정보 안내를 지원하는 고용지원센터의 직업 안내 담당자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트렌드와 특별 직업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에게는 직업 환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른 기관들 즉, 연합회와 고용주 협회나 비즈니스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업한다.

어떤 경우에는 더욱 집중적인 직업 설정과 직업 선택 준비 서비스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청년들은 특별 직업군에서 단기 취업을 하여 그 직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경험들과 그 외 필요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지역연합회, 산업협회, 고용주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며 청년들이 직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들을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공정한 취업 정보 제공, 학교에서의 특수 직업에 대한 수업들, 졸업 후 취업 알선, 방학 동안의 직업 워크샵, 교사들을 위한 취업 교육 정보, 온라인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의 각계 연합회는 직업 교육과 훈련 안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업 지도와 직업 방향 설정과 서비스 제공은 독일 사회법 제3권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 교육연구부(BMBF)는 기업 간 및 유사한 교육 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업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BOP)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 ○ 직업훈련 안내와 배치서비스

직업훈련 알선 서비스는 고용주와 함께 이종교육과 직업훈련을 원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된다. 고용 기관은 직업 안내와 훈련 배치 지원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독일 사회법 제2권에 따른 취업 자격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책임은 직업센터에 귀속되지만, 고용 대행업체에 업무를 이관하고 관련 비용을 차후 지급할 수 있다. 공동 기관으로 조직된 일자리 센터의 3분의 2와 지역의 일자리 센터의 4분의 1이 현재까지 이 옵션을 사용하고 있다. 산업 회의소와 상공 회의소, 무역 및 공예 회의소에서 독립적인 직업 안내 및 훈련 배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의실과의 공동 후속 조치 계획 등 훈련 협약에 따라 합의된 활동도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2년~2013년 직업 지침 보고서에 등록된 직업훈련 지원자 약 560,000명은 독일 연방 고용청(the Federal Employment Agency)으로부터 직업 지도 및 배치 교육을 받았다. 학력이 좋지 않은 청년들과 이민자 출신들에게 취업은 특히 어려우며 학력이 좋은 청년들도 곧바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력과는 무관하게 많은 청년들이 전환기의 시기에 노출되고 있다. 때문에 양질의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접할 수 있는 청년의 기회를 더욱 개선하고, 직업 교육 및 훈련에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긴 시간 취업 프로그램에 묶여 있는 젊은이들의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

#### ○ 학교 및 교육 중퇴 방지: 청년층의 취업 자격 획득 지원

2008년 10월 22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교육 정상회의에서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 교육 조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독일 국민 모두를 위한 학교 및 직업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무자격 학교 졸업생들의 수가 8%에서 4%로 감소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직업 자격이 없는 청년들의 수를 17%에서 8.5%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하위 중등학교 자격증이 없는 졸업생들의 수는 8%에서 5.9%로 감소했다. 20세에서 35세 사이의 무자격자의 수는 2005년 17%에서 2010년 15%로 감소했다. 2010년 전체 20세~24세 중 14%가 직업 자격이 없었다(2005년 16.5%).

장기간에 걸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채택되었다. 이 전략은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는 5가지 경로로 구성되었으며, 조기 교육에서 고령의 고용 가능성 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청년 교육은 두 가지 경로를 따르며 숙련된 인력 채용 전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먼저, 매년 사전 결정된 지표에 대해 진행률을 측정한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자격 미달의 위험에 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 멘토링의 진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학교 기반 직업 개발 및 서비스 계획을 설정하고 독일 연방 고용청이 제공하는 직업 준비 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다음, 지방정부 교육문화부 장관 상설 회의는 취업능력이 미흡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 합의했으며, 이는 중등학교 수준의 직업 자격취득과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중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멘토링에 의한 직업 진로 설정, 진로진입 지원 등의 예방조치, 훈련 지원 등을 제공한다.

### 3. 국내 니트 청년 지원정책

#### 1) 니트 청년 법률 현황

국내에서는 니트 청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없지만 대신, 청년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니트 청년 법률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여기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사업은 청년 고용 및 일자리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은 전반적인 청년지원에 대한 목적과 지원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의의는 보여주었지만, 니트 청년에 대해 특정하거나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내용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규정 및 청년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근거법
목적	청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권리를 보장
청년 범위	19세 이상 34세 이하
관할 부처	국무총리실 소속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정부 및 지자체에 청년 정책 책임관 지정
주요 사업	청년 고용 및 일자리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표 10] 『청년 기본법』 주요 내용

그다음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이다. 이 법은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주된 내용은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의무, 국민생활안정 공공부문 청년미취업자 고용 확대, 중소기업 청년미취업자 고용지원, 청년미취업자 고용확대계획 수립,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 직업 지도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이다.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의 ‘제8조 4항’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니트 청년지원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률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대상이며,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한 직업 경로 설계, 직장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제8조 4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성공패키지사업의 취약 계층 지원대상 중 니트 청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9]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개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2020)

## 2) 중앙정부 니트 청년 지원정책 현황

현재 중앙정부 니트 청년 지원정책은 2018년 3월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큰 틀에서 일부 고용과 구직지원금에 대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취업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 기업지원강화, 청년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취·창업할 수 있는 역량 강화로 구분된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대학 일자리 센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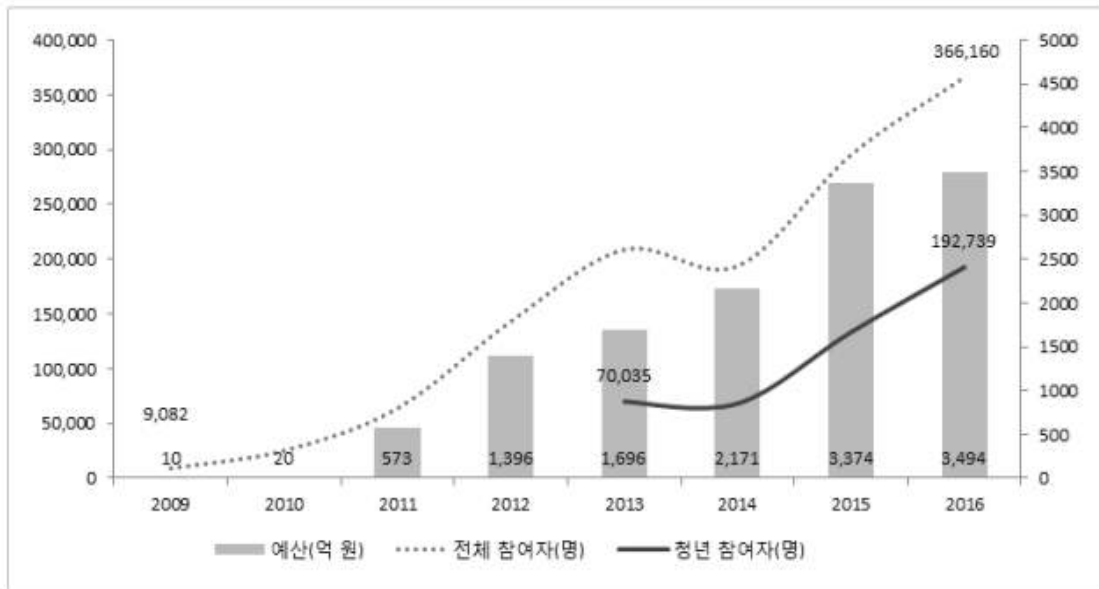
정책사업	주관부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부
청년고용증대세제	기재부
R&D제도 개선 3종 패키지	과기부
청년친화형 산단조성	산업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기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기재부
전·월세 보증금 저리대출	국토부
산업단지 재직청년 교통비 지급	산업부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교육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행안부
연구개발성과 기업 이전 촉진지원인력 창출	과기부
K-Move 트랙 신설/정착지원금 확대	고용부
KOICA 장기해외봉사단 확대	외교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고용부
<b>취업성공 패키지 사업</b>	고용부
온라인·오프라인 청년센터 신설	고용부
청년 장병 취업 지원	중기부

[표 11] 청년지원정책 현황 (일자리 위원회, 2020)

이 중에서 니트 청년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바로 고용노동부 주관의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이다. 니트 청년 지원은 고용노동부 청년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서 취약 계층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부터이다(오민홍, 2013).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는 노숙인, 결혼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위기 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건설 일용근로자, 여성 가장,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은 2009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별도로 이루어지던 뉴스타트 사업이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의 4가지 유형으로 통합되었다. 이때부터 청년층 뉴스타트 사업을 결합해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에 이르러서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은 니트 청년을 저소득 취약 계층에 포함했다. 2016년부터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취업 성공패키지를 분리해 별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참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표적 청년 고용사업으로 발돋움했다. 청년 지원대상의 증가는 대졸 청년지원 자격요건 완화와 재학생 참여를 완화 시킨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예산 규모는 청년 정책지원의 확대에 맞추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의 성장에 반해 니트 청년의 참여 인원은 감소했다. 니트 청년 참여자는 2014년 320명에서 2016년 81명으로 감소했다. 이시기 니트 청년이 전체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에서 지원받는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0.02%로 아주 작은 비중이었다.

이러한 니트 청년 참여의 감소 원인은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운영기관의 잦은 변동 때문일 수 있다. 초기에는 고용센터에서 민간위탁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민간위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바뀌는 과정에서 니트 청년 발굴 및 관리가 인수인계되지 않아 니트 청년 참여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다음 니트 청년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대상자 지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니트 청년은 신청기준으로 2년 동안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근로하지 않는 청년으로 기간 자체가 너무 길고, 대상자 작성 문답 역시 까다로운 점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김기현, 2018).





[그림 10]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연도별 참여인원 및 예산 추이 (김기현, 2018 재인용)

### 3) 닛트 청년 민간지원사업 사례

닛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민간지원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는 희망플랜사업이다. 201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희망플랜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수행해왔다. 각 지역 단위 공모를 통해 총 11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했다. 사업수행지역은 서울시 3개 지역, 경기도 2개 지역, 대구광역시 2개 지역, 그밖에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등으로 구분되고, 대도시와 농촌 지역을 적절히 안배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행기관	센터명	사업지역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림센터	관악구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센터	은평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성북센터	성북구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센터	광명시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춘의센터	부천시
평화사회복지관	전주센터	전주시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무등센터	광주광역시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중구센터	대구광역시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달서센터	대구광역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센터	부산광역시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센터	원주시

[표 12] 지역 참여 기관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

희망플랜사업의 사업은 지역사회조사, 사업수행, 모니터링, 평가, 전환 등의 순서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지역사회조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및 공간을 마련하고, 대상자와 사업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와 준비작업을 의미한다.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직원을 선발하고, 사례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 및 기초조사 조사를 실행했다. 또한, 지역사회 청년단체와 협업 가능성 있는 네트워크와 마을활동가들을 조직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었다. 두 번째, 사업실행은 논리모델에 따라 지역사회조사 단계에서 수립된 사업전략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서 전체사업의 목적 및 성과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네트워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 모니터링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중앙센터에서 보고를 받고, 점검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네 번째, 수행한 사업들의 효과성과 지속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를 위한 질적, 양적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 및 정보들을 분석했고, 차기 사업에 반영할 것은 무엇인지 결정해서 사업을 재디자인했다. 특히 3년 단위 평가는 외부 평가팀을 구성했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변화 스토리 수집, 선정 질문 조사 등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종결 이후에도 사업의 목적 및 성과가 지역사회에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를 촉진시켰다. 각 지역센터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취약계층 청

년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그림 11] 희망플랜사업 추진 프로세스(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9)

희망플랜사업 11개 센터의 대표적인 주요 특징범주는 크게 마을활동, 직업체험, 비전수립/아젠다 발굴, 취업·창업/사회적 경제, 인턴십, 정서지원 등으로 나타나며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년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마을 활동이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동사업이나 마을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는 마을활동가를 조직하고, 마을공동체와 지역행사를 개최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니트 청년의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직업 체험프로그램이다. 동기부여가 필요한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취업 진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다. 세 번째, 당사자 발굴 및 개입을 통한 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지역사회에서 청년 이슈를 알려내고, 청년들을 조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네 번째, 니트 청년 취·창업을 교육하고 사회적 경제와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형태로 창업을 성공한 사례를 만들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내 기업에 인턴십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마지막으로 심리 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은둔형 외톨이로 통칭되는 고립 청년이나 우울증, 불안, 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대상에게 적합한 사례관리와 맞춤형 상담을 지원했다.

구분	센터명	주요프로그램
마을활동	원주센터	• 직업지원 프로그램(잡 챌린지 프로그램) “Dreamup” • 마을활동가 “같이함에 가치 있는 마을활동”
	중구센터	• 위드 프로젝트 - 네트워크 구축 / 위드 프로젝트 - 마을활동가 사업
직업체험	광명센터	• 나를 알고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결정하는 「직업체험스쿨」 • 자립과 주체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비전아카데미」
	은평센터	• 직업체험전 / 청년창업 새싹점포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멘토링
비전수립/ 아젠다발굴	춘의센터	• 아젠다 발굴에 따른 정책 제안 및 지역사회 활동 확대
	무등센터	• 비전스쿨 ‘꿈, 비전, 그리고 설계하라’ 지역사회 릴레이포럼
취업·창업 사회적경제	달서센터	• NEET 청소년 취·창업지원 / 청년 사회적 경제활동지원
	신림센터	• ‘사회적 경제로 창업하기’ & 여성한부모 자조모임 • 관악지역 청년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강화 및 이슈화
	성북센터	• 진로 정서 코칭단/ 2018 희망플랜성북센터 창업
인턴십	부산진구 센터	• 지역활동가 가정 모니터링 / 청년 착한기업 인턴십
정서지원	전주평화 센터	•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토닥 학습 정서 멘토링

[표 13] 각 지역센터별 주요사업 및 전환계획(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

### Ⅲ. 충남 니트 청년 지원정책 현황

#### 1. 충남 청년 지원 법률 현황과 니트 청년

충남은 니트 청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법률은 없다. 다만, 2017년 2월 제정된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니트 청년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의 목적은 “충청남도에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의 주요 활동은 청년 정책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청년 정책사업의 운영 등이다. 청년 정책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청년 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주거와 생활 안정, 창의적 청년 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활동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니트 청년 정책과 연관되는 내용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청년 지원조례’는 충남의 전반적인 청년지원에 대한 목적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니트 청년에 대한 지원 법률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분	내용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규정 및 청년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근거법
목적	- 충청남도에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와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청년 범위	- 충청남도에 거주·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관할 부서	- 충청남도 청년 정책과
주요 사업	- 청년 정책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청년 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 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지원,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주거와 생활 안정 -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해당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문화 활동 지원
니트 청년 연관 내용	-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방안 -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표 14] 『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주요 내용

## 2. 충남 유형별 니트 청년 정책 현황과 니트 청년

충남은 니트 청년으로 대상을 규정한 직접지원 정책은 없지만, 현재 각 지역별 청년 정책을 살펴보고, 니트 청년지원 연계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1) 일자리 분야 청년 지원정책과 니트 청년

일자리 분야 청년 지원정책들은 총 34개 사업, 471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목적은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여 지역 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제사업과 인턴 지원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천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아산시 청년내일카드, 계룡시 대학생 청년 인턴사업, 부여군 청년정착 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니트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고용 기간이 짧고 인건비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니트 청년들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문제점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체험한 니트 청년들이 자칫 조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둘째, 창업 교육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다. 공주시 청년창업지원사업, 아산시 청년지원사업 등으로 사업개발비와 창업 멘토링을 제공한다. 냉각된 노동시장에서 창업은 니트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도의 기회를 열어준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사업의 성과목표인 법인화는 니트 청년들이 달성하는데 난이도가 높은 목표이며, 고도화된 사업계획서는 작성하기 까다로워 니트 청년들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천안시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아산시 청년취업캠프, 논산시 청년취업박람회, 서천군 청년 cheer-up(취업) 지원사업 등으로 진로 탐색이나 취업에 필요한 면접을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

의 상당수는 일자리가 충남 북부권에 밀집되어 있어 충남 남부권에 거주하는 니트 청년들과의 취업을 연계하는 것은 풀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넷째, 충남의 농촌 지역에 특화된 지원사업들도 많이 편성되었다. 보령시 청년농업인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영농디딤돌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자재·농기계를 지원하거나 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영농기술을 배워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니트 청년보다는 다년간 농업의 노하우와 기반을 닦은 전문 농업인에게 활용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역명	사업명	주요 내용
천안시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 면접 정장 무료대여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하여 기업지원금 추가 지원
	천안박물관 청년 도슨트	■ 실무 인턴 경험 제공
공주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 창업교육 및 사업비 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영상/촬영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 및 콘텐츠 제작
보령시	보령 청년 브랜드 개발	■ 청년 농업인 공동브랜드 개발, 홍보 플랫폼(브랜드 마케팅) 개발 비용 지원 등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다문화 이주여성 직업능력 개발 지원	■ 라떼아트, 디저트 창업 등 직업교육
아산시	청년내일카드	■ 근속 7개월~12개월까지 매월 25만원 지원 (1인당 총 150만원)
	청년취업캠프	■ 진로탐색콘서트, 취업캠프, 청년주간행사 등
서산시	일자리 종합센터 취업 지원프로그램	■ 구인, 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논산시	청년 취업박람회	■ 청년 취업박람회 운영
계룡시	계룡시 대학생 행정 인턴	■ 연2회 방학 기간을 활용한 대학생의 시정 참여기회 제공 및 근무에 따른 급여지급

지역명	사업명	주요 내용
당진시	청년인턴제 운영	■ 인턴 근무(최대 6개월)
	창업가 공간 지원	■ 창업공간지원
금산군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	■ 사무실 및 현장근무로 사회생활 경험 기회 제공
부여군	도시청년 지역 상생 고용	■ 서울시, 부여군, 참여기업이 참여 청년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여군	부여 청년정착 상생 고용	■ 부여군 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부여군 내 기업 취업 시 인건비 지원
서천군	청년cheer-up(취업) 사업	■ 면접, 취업 축하 및 근속장려금 지급
	유희공간 활용 예비 창업자 공간지원 사업	■ 유희공간 활용 창업공간 지원
청양군	대학생(인턴) 일자리 사업	■ 사회적기업 등 민간일자리 연계로 경험 제공
	청년 농업인 영농디딤돌 지원사업	■ 영농기반 구축사업 지원
예산군	예산군 일자리 박람회	■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 기업과 매칭 및 면접 진행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취업프로그램 실시
태안군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 조리법 개발, 공간 조성 등 사업화 지원

[표 15] 충남 청년 일자리 분야 지원사업

## 2) 복지문화 분야 청년지원정책과 니트 청년

복지문화 청년 지원정책들은 총 12개 사업, 137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목적은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복지·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천안시 2030 청년 복지센터사업, 아산시 청년아지트 나와유사업, 청년활력공간 LAB, 부여군 청년 센터 등으로 청년역량강화, 진로발견, 능력개발, 커뮤니티, 스터디룸 등을 제공



한다. 이는 일자리 분야 청년지원정책들이 창업 멘토링을 하고,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필요한 욕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니트 청년들은 역량 강화나 진로 탐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지만, 다수와 교류하는 걸 불편해하는 일부 니트 청년의 경우에는 접근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니트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모색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학자금을 저리로 전환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이다. 천안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양사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높은 이자율 납부가 힘겨운 청년들에게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자부담금과 더불어 일정 기간 적립하면 일정 기금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해 효과적인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학업과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니트 청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낮은 사업으로 보여진다.

셋째,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청양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 전입해온 청년과 대학생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타지역 청년들의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이지만, 충남 거주 니트 청년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을 떠나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활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청년문화예술가들의 자립과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주시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서산시 찾아가는 청년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부여군 청년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홍성군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등으로 청년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고, 문화 소외지역에 청년문화예술가들이 문화콘텐츠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문화 활동의 주체로 성장하고, 지역문화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매우 긍정적이지만, 니트 청년들의 문화 역량을 고려할 때 공급자이기보다 수혜 측면에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명	사업명	주요 내용
천안시	천안시 2030 청년복지센터	■ 역량 강화, 진로발견, 능력개발, 심리정서 지원 등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 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 지원
	연합기숙사 지원	■ 기숙사비 일부 지원
공주시	공주시 열혈청년복지카드	■ 재직 청년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청년예술인 선정 및 창작활동 지원
보령시	전입 학생 지원금	■ 1년 6개월간 최대 60만원 지원
	청년근로자 정착을 위한 연봉 지원사업	■ 약정금액 매월 적립
아산시	청년 아지트 나와유 운영	■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스터디룸, 북카페 등 제공
서산시	서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과 상해 질병 휴유장애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지원	■ 생활지원금 지급(1인당 100,000원)
	찾아가는 청년문화 예술 활동 지원	■ 문화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논산시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지원금 지원	■ 연 20만원 3년간 지원
당진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	■ 컨퍼런스, 문화공연(9월중)
금산군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지원금	■ 재학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부여군	부여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현역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한 보험 가입
	청년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 청년문화형성을 위한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청양군	관내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2학기분 기숙사비 지원
	청양사랑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 목돈마련 지원
	대학생(인턴) 일자리 사업	■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일자리 연계로 경험 제공
	전입 대학생 축하금·생활 안정지원금	■ 축하금 및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 안정지원비 지원	■ 청양군에 주소를 둔 타지역 대학생
홍성군	청년문화기획 프로젝트	■ 청년 주도로 다양한 문화예술 기획 및 창작활동 지원

[표 16] 충남 청년 복지문화 분야 지원사업

### 3) 참여권리·주거 분야 청년지원정책과 니트 청년

참여권리 청년 지원정책들은 총 16개 사업, 18억 규모이며, 주거 분야 지원정책은 총 5개 사업 328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참여권리 청년 지원정책은 청년 주도적 정책 결정 및 지역 청년 정책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주거 분야 지원정책의 목적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고, 전·월세 비용을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참여권리 분야와 주거 분야 청년지원정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권리 분야는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청년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위원회·네트워크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참여지역은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청년위원회·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위원회·청년 네트워크 사업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지역 청년 현안 수집, 청년 시책 건의, 청년 정책계획 심의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청년을 위한 사업은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권리 분야 사업은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와 기회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앞으로 청년위원회 참여 주체 구성에 니트 청년을 포함한다면, 니트 청년 문제를 의제화하고 해결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 주거 분야 지원정책은 청년 주택자금/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임대료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사업, 세어하우스 운영 등으로 구분되며, 보령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전·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이 저렴하게 공유할 수 있는 세어하우스 등도 청년들에게 호응이 큰 사업이다. 다만, 니트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주거비지원 사업보다 커뮤니티와 연계할 수 있는 니트 청년에 특화된 세어하우스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명	사업명	주요 내용
공주시	청년네트워크	■ 공주시 청년 네트워크 운영 및 교육 지원으로 청년 정책참여 활성화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1.5백만~3백만)
아산시	청년위원회	■ 지역 현안 청년 문제 수집 및 시책반영건의
서산시	서산시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 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관련 사항, 사업 조정 및 협의 등
논산시	논산시 청년네트워크	■ 청년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계룡시	계룡시 청년네트워크	■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제공 및 네트워크 참여 위원에게 여비 및 수당 지급
	계룡시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 정책 주요사항 심의·의결 및 의견수렴
	대학생 국외연수	■ 국외연수 지원
당진시	세어하우스 운영	■ 청년 타운 입주기업인, 스마트팜 운영 청년지원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 정책 기본·시행계획 심의 자문 수행
부여군	청년 세어하우스 운영	■ 저렴한 월세로 공유 주택 제공
	부여군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부여군 청년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
서천군	청년 행복 주거비 지원사업	■ 전·월세 또는 관내 주택 구입시 최대 2년간 지원
	청년 세어하우스 운영	■ 무주택인 이주 청년 세어하우스 제공
	이주 청년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 이주 청년 빈집 리모델링 지원
청양군	청년 세어하우스 조성·운영	■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임대
	청년 네트워크 운영지원사업	■ 문화공연 활동 보조금 지급
홍성군	청년 사업운영	■ 청년이 홍성군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지원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 대출이자 4.5% 이내 전액 지원
	청년임대료 지원	■ 임대료 지원
	세어하우스 운영	■ 귀농·귀촌 청년에게 시설비 지원

[표 17] 충남 청년 참여권리 및 주거 지원사업

### 3. 충남 니트 청년 정책 제언

현재까지 충남에서는 니트 청년에 대한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고 통계자료 현황도 부족한 실정이다. 니트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니트 청년의 규모와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업 상태인 니트 청년, 장기적으로 취업을 준비 중인 니트 청년, 심리적 문제로 휴식하고 있는 니트 청년들은 각각 처한 상황이나 문제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따른 정확한 실태 조사가 파악된 다음에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충남 청년 정책 수립에서 니트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부재하며 충남 청년 정책에서는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 교육 등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를 통해 충남 니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 충남 청년 니트 청년 지원 법률 정비

충남은 청년 기본조례에서 니트 청년에 대한 법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남 청년 기본조례는 청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적인 위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니트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찾기는 어렵다. 충남 청년 기본조례에는 청년들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 문화활동의 활성화, 권리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니트 청년을 위시로한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년의 우선적인 자립 및 노동 시장진입, 우선적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우선적인 주거와 복지 지원 문제 등에 관련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 충남 청년 정책의 니트 청년 활용

일자리 분야 청년 지원정책은 고용이 단기간이며, 인건비 수준이 낮아 니트 청년들에게는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식되어 참여율이 낮을 수 있다. 만약 기업과 고

용을 장기적으로 하고, 연계하는 지원금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더 많은 니트 청년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자금과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법인화와 난이도 높은 사업계획은 니트 청년들에게는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창업 실패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니트 청년에게는 창업지원금의 규모를 늘려주거나 창업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니트 청년들의 사업 기획 역량을 높이는 교육이 제공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는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 커뮤니티 활동들은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 하지만, 니트 청년의 특성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기 때문에 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신뢰 형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목돈마련 사업 등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되는 사업이다. 니트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목돈 마련의 경우에는 고정수입이 없어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목돈의 규모도 좀 더 작게 단계별로 조성하는 것도 유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정적인 관리를 촉진하는 재무·금융컨설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년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예술을 기획하고, 문화사업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사업은 청년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화예술 인프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니트 청년들의 문화예술역량이 단기간에 성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니트 청년들은 문화예술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니트 청년들이 실행 주체이기보다 문화예술의 수혜 측면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니트 청년들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은 총 8개 기초지자체 지역에서 청년위원회·청년 네트워크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들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위원회 구성에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

힘이 풍부한 청년’, ‘청년 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등 청년 단체 활동과 전문성이 있는 청년들이 주로 참여함으로 니트 청년들은 이 논의구조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참여 구성에서 주된 논의는 청년 주류 담론인 일자리, 주거, 문화 등의 정책의제들이 양산되고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 측면의 청년 정책은 배제되는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부각 되지 않는 선에서 취약계층 당사자 또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포함한다면, 니트 청년과 같은 사회복지적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제안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 해외 니트 청년 지원정책에서의 충남 적용점

충남은 캐나다가 니트 청년을 교육, 고용, 훈련 등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 구직 중인 청년과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되지 않은 청년으로 유형화한 것처럼, 니트 청년 유형을 세분화해서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공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입장벽이 까다로워 활용하지 못하는 니트 청년들에게 참여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하는 것을 후자는 비구직 상황이 심리적 문제, 육아, 취약계층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니트 청년을 은둔형 외톨이로 대변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니트 청년의 문제가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도 원인이지만, 현상 자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의 소외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충남은 캐나다의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Inclusion of Marginalized People)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취업을 중요한 과제로 보며 교육과정에서도 니트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은 캐나다의 예스(Youth Employment Champions)와 같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충남은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청년들의 취업상담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여기는 단순히 공간운영과 취업프로그램의 연계일 뿐 수요자를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사례관리를 전담으로 수행하며 청년들을 조직화하는 전문가는 부재하다. 충남은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니트 청년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파편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니트

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종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독일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기반으로 니트 청년 직업교육과 고용기회를 연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독일은 사회법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과 고용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니트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민간 복지 전달체계, 일자리 센터, 고용센터, 관할 행정지구, 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충남 역시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과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독일 역시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니트 문제해결의 출발은 곧 학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직업훈련과 취업 관련한 교육을 활발히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학교만의 업무가 아닌 중앙부처인 독일 연방 고용청 산하 직업정보센터나 일자리 센터들이 학교에 협력하여 학생들의 취업교육과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대학입시만을 중점으로 두는 것에 경종을 주는 시사점이다. 또한, 니트 청년들은 성장 과정에서 학교에서 따돌림과 교우 관계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로 인해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니트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처럼 학교 사회복지와 사례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대학입시뿐만이 아닌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며 장기적으로 직업을 준비하는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 충남 니트 청년 전달체계의 방향 제언

충남 니트 청년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역할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의 니트 청년 전달체계는 자기효능감과 진로 탐색 능력 및 진로 비전 수립, 공동체 의식, 가족관계 등의 향상과 니트 비율 감소를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 외에도 니트 청년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 문제라는 점을 알려내면서 사회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니트 청년들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 멘토링, 진로적성검사, 직업체험, 진로박람회, 직업탐방, 진로캠프, 진로 동아리 등 대상자들의 욕구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진로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청년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꿈에 대해 탐색하며 스스로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니트 청년들은 개인적 심리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를 전제로 진로 이행에 대한 과업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본인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시간제 근로나 경과적 일자리보다 장기적인 꿈을 찾기 위한 직업훈련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촉진금 등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니트 청년의 동기부여, 구직활동 중인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이나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법, 조직문화 적응, 지역사회 내 기관들을 활용한 인턴십 프로그램, 니트 청년 특성에 맞는 취·창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니트 청년에 대한 발굴도 중요하지만 니트 청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체계화된 지원 프로그램 없이 발굴만 활성화한다면 진입된 니트 청년들의 성과는 낮아지고, 참여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의 실효성에 실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화에 대한 부담, 창업 단계별 지원, 평균치보다 장기적인 창업지원과 자금지원 등이 성립된다면 창업지원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과 창업 동아리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업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 경영 기초지식, 의사소통방법, 팀 빌딩 방법, 사업계획 작성법 등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니트 청년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청년의 직업훈련 차원에서 창업 활동을 촉진했던 지역 니트 청년 기관들이 창업에 성공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니트 청년의 연령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상의 구분은 동기부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대상, 진학·취업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대상, 창업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 이미 구직활동 중인 대상 등으로 조금 더 대상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니트 청년은 부모나 가족과의 회복이나 유대감을 키우기 위한 가족문화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는 가족집단치료, 부모 교육, 가족 캠프, 가족

여행, 부모 직업훈련 및 취·창업 서비스 등도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니트 청년은 부모와 가족 문제로 다양한 어려움이 복잡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개입 활동에 있어 제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을 유념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별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년 자조 모임, 정책제안활동,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등은 다음 니트 청년 지원모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니트 청년 충남 전달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할과 방향을 논했다면, 전달체계가 추구해야 할 실천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먼저, 니트 청년의 동기부여와 자립적 역량을 키우는데 목표를 두며, 개인 욕구에 따른 맞춤 서비스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는 사례관리형 모델이다. 여기서 상담, 프로그램 제공, 경제적 지원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들이 주된 사업이다. 특히,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니트 청년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적극 활용한다. 이런 방식은 운영기관의 미션, 리더십, 사업경험, 노력도에 따라 다양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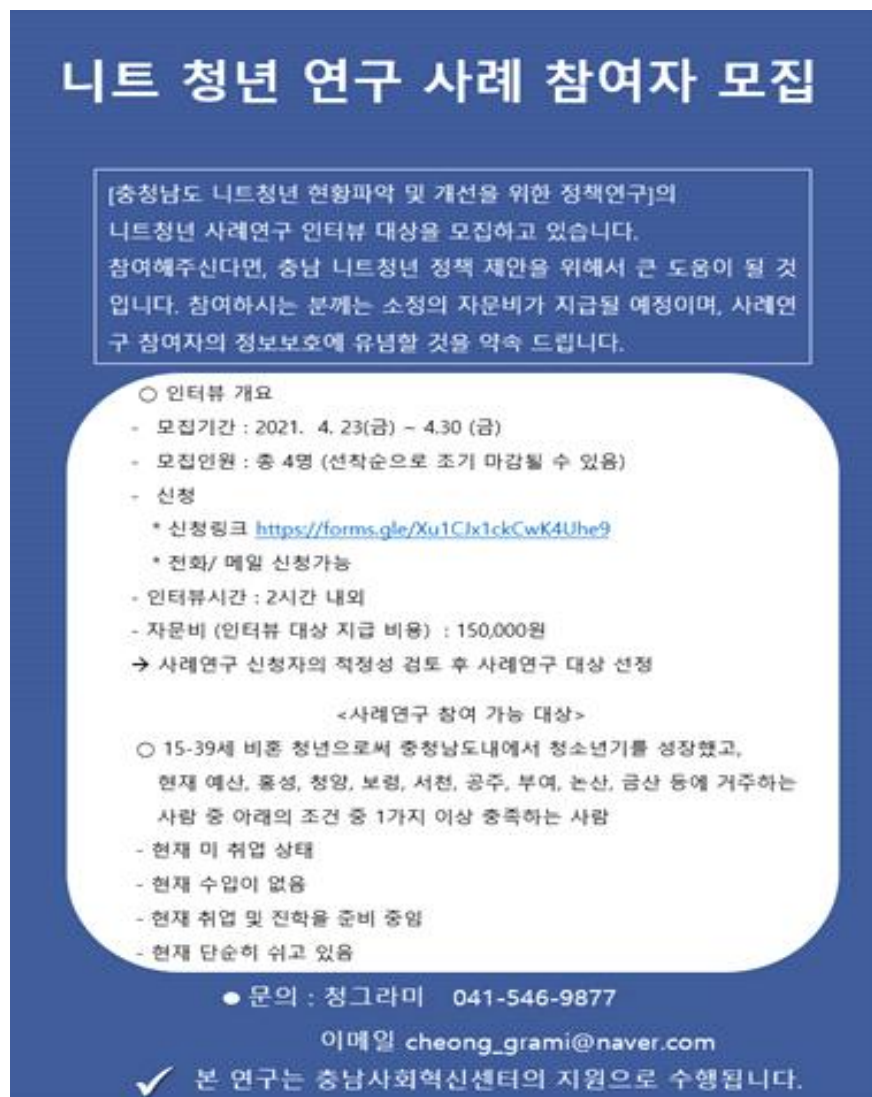
그다음, 개별 니트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 모델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는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다. 니트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고, 니트 청년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며 사례관리 대상들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둔다.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사업을 제공하기보다는 니트 청년 및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 네트워크 조직화, 지역사회 활동가 육성에 힘을 쏟는다.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주로 지역사회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의 발굴 및 교육, 니트 청년 및 주민자조모임 형성 및 촉진 등의 사업을 펼쳐갈 수 있다.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지역기관에서 활동가들이 사례발굴, 코칭 또는 멘토링을 통한 사례 모니터링 등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한 구성원으로 지역사회 조직화에 참여해 취약계층 청소년 및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니트 청년에 대한 옹호 활동 및 전문가의 개입 중심인 복지 운동형 모델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니트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선전 활동, 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촉구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연대를 통한 정보 및 자원교환, 공동사업 등을 진행하여 니트 청년을 위한 옹호 활동을 주로 진행한다. 지자체 중심의 민·관 협력 기구 혹은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주요 기관들의 사업에 대해 알리고 니트 청년의 권리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실천 개입을 위한 니트 청년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에 분포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니트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관련 이슈를 지역사회로 확장하고자 한다.

## IV. 충남 니트 청년 사례연구

### 1. 충남 니트 청년 사례연구 분석개요

니트 청년 사례연구를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행했다. 대면 만남을 꺼려하는 니트 청년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연구자와 피면접자의 상호작용이 수월한 일대일 심층 면접을 선택했다. 니트 청년 면접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인 모집 공고를 통해 면접대상을 확보했다.



**니트 청년 연구 사례 참여자 모집**

[충청남도 니트청년 현황파악 및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의  
니트청년 사례연구 인터뷰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신다면, 충남 니트청년 정책 제안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참여하시는 분께는 소정의 자문비가 지급될 예정이며, 사례연구  
구 참여자의 정보보호에 유념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인터뷰 개요

- 모집기간 : 2021. 4. 23(금) ~ 4.30 (금)
- 모집인원 : 총 4명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 \* 신청링크 <https://forms.gle/Xu1C1x1ckCwK4Uhe9>
  - \* 전화/ 메일 신청가능
- 인터뷰시간 : 2시간 내외
- 자문비 (인터뷰 대상 지급 비용) : 150,000원
- 사례연구 신청자의 적정성 검토 후 사례연구 대상 선정

◀사례연구 참여 가능 대상▶

○ 15-39세 비혼 청년으로써 충청남도내에서 청소년기를 성장했고,  
현재 예산, 홍성, 청양, 보령, 서천, 공주, 부여, 논산, 금산 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아래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사람

- 현재 미 취업 상태
- 현재 수입이 없음
- 현재 취업 및 전학을 준비 중임
- 현재 단순히 쉬고 있음

● 문의 : 청그라미 041-546-9877  
이메일 [cheong\\_grami@naver.com](mailto:cheong_grami@naver.com)

✓ 본 연구는 충남사회혁신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

[그림12] 니트 청년 사례연구 면접자 모집 공고문

[표 17] 은 니트 청년 사례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제시한 내용이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3명, 여성이 8명이며, 지역으로는 아산 3명, 천안 2명이고, 나머지 보령, 청양, 홍성, 당진, 공주, 태안에서 1명씩 참여했다. 사례연구 대상자들의 최저연령은 24세이며, 최고연령은 31세로 본 연구의 니트 청년 규정으로 정의된 연령대를 최대한 포함 시킬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유형으로는 실업형 니트 청년 3명,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4명,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 4명을 포함한 총 11명이 참여했다. 사례연구 참여자들의 최종학력은 고교자퇴, 고교졸업, 대학중퇴, 대학졸업, 대학원 졸업 등 다양했다. 구직을 포기한 상태인 휴식·돌봄형은 고등학교 자퇴, 고교졸업, 대학중퇴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사례연구 참여자의 신분 노출과 명칭에 대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사례 구분은 영문으로 제시하고 이름은 삭제하며 성만 명기했다.

유형	사례	이름	출생년도	성별	거주지	지역특성	학력
실업형	A	이**	1987	남	보령	농산어촌/충남 남부권	대학 졸업
	B	김**	1987	남	청양	농산어촌/충남 남부권	대학 졸업
	C	최**	1994	남	당진	도시/충남 북부권	대학 졸업
기회추구형	D	박**	1996	여	아산	도시/충남 북부권	대학 졸업
	E	윤**	1995	여	공주	도시/충남 남부권	대학원 졸업
	F	한**	1998	여	천안	농산어촌/충남 북부권	대학 휴학
	G	김**	1990	여	홍성	농산어촌/충남 남부권	대학 졸업
휴식·돌봄형	H	정**	1991	여	논산	도시/충남 남부권	고교 졸업
	I	강**	1995	여	천안	도시/충남 북부권	대학 중퇴
	J	김**	1991	여	아산	도시/충남 북부권	고교 자퇴
	K	김**	1991	여	아산	도시/충남 북부권	고교 졸업

[표 18] 니트 청년 사례연구 참여자 명단

## 2. 충남 닛트 청년 사례분석

### 1) 실업형 닛트 청년 유형

A사례는 현재 33세이며, 고향인 농어촌지역에서 부모님의 농업을 틈나는 대로 조력하며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중이다.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이수했고, 해외에서 유학과 직장생활 그리고 국내에서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B사례는 현재 34세이며, 대학원까지 학업을 마치고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왔다. 최근에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소년기관에서 일했으며, 작년 12월 실직 후 협동조합을 준비 중이다. C사례는 28세이며, 대학교 조교업무와 시민단체에서 인턴십을 경험했고, 유튜버로 직업적 비전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다.

#### ○ 성장과정

A사례는 성장과정에서 장거리 통학이 힘들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대체하고, 중학교 시절 EBS 장학퀴즈에 직접 참여했던 점들을 고려해볼 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 수 있다. 다만, 가정환경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성장과정을 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B사례는 기독교 집안으로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고 중학교 시절에는 충명했지만, 가정의 방임으로 고등학교 성적은 하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아버지의 강압적인 말들에 상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 C사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가 키워주셨고 소심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실업형 닛트 유형 사례 성장과정은 농촌과 소도시의 거주한 특징과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양육 없이 힘든 성장과정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심지어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통학하기 너무 안 좋았어요. 검정고시를 보고 학업을 빨리 마치려고 했어요. 농촌은 버스를 많이 줄이는 추세고 자가용들이 많아져서 버스가 많이 안 다녀요. 그래서 통학이 어려워 검정고시를 선택했어요.

▶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꽤 잘했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형보다 더 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험문제를 하나 틀린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잘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성적표를 보더니 ‘그럴 줄 알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공부도 흥미를 잃은 것 같아요.

▶ 중·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싫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혼을 안 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가족이 화목하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 엄마가 미용실을 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갔거든요. 엄마가 미용실에 나가면 형과 저는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놀지도 못하게 하니까 집에 그냥 앉아가지고 처박혀 있었어요.

▶ 어렸을 때 안 좋은 기억으로는 부모님이 싸우셔서 엄마가 집을 나가 찾으러 다닌 기억이요. 할머니가 우리 셋을 다 키우기 어렵다고 해서 막내 동생을 다른 곳에 입양 보냈던 거요.

## ○ 사회적 관계에서의 좌절

실업형 니트 청년 사례에서는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들인 만큼 직장상사들의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일관성 없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임의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느껴진다고 진술했다. 업무를 많이 부여받는데 비해 인원 충원이나 업무조정 등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말했다. 조직에서 신입직원을 성장시키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청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직이 수평적이기 보다 수직적 상하 관계로써 운영되는 체계가 힘들다고 표현했다. 즉, 일을 수행하는 실무자가 제시하는 의견보다 하향식 명령을 고수하는 방식에서 청년들은 가치관과 괴리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 일이 있었어요. 문서 처리할 때도 다르게 처리하고요. 금방 끝낼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내면 싫어했어요.

▶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그마한 규모로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청해 진행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를 되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외부에 있는 인력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 그러면 기관의 입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 점점 사소한 일들이 저한테 많이 넘어왔어요. 예를 들어 주간 회의록이라거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한테 넘어왔어요. 그런 거를 다 해도 자료만 제가 정리를 하는 거죠.

▶ 직장내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약간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장 내에서는 일방적으로 받는 위치이더라고요. 직장 내에서의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가 제가 경험했던 군대보다 더 뻑뻑한 것 같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거든요. 어차피 같은 일을 해야 하면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해요. 군대에서도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면 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는 변하고 세상은 바뀌는데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 저는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청소년 시설이면, 애들이랑 친화적이려면 젊은 직원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50세, 47세, 이러니까요. 저와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애들이랑 그게 되겠어요.



▶ 어이가 없죠. 혼자 다 해내긴 하는데, 이걸 나 혼자 다 하라고 하는 건가? 내가 이걸 못해야 인력보충이 되는 건가? 야근을 안 해야 하나? 인력보충을 받기 위해 무슨 수를 써야 하는 건지 계속 생각했어요.

○ 상호작용 (사회적 관계 좌절과의 상호작용)

조직 안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경직된 분위기는 청년당사자에게 상급자 또는 동료들과의 불화를 발생시키기도 했으며, 이러한 점을 견디지 못한 사례대상은 결국 불안장애를 일으켰고 병원치료를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와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해 문제 제기했지만, 조직에서 시스템의 변화가 없자 청년들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분노하고, 끊임없이 항의하며,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근거를 남겼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이에 더 이상의 문제 제기를 포기하고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실업형 니트 청년 역시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다. 심각한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청년들의 실직이 증가하고, 다시 이직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 제가 뭘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무처나 혁신성과관리원, 재무과 그쪽이었어요. 매년 평가를 하고 평가 후 규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안 하고, 서류도 안내서 마찰이 있었어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일은 빨리해 달라고 하고요. 제가 막내였는데 일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냥, 미련이 없었고, 그만두어야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그만두는 거니까.

▶ 어려운 점이 있으면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개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년 6월부터 그걸 느껴서 팀장님에게 얘기를 충분히 했고 메신저로도 했어요. 메신저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일부러 메신저로도 하고 행정 전화로도 여러번 조치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다 잘린 거죠. 위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그 전에 다 뭉게니까요. 정말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좀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 제가 인사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네~ 하거나, 응~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 거를 거의 세달을 겪으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다 알만큼 티 나게 그래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내 탓을 하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간 거였거든요. 그때 심장이 갑자기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어요. 새벽 2시~3시까지 잠을 못 자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때 진단서를 받았었는데 적응불안인가? 불안장애인가? 이런 걸로 써주더라고요.

▶ 코로나19 때문이죠.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을 많이 줄이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코로나19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미국계 회사는 조금 더 그래요.

## ○ 현재 상황

실업형 니트 청년들 대부분이 현재 삶에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활발하게 서류지원을 해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취업이 쉽지 않은 점에 안타까워했다. 아무래도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 밤에 활동을 많이 한 후 낮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반복되어 생활리듬이 밤 시간에 맞춰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삶의 문제는 불안으로 이어지고, 신경안정제와 불면증약을 복용하는 청년 사례도 있었다. 또한, 부모님과 가족들과의 소통이나 지지가 없고, 가족관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이 무시 받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에게 쉽게 독립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결혼이나 연애 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은 현재 청년들의 암울한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경제활동이나 수입이

없고, 미래의 직업적 전망이 불투명한 요인들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농촌 지역 특성상 부모님의 농사일을 간헐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 ▶ 서류는 올해 100회 정도 지원했고, 면접은 올해만 2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다섯 군데 정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 6시~8시 사이가 돼요. 어머니가 뭐 심으러 가자고 하면 심으러 가요. 직장 알아보는 것은 한 10시~11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때까지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 ▶ 생각하는 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생활 패턴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생활 패턴이 적응되니 계속 가더라고요. 바꾸려고 노력했는데도 이상하게 야간에 작업이 잘되어서 계속 그렇게 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아 새벽에 작업이 잘 돼요. 낮에 활동을 못 한다는 게 아쉬워요. 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 같아요.
- ▶ 현재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내 고집대로 예능 쪽으로 갔으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계속 들어 후회돼요. 그거를 계속 고집했으면 지금보다 잘 살지 않았을까 아쉬워요.
- ▶ 신경정신과가 아니고 뇌신경센터라고 해요. 네, 어쨌든 똑같은 거죠. 신경안정제와 불면증약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어보려고요.
- ▶ 아휴~ 연애 문제. 그런데 20~30대 남성들도 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 설마 집 해오라는 건 아니겠지. 어머니는 압박을 안 줘요. 상황이 그러니까 당연히 압박을 못 줘요. 요즘 이혼한 사람들 많은데 결혼하지마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 어머니와 가끔 싸우기는 해요.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 하지만 어쨌어요. 동생하고는 연락을 끊고 살아요.

▶ 부모님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이런 걸 하면 어떻겠습니까?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애가 돈 벌어서 망하려고 그러나 하느..... 100% 망한다는 식으로요. 밥 먹으면서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같이 있으면서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 ○ 본인 전망과 정책 제안

### ① 본인 전망

실업형 니트 청년들은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경직된 고용시장을 우려했으며 이 구직활동 기간을 활용해서 짬짬이 자격증 공부와 시험을 볼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취업이 아닌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는 니트 청년들도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자신이 미뤘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계획을 설명해주었다. 이들은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영상제작이나 카페 창업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진 지역에서 이러한 교육과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한계라고 말했다.

▶ 영상제작요. 여행 영상제작 쪽이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광고 영상 제작과 홍보물 제작요. 지금은 배우는 중이고 사업비로 장비를 구축하고 있고, 동아리(크루) 활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따로 있고요. 홈 트래블러요. 나는 여행을 할 테니 집에서 여행을 봐라 입니다. 당진을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태안 해안도로 제작을 하려고 해요.

▶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인 집에서 모여 아이디어 회의하고 방향성도 정하고 그다음에 메뉴 개발을 해요. 어제 메뉴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쿠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서로 먹어보고 맛이 좋아서 이거는 고정 메뉴로 가자.

레시피가 준비됐으니, 모양을 쿠키 틀로 만들어서 하자까지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군에서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작년을 그냥 허비했으니까 올해도  
허비하면 안 되니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끼리 돈 모아서 가게를 열자.

## ② 실업형 니트 청년 정책 제안

니트 청년들은 해외정책에서는 최저 임금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높은 최저 임금이 구직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현재 실업급여와 실적 중심의 교육이 아닌 니트 청년의 문제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공공 일자리 지원 포털은 회사의 개략적인 정보가 나와 있지만, 구직자가 가진 경력이 적합한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체에 지원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따라서 구직자의 경력에 적합한 회사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가상으로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직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에서 신입직원과 융화되는 조직문화와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에 관련된 교육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니트 청년들은 상급자나 동료의 적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따라서, 신입 청년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주의해야 할 언행이나 신입직원이 적응하는데 필요한 성장 매뉴얼이 제시된다면, 청년들이 새로운 직장에서도 적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교육비 지원, 멘토링, 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차별받지 않도록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노동법 지식, 부모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상담이나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면 니트 청년들이 니트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이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실업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많이 주거든요. 저 같은 사람. 각자 다르잖아요. 경험도 다르고요.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안 해주니 문제입니다

▶ 취업하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할 준비가 되어있어요. 그 기관에 맞는 자격증 취득을 할 거고,

그 기반의 방향성과 이런 걸 다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준비가 다 된 상태로 들어가는데, 정작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일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봐요. 내 밥그릇 뺏어 먹을 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데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직장 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열심히 일하려고 준비를 해서 들어왔는데, 의욕이 떨어지고 오히려 직장 내에서 자기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를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이런 직장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 사실 청년들 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도움을 어디를 통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될 수 있는 것도 대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여기 없네요. 그리고 교육 중에 경제에 대한 부분은 요즘 많이 교육하는데, 노동법에 대한 교육은 사실 많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 원데이클래스를 교육비로 해서 이런 게 정말 취미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고도화를 시켜서 자기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교육비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개인 상담은 또래들이랑 잘 지내고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아도 말 못 할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건데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이 상담교사와 상담 후 전학 갔는데, 가해자를 상담교사가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했대요. 그런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고,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있어야 해요. 사적 영역에서 그게 지켜져야 그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 2)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유형

D사례는 현재 26세이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준비 중이다. 대학에서 미디어와 방송영상을 복수 전공했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 10개월 정도 실무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 E사례는 현재 27세이며, 공공의 심리상담 직종에 시험을 준비 중이다.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사회에서는 심리상담 관련한 상담을 해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F사례는 현재 23세이며,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휴학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과 시각디자인을 전공했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고충과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G사례는 현재 32살이며, 수도권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최근 4년 전에 농촌 지역으로 귀촌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 살고 있다. 서울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일했고, 지역에서도 마을 커뮤니티 활동을 다채롭게 하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있다.

### ○ 성장과정

D사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를 안쓰러워하고, 어려서부터 동생을 보살펴왔던 성장기를 거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큰 것으로 진술했다. 반면 아버지와 반대성향으로 활동적인 어머니에게는 무의식적인 반감이 생겼고, 아버지와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E사례는 기독교 집안의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며, 자기검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자책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F사례는 성장과정에서 어머니의 엄격한 태도에 영향을 받았고,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며, 이는 부모님의 인정욕구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인정요구는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했을 때, 부모님이나 주위에 말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G사례는 학창시절 총명했고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이었다. 다만, 성장기 본인의 자유분방함과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 진짜 엄마랑 소리 지르면서 싸운 적이 있어요.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엄마 왜 그렇게 사냐고 말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너는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 냐고 얘기했어요. 말을 좀 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인데 항상 아빠에 대한 걱정이 컸다고 했잖아요. 엄마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하잖아요. 가끔인데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 우리를 위해 아빠가 이렇게 큰 희생을 하는 것을 그때 점차 느끼게 되었고, 걱정을 덜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가서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결코 큰 부자가 되지 못해도 아빠는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커요. 지금도 그래요. 가끔 이야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을 신경 쓰게 한 걸 아빠는 마음 아파하세요.

▶ 혼나서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잘못된 걸 어떻게 엄마가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가게에 있고 저는 집에 있었는데 ‘너 지금 엄마 집에 가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면 불안한 거죠. 엉덩이 맞아야 하는데..... 저의 때는 효자손이었어요. 초등학교 전에는 파리채로 발바닥을 맞았고, 초등학교 가서부터는 중학교 1.2학년 때까지 벽 잡고 엉덩이 때리시고요.

▶ 유치원 선생님이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훌륭하다고 대답했어요. 선생님께서 훌륭하다는 단어를 썼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저녁 할 때 달걀 한판을 세면서 숫자를 맞추면, 엄마가 칭찬하던 일이 기억나요.

▶ 학교 성적이 1등,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자는데 성적이 잘 나오니 선생님들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안 듣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 저도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초·중·고를 같이 다닌 한 친구와 성적을 다투는 사이가 됐어요. 친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질투심, 경쟁심이 세졌어요.



## ○ 사회적 관계와의 좌절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사례들은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쉽지 않다고 진술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수없이 지원했지만, 계속 탈락했고, 그때마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니트 청년들이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경쟁률이 높은줄 알면서도,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니트 청년 당사자의 부모님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니트 청년 부모님들은 안정적이고, 타인의 시선에 그럴듯해 보이는 직장에 취업하기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니트 청년 오늘의 문제만이 아닌 성장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높은 기대수준과 과도한 요구를 해온 것의 연장선상에 일부로 볼 수 있었다. 니트 청년들은 평생동안 부모님들이 엄격한 요구를 할 때마다 큰 압박감을 받으며, 부모님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쉽게 빠져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직장의 취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활동을 해봤고, 그때마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경과적 일자리에서는 낮은 급여, 작은 고용 규모, 관리시스템 미비 등 대부분 열악한 환경이었다. 매뉴얼 없이 업무를 부여하며, 권한 없이 책임만을 요구했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은 말할 것 없고, 휴가 체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조직의 리더십들에게 무언가 상담하고 요구했을 때 수용되거나, 합리적 답변을 받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최소화하는 태도에 청년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직장에서도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갖기 어렵고, 상처만 커지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최근 농촌 커뮤니티 활동도 비슷했다. 농촌 지역의 주민과 활동가들은 청년들에 대한 기대 수준은 높지만 정작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본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은 귀농, 귀촌이나 로컬 크리에이터로 청년을 유입하는 정책을 펼쳐가고 있지만, 기울어진 의사 소통구조와 경직된 문화에서 어떻게 버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 아무래도 부모님도 안정적인 걸 원하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보니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뭔가 부딪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화예술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안정성이 있는 문화재단 같은 공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졸업하고 나서는 문화재단에 열 곳 정도 지원했던 것 같아요, 서류도 탈락하고 면접도 가고 했었는데, 최종 서울·수도권하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안 되면 다른 곳 찾아보자 하고 00문화재단에 공고를 넣었는데, 최종면접까지 갔어요. 당시 졸업도 안 했을 때였어요. 제 앞에서 ‘경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인턴 같은 경력도 없어서요.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

▶ 부모님께서도 안정적인 데를 원하셔서 강요하진 않으셨지만, 은연중에 계속 내비치셨어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그러셨는데 편하게 공공기관이나 문화재단에 가서 집도 가깝게 편하게 다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엄마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물론 엄마는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시려고 하지만,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넣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뭘 해 온 거야? 라면서 교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내가 돈 내고 배우러 왔지, 발표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모르니까 여기에 왔지. 그 수업이 제일 힘들었고, 나는 이렇게 힘든 데 다른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해내는 것을 보았을 때 박탈감도 느껴지고 비교도 하고 나는 왜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 각자 수업 이외에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거나, 공부내용을 이야기할 때, 한 문장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나는 엄청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 유학과나 서울권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해석할 때 좌절했어요.

▶ 포스기 사용이 미숙하거나 물품 정리하는 것을 어려워할 때 사장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하셨던 거요. 또 계산대에 손님들이 밀리면 나를 밀치고 사장님이 대신 계산을 했어요. 돈을 받으면 받는 만큼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계산하는 건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아르바이트가 마트였는데, 사회생활의 쓴맛을 봤어요. 제가 처음이라 눈치가 없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물품을 넣어야 하는 곳에 왜 안 넣고 다른 곳에 넣었냐며 엄청 화내고 박스를 제게 던졌어요. 제가 어려서 만만하게 보셨던 거 같아요. 무섭고 가슴이 떨렸어요. 그날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아빠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 힘듦이 매번 비슷했는데 누구도 정확히 코멘트 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수도 없으니 혼자 아등바등했어요. 맨 처음에는 사회 경험이 처음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년이 지나고, 약간 기억에 남는 게 대표님과 1:1로 나누면서 힘든 점을 이야기했더니 대표님이 뜬금없이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하라고 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기억이 나요. 좀 안타까웠던 건, 사람을 키울 생각이 없고,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 휴가 체계가 없었어요.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휴가 내면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미리 선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기억이 안 나서 당일에 왜 안 나오냐고 한다거나, 또 저녁이고 밤이고 연락해서 일부러 안 받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아요. 청년들에 대한 기대도 높고 바라는 모습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마을에서 일할 때, 제가 원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없었고, 마을에서 필요한 일이야, 네가 해야 해. 이주민의 1세대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것에 요즘 관심 있다고 마을과 무관한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알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수역할을 하는 분은 그런 거에 관심 있으면 여기와 점점 멀어질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 ▶ 있을 때는 편안하고 일과도 연결되어 배울 점도 있었는데 벗어나니 거기 폐쇄성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하는 세미나, 활동, 회식도 마을주민과 연결되기보다는 그들끼리 하고 있거든요. 정보가 공유가 안 돼요.

#### ○ 사회적 관계 좌절과의 상호작용

니트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성공하기 쉽지 않은 커리어에 도전하는 모험을 선택하고 있었다.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취업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부모님과 타인의 시선에 맞춰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채용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하지만, 과정 자체를 즐기며, 몰입도 높게 진행되기보다는 당사자가 힘겹게 꾸역꾸역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농촌 커뮤니티의 청년은 일정 정도 급여를 받는 활동가를 포기하고, 잠시 다른 일을 찾아보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다만, 마을에서 소속감이 떨어지고, 선배 활동가들과 멀어지는 것에 감수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며 새로운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청년도 있었다.

- ▶ 당시에는 돈보다는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게 있었어요. 다른 곳에서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손절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보니 경력부터 쌓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입사를 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공문서를 쓰는 법이라든지, 일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역량을 갖췄어요. 그러고 나서 퇴사를 결심한 것도 업무 때문에 결정한 게 있는데 사실 앞으로 저의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 ▶ 제 단점은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 의견을 말 못 했어요. 제가 하기 힘든 일에도 그냥 맡아서 하다 보니 온갖 스트레스는 저에게만 오고요. 제가 일을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걸 알아주지 않잖아요. 알아주지 않으니 업무에 대한 것도 컸어요. 업무에 대한 것 말고

도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이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이니 직원으로도 생각하지만, 딸처럼 생각하다 보니 저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왜 남자친구가 없느냐? 그래서 소개팅을 잡아주시기도 했어요. 소개팅 이야기를 6개월 동안 들었어요.

▶ 1차에서 탈락을 하는 편인데, 뽑는 사람도 적지만 생각보다 지원자도 적어요. 작년에 한 번 시도했는데 마지막,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 원래는 조금 더 00조직 안에 소속되어 있어 지지망이 두터운 느낌이었어요. 거기 소속되어 있고 마을에도 소속되어 있어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를 나오고 000선생님과도 나쁘게 끝난 건 아니지만 일이 안 겹치니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다는 지지망이 덜해진 거 같아요.

## ○ 현재 상황

높은 진로목표를 정하고, 매진하는 청년들의 생활과 심정은 그리 밝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했다. 공부하고 있지만, 앞으로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스케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물론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숙식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활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었다. 자신의 진로목표가 막연하고, 이 직업이 나에게 적합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내내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었다. 어떤 사례 대상에게 왜 이 직종시험에 응시하냐고 질문했을 때, 그냥 남들의 시선에서 괜찮을 것 같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깊은 탐구의 결과를 토대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공공기관 선택에 후회한다고 말했다. 한 정적이고,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다면, 다른 분야를 선택했을텐데, 이제 와 자신의 진로 계획을 수정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려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에서 막막한 심정을 내비치는 청년도 있었다.

이들이 가장 힘든 것은 부모님의 따가운 눈총일 수 있었다. 물론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이따금씩 진로에 대한 압박 발언은 청년들의 자존감이나 굳은 도전 의지를 흔드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런 시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약간의 휴식에도 자신을 게으르게 평가하며, 이를 자책하는 사례도 있었다.

▶ 하면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내가 이 시간을 들여 공부하지만, 그 사람이 안 물어보면 그만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불안감도 있고,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니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하는 게 어려웠어요.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명목이 있지만 남이 보면 무직 상태이니 가족들이 친척들에게 말하는 게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찢렸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 제가 최근에 쉬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요즘 슬럼프고, 고민거리였어요.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꿈도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던 편이고, 하고 싶은 분야도 확실했고, 이 일도 해보고 싶고, 저 일도 해보고 싶은데 진짜 최근에 든 생각인데 결국에 뭐가 되고 싶은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것을 목적, 목표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뭐가 되어야지 직업적인 게 없는 느낌? 이게 쉬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긴 한데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 퇴사하면서 당연히 나는 방송국에 입사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퇴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쉬다 보니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나태해지고 정신도 헤이해지고 그랬던 게 큰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변에서 공기업에 가라는 말을 많이 들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도 안정적인 데를 원하셔서 강요하진 않으셨지만, 은연중에 계속 내비치셨어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그러셨는데 편하게 공공기관이나 문화재단에 가서 집도 가깝게 편하게 다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듣는 척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들려오니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어디 사설 기관 이름이 000이라고 하면, 저 요즘 000 다녀요. 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 000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00국공립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 요즘 들어 후회해요. 이제 진짜 밥벌이를 할 때가 왔는데, 내가 애초에 잘 못 왔구나. 공대나 갈걸. 그러면 이렇게 길이 한정적이지 않을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심리상담 분야가 안정적이지 못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 분야가 항상 몇 년째 유망직종이거든요. 어디 사설센터에 가면 취직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국가에서 하는 국·공립기관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 래야지 떳떳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무기력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어두컴컴한 느낌이라 잠을 많이 자는 거 같아요. 저는 공부나 운동을 해서 자기관리가 될 때는 괜찮아요. ‘자존감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온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름에는 활동을 잘해서 괜찮은데 겨울에는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자책을 하고 우울해지는 거 같아요. 한번 무기력하면 계속 반복되어요. 게으른 나에 대한 자책을 계속해요. 일어나서 노력할 수 있는데 누워만 있고 그런 거요. 좋은 곳에 취업하려면 능력을 갖추기 위해 졸업 전에 자격증도 따야 하는데 알면서도 안 하네요.

▶ 집주인을 만났는데 당황스러웠어요. 불친절하고 갑질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버리라고요, 그전에 살던 사람들이 놓고 간 쓰레기를 우리보고 치우라고 하고 창호 문을 우리가 쓰는 곳만 수리했는데 다른 곳도 다 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정주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내려온 거였고 이장님과 건축사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에게 얘기하는 뉘앙스가 불편했어요. 분에 차서 눈물이 났어요.

## ○ 본인 전망과 정책 제안

### ① 본인 전망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신의 꿈을 위해 힘들더라도 인내하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에 관련된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탐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덧붙였다. 또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목표를 정하고,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알아보며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국사, 컴퓨터 활용, 사진, 영어, 어학연수 등의 많은 자격증과 스펙이 요구된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장래취업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압박감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부합하는지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준비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들이었다. 농촌 커뮤니티 지역 청년은 현재 농촌 지역의 직업 선택의 폭 자체가 협소하고, 급여 자체가 낮아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천천히 진로를 탐색하겠다는 의견도 주었다. 이는 자신의 비전과 부합한 직장을 찾으려면 바로 취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되지만, 농촌 지역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 방송국 쪽은 그쪽 분야의 채용공고가 올라오는 미디어잡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나 00홈페이지라고 해서 거기도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직장 채용공고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채용공고를 보는 것 같아요.

▶ 청년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집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문화기획자라고 하는데, 00상상마당에서 문화기획자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00에서 진행하는 00유니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데 거기서 일하는 매니저님을 보고 그 일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공기업 관련된 곳만 알아봐서 00상상마당에서 일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해야 할 거 같아요.



▶ 한국사 1급 자격취득을 했고,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 합격 후 실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 뒤 NCS 준비도 하려고요. 사진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할 거 같아요. 카메라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얼마나 다녀야 하는지 기간은 잘 모르겠어요. 영어 학원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비요. 만약 돈이 아주 많다면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요. 엄마 말대로 될 거 같아요.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위라벨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을 거 같아요.

▶ 농촌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일의 내용이 한정적이거든요. 사는 곳은 먼 단위인데 읍내에서 상관없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일하려면 또 다 그런 일인 거예요. 최근에 일자리 제안을 받았는데 200만원 받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받는 그런 일이에요. 저는 지금 상황이 경제적으로 불안감이 들어 일해야 하나 생각이 들다가 올해는 일자리 구해보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그러고 있어요. 계속 반복될 거 같은 게 커요.

## ② 기회추구형 니트 청년 정책 제안

니트 청년들은 현재 자신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실제 회사의 생활을 들어보거나 체험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실제 회사의 직무, 시스템, 문화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둘째, 취업과 창업 관련한 멘토링이다. 예를 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분석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술하는 방식 그리고 면접을 시뮬레이션 하는, 취업 멘토링이 제공된다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었다. 멘토링은 자격증 취득, 진로 탐색, 취업희망직종, 인재상, 직무 기술 등뿐만이 아니라 공부법 및 학습 플랜과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재 지원받는 교육비가 너무 제한적이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보통 교육비 자체를 청년이 알아서 설계해서 수강하기보다 공모사업 자체에서 자격증과 기술 등으로 범주를 제한해서 제시함으로 실제 자신의 희망 분야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희망분야를 확대하거나, 청년 자체가 교육비의 주제와 운영을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장기간 취업 준비에서 오는 슬럼프를 극복하거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 동아리와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지역의 청년 문화 활동에 참여했는데, 취업 준비 기간에 기분도 많이 전환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또래 청년들을 만난다면,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동질성에 공감하고, 심리적으로 유대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경쟁이 치열한 직장이나 기업의 취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협동조합 등 대안적인 활동의 창업이나 취업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어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개인이 공유해주지 않으면 취업 후기 등의 정보를 알 수가 없고,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갖춰야 하는 역량, 경험, 경력 등이 막막해요. 취업하고 나서 그때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힘들고, 일과 병행하면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또, 가능하다면 맛보기 실무 경험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직무는 같지만, 회사마다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맛보기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처음 취직 준비를 할 때 너무 막막해서 인터넷 서치를 했는데, 00에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취업 멘토링 하는 게 있어서 신청했어요. 멘토 선생님께 취업 상담도 받고 자소서 첨삭도 받고 면접 과정도 지도받았어요. 수업에 자소서를 일주일 정도 썼는데 첨삭하면서 그런 걸 많이 해주셨어요. 기업분석을 많이 해주셔서, 내가 이 기관에 가려면 이 기관의 어떠한 역량을 강조해서 적어야 한다, 같은 것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조언해 주서

서 그렇게 자소서 쓰는 방법을 익혔고, 실제로 면접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 자격증 같은 것도 비용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이 우선이고, 생각보다 어학 같은 것도 교육비가 필요해요. 한번 볼 때 5만원, 7만원, 8만원 이래서 이것도 큰 부담이 돼요. 사실 취업 준비할 때 고용 노동 보험센터에 들어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신청하러 갔었는데 사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제과·제빵 관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 친구들끼리 우리 그래도 이렇게 쉬면서 언제 이렇게 다시 자주 만날지 모르는데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00학교를 소개받았고, 이 프로그램에서 매주 만나 이것저것 만들고, 만들면서 재미있었어요. 지역 청년들이랑 만나면서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경험이지 않았나 해요.

▶ 제가 경험한 거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건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돈을 잘 버는 곳은 못 봤거든요. 나름의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잘하는 곳들의 사례를 들어보고 싶어요.

▶ 강의는 일방적인 거라면, 최근에 제가 지방에 사는 사람들, 지방에서 뭔가를 일 벌여보려는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에서 멘토 비슷한 사람 10명을 꾸렸는데 예를 들면 제주, 해녀의 부업에 계신 분이 지역의 무언가를 가지고 자기 일로 무언가를 만든 건데, 그런 프로그램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가비가 있어 선뜻 지원하지는 못했어요. 지역에서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상상하는 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멘토링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정도예요.

### 3)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 유형

H사례는 현재 30세이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으며, 1년 정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줄곧 무직 상태이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조손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양육 받지 못했다. I사례는 27세이며, 대학교 중퇴 후, 단기 아르바이트 외에 뚜렷한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 3년의 결혼 생활 후 이혼했으며 6살 된 자녀가 있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를 키워주고 있다. J사례는 현재 31세이며,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사회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청소년기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상담 기관에서 정기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 K사례는 현재 30세이며, 학창시절부터 친구 없이 홀로 지내며 사회적 단절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 ○ 성장과정

H사례는 4세 때 모친을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소년기에 할머니가 양육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재혼가정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양육받지 못한 것으로 말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H 얼굴에 낙서해서 학교로 할머니가 왔지만, 잘못된 친구들이 아닌 H를 혼냈던 할머니에 대한 서운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가 옹호해주지 않으면서 자책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볼 때 부모의 부재 속에서 할머니에게조차 안정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알 수 있다.

I사례는 어머니에게 받은 욕설과 폭력으로 인해 매우 힘들었던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 때까지 폭력은 이어졌으며, 일주일에 1~2번씩이라고 표현할 만큼, 빈번한 일이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는 I가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학창시절에 친구가 별로 없었고, 집단따돌림의 경험까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H사례 역시 학창시절 친구에게 괴롭힘을 받으며, 친구 없이 홀로 지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특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포자기 하는 것은 H가 얼마나 큰 고립감을 갖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J사례는 중학교 시절부터 따돌림과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았다. 학교에서 계속된 문제는 결국 우울증으로 심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J는 아버지가 본인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했던 말들에 상처가 깊다고 말했다.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와는 관계가 좋았지만, 아버지에게 많은 불만과 원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버지에게 대한 불신은 학교에서의 폭력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K사례는 기독교 집안에서 특별히 문제 있는 양육방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는 위낙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학창시절 집단따돌림에서 상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의 따돌림 상황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개선이 없었고, 이에 대해 K는 부모님에게 심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엄마는 제가 4살, 동생이 둘 무렵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재혼가정이었어요. 재혼한 할아버지 손주들이 공부를 잘해서 저와 남동생을 비교했어요. 남동생과 제가 공부 못한다고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중요시하는 틀에 맞춰야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했어요.

▶ 초등학교 들어가면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제 얼굴에 낙서한 일로 할머니가 학교로 불러왔어요. 할머니가 제가 잘못했으니 친구들이 얼굴에 낙서했다며 저에게 뭐라 하셨어요. 좋았던 기억보다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아요. 그때 할머니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슬펐고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못된 사람인가? 자책하게 되었어요.

▶ 국어는 시험을 잘 봤는데 친구들이 커닝했다고 그랬어요. 커닝했다고 하니까 억울했어요. 또 누구를 좋아한다고 했을 뿐인데 남자에 한 명이 머리 잡고 때렸어요. 선생님이 계셔서 자주 그러지는 못하고 선생님 없을 때 그랬어요. 선생님, 부모님이 다 거기서 거기고, 도움을 요청해봤자 그때뿐이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 욕해요. 내가 별어서 사! 이 00년아 이런 식으로요. 이것보다 더해요. 그냥 욕하세요. 그냥 뭐 이상한 말이라서 모르겠어요. 이상한 욕을 하세요. 중·고등학생 때는 발로 차거나 머리채 잡고, 일주일에 1~2번씩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세요. 별거 아닌 일인데, 방 청소 안 하거나 설거지 안 하면요. 고등학생 때까지 맞았고, 최근에 때리시면 제가 제압하죠.

▶ 중학교 때도 친구가 별로 없었고, 고등학생 때는 조금 바뀌자 해서 놀긴 놀았는데 여자애들 사이에서 왕따시키는 게 유행 같은 거라서 그때도 왕따당했고, 대학교 때는 아예 없었어요. 그냥 뒤에서 놀지 말자고 이야기한 다음에 서서히 그냥 자기네들끼리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에도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있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 공부 못한다고, 다니고 싶지 않은 학원 억지로 다녔어요. 어느 날 앓혀놓고 수학을 시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혼내고 매번 인상 찌푸리고, 인상이 안 좋았어요. 아빠는 손찌검은 안 해요. 아빠가 마음이 약해서, 근데 고함을 잘 지르세요. 지금은 더 심하세요.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좋은 일이 없었거든요. 딱히요.

▶ 유독 뭔가 아빠가 화도 안 내고 고함도 안 지르고 아빠가 기분 좋아 보일 때, 제가 더 기분이 좋아요. 아빠가 괜찮아 보이고 화도 안 나 있고 말투도 다정해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인데 기분 좋은 날 있잖아요. 아빠도 사람인데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기분이 들뜨고 좋아요. 그런데 티를 안 내요. 제가 티를 잘 안 내거든요.

▶ 엄마가 첫날에 싸준 삼각 김밥을 먹고 있었는데, 너 왜 우울증이라고 거짓말했냐며 단순한 사춘기라면서 애들 모여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했어요. 강당에서 애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어요. 엄마가 이미 그 아줌마에게 그렇게 말해놓은 상태고 아줌마는 000이 우울증 아니고 단순한 사춘기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그게 전해지고 전해져서 거짓말한 거라며 애들에게 돌아가면서 맞고, 남아서 또 맞았어요. 애들이 때리는 걸 즐기더라고요.

## ○ 사회적 관계에서의 좌절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치료를 경험했으며, 사회에서의 첫 직장은 물론이고 대학에서조차 적응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학과 직장생활에서 적응이 어려웠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청년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마찰에 취약했고, 사회적 관계와 단절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 예를 들어 I사례의 경우 대학 자퇴 후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했지만, 바로 3년 후 남편의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학 자퇴, 혼전임신, 결혼, 이혼 등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깊은 심사숙고와 장기적 계획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을 하며, 후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결국,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들은 갈수록 심리적인 문제들이 악화되었다. 중학교 시절에 우울증이 심해지고, 학교에서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돌봄형 니트 청년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본인이 제어가 안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에서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친구들과의 왕따 문제가 더욱 심해졌지만, 부모님의 별다른 개입이 없자 마음의 문을 닫고, 타인과의 소통의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기도 했다. 이 시기의 이른 사회적 단절은 일반적인 정서 교감부터 자존감과 성취감이 낮아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니트 청년들은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기 관심 분야 정도에서만 반응을 보이는 낮은 단계의 소통 방식에 머무르고 있었다.

▶ 20살 때 미쳐서 죽겠다 싶어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교회 근처라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까 봐 그만두었어요. 병원을 꾸준히 잘 다녔으면 빨리 좋아져 취업하지 않았을까? 내게도 끈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 트라우마가 있어요. 26살에 요양병원에서 일했는데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안 좋아하고 웬만큼 아파도 병원에 안 가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니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었는데 일하는 곳에서는 막내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일을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

어요. 또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우겨서 제가 손해 봤어요. 병원에 ㅂ자만 봐도 지긋지긋해서 병원에 안 가요. 아프면 집에 있는 상비약 먹으며 버텨요.

▶ 40~50대 환자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싫어했어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니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어요. 저는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해서 싫은 내색은 못 했어요. 제가 느리고 환경에 적응을 못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기가 맞다 우기고 병원 규칙이 바뀌었는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 생명과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때 어떤 남자애랑 썸 타고 있었는데, 남자애가 이상한 헛소문을 내고 다녀서, 선배들이 불러서 욕하고, 남자한테 꼬리치기 말라며 더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여자 선배가 그래서, 휴학했던 것 같아요.

▶ 어느 날 남편이 주말 부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면서 싸웠는데 1년을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충북에 있는 회사 기숙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 중2 때 많이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이라고 나왔어요. 처음 간 병원은 이상했어요. 그냥 단순한 사춘기라고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라며 넘기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 우울증이 더 심해졌어요. 분노 조절을 못 하고 학교에서 사고 치고 툭하면 학교 나가버리니, 학교에서 제가 그만두길 바랐어요. 학교에서 자살 시도도 했어요. 애들 앞에서 칼로 자해하려고 했어요. 자극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 ○ 사회적 관계 좌절과의 상호작용

청년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 예를 들어, I사례는 현재 우울증, 조울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술이 없으면 잘 수 없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이었다. H사례는 대면하는 일에 자신 없어지고 자신만 적응 못 하는 건가 자책하며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어려웠고,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I사례의 경우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자신의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아이와 따로 사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은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 못한 채 살아가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들은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고자 사람들과의 관계나 학습이 아닌 온라인 소셜, 게임, 영상 등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콘텐츠 과몰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또한, 니트 청년들이 니트화 되는 과정에서 부모와 가족 외에 학교나 사회복지 기관에 연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보호와 사례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이들의 니트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사료된다.

▶ 사람들을 대면하는 일을 못 하는데, 하다 보니 날이 가면 갈수록 숨이 막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오래 하는데, 나만 적응 못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다닐까? 생각했지만 위에서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도 힘들고,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 싶어 나왔어요.

▶ 결혼하고 23살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그때는 아기 낳고 산후 우울증약 먹었고, 이혼하고 나서는 알코올 중독이랑 조울증약도 먹어요. 약은 자기 전 저녁에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약은 술 생각이 안 나게 해주는 그런 약이래요.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맥주 하나 먹으면 그때는 맥주 20~30병 마시고, 소주도 5병 마셨거든요. 약 먹으면서 많이 즐겼어요. 외롭고, 술 마실 때만 현실 세계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술을 못 끊겠더라고요.

▶ 슬펐는데, 전 남편이 아예 아기를 안 보러 오거든요. 내가 무슨 제 씨받이도 아니고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감정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저도 그게 조금 없어졌어요. 아기가 울면, 네 아빠가 널 보러 오지도

않는데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넌 왜 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가셨어요. 돈을 벌어서 좋은데 이사 갔을 때 아기 데리고 가라고요. 그때부터 엄마가 아기를 맡아 주고 계세요.

▶ 집에만 있었어요. 미드를 그때 처음 봤어요. 어찌다가 패션을 좋아해서 그쪽으로 끌려서 패션쇼를 많이 봤어요. 많이 꾸미기도 하고, 외모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병처럼 찾아왔어요. 외모 집착증이 생기면서,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기분이 확 다운되었어요. 코, 눈, 입을 세세하게 보면서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난리가 났어요. 이상한 거에 집착했어요.

## ○ 현재 상황

현재 니트 청년들은 삶의 위기 속에서 절망과 불안을 안고 살고 있었다. 니트 청년들은 심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관계의 고립 속에서 부모님에게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니트 청년들은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상황을 말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 부모님들은 지속적으로 니트 청년들이 취업이나 진로를 통해서 독립 또는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적성에 부합한 진로보다 이상적인 진로를 선택하며, 계속 성취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압박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장기간 투자하기보다 공장, 택배, 배달, 카페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했고, 때로는 술집에서 일했다는 경험도 진술했다. 이러한 실직 상황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관하는데 작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일반적으로 정서 교감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게 쉽지 않고, 자기 관심 분야 정도에서만 반응을 보이는 낮은 단계의 소통 방식에 머무르는 것은 인상적이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고, 막막하기만 하다는 니트 청년의 말이 현재 이들의 심정을 잘 반영하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아빠가 빨리 취업하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뽑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여기저기 아프셔서 빨리 취업해서 일해야 하는데,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간호조무사는 빨리 취업할 수 있다고 해서 취득했어요. 그 외에도 캘리 그라피를 인터넷으로 배웠어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그쪽으로도 하고 싶기도 한데,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없을 거 같아요. 돈이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느냐? 갈등 돼요.

▶ 21살 이후부터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공장, 그런데 하루 가서 일당 받거나, 쿠팡 그런 거나 설거지, 일당제로 하는 거였어요. 서빙도 해보고요. 카페는 아니요. 술집에서도 해보고요. 친구들이 다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되거나 취업을 잘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나는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못 하는 것 같아요.

▶ 네. 약 먹고 있어요. 약을 끊어 보려고 안 먹고 잤는데 다음 날 힘들고, 어지럼증, 식은땀이 났어요. 잠이 들었는데 깨는 순간까지 정신없이 꿈만 계속 꾸고, 깨면 꿈이네 하고 다시 잠들면 내용이 다시 이어져요. 잠을 오래 잤는데 꿈 밖에 생각이 안 나요.

▶ 우울증약과 수면제요. 약을 좀 많이 먹어요. 그걸 하루아침에 끊는다고 안 먹었더니, 다음 날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는 무모한 짓 안 하려구요.

▶ 보지는 않았는데 별로 끌리지 않아서요. 저 사실 드라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스캠 프랑스는 어찌다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영드나 스킨스라는 것도 10대들 나오는 드라마인데, 영드는 스킨스 본 게 다고, 미드도 몇 개 봤어요. 그냥 드라마 볼 봐야 영화 보는 게 나아요. 저는 드라마랑 안 맞아요.

▶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로맨스 판타지 같은 거 보는데. 그냥 거의 여자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남자들과의 로맨스죠.

## ○ 본인 전망과 정책 제안

### ① 본인 전망

니트 청년들은 현재 막막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진일보시키기 위한 꿈은 잃지 않고 있었다. 일상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적게나마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H사례는 교회 목사님께 기타를 배우면서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지만, 주위에서 손을 내민다면 연결고리가 되어 소통이 이어져 관계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학과 진로 그리고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인 원조가 장기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I사례의 경우 주거 문제, 자녀 양육문제, 소득 등 다양한 문제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이 때문에 자신이 쉽게 도전하지 못 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 안 그래도 힘든데 주변에서 자꾸 그러니 더 힘들었어요. 목사님께 기타를 잠깐 배우면서 그나마 사람 좀 만나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좀 괜찮아졌어요.

▶ 다 그냥 바뀌고 싶어요. 살도 빼고 싶고, 공부도 돈 걱정 안 하고 해보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대학교도 다시 다니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시간도 안 되고 돈 걱정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바꾸고 싶어요. 생각하면 늦은 건 아닌데 계속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못 바뀌는 것 같아요.

▶ 아기를 초등학생 되면 제가 다시 키워야 하는데, 이제 1년 좀 남았나? 그때까지 저도 안정적으로 집도 사놔야 할 것 같고, 여윌돈도 모아야 하는데, 제 꿈만 생각하면 뭔가 다 안되니까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 ②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 정책 제안

휴식·돌봄형 니트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증, 수면장애,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과 관련한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원하고 있었다. 대부분 정신과 병원에서 약물치료는 받고 있지만, 심층적인 심리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니트 청년들은 심리 정서가 안정되어야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자기인식이 명확했다. 따라서 이들의 각 증상에 맞춘 적합한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는다면, 심리 회복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 교육, 직업체험, 직업탐방, 자조모임 등 집단적인 방식이나 낯선 환경 안에서의 활동은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공유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니트 청년들에게 온라인 방식(비대면) 참여 의사를 질문했을 때,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던 것이 이에 대한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인턴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는 그냥 하루 하는데, 안정적이면 하는데 안정적이지 않다면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럼 도망 못 가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 이건 활동이니까 제가 활동하면 되는데, 동아리 같은 건 모여서 하는 거고, 말 걸면 굳이 말을 하는데, 이건 체험하면서 하는 거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 4) 유형별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화

##### ○ 실업형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화

구분	주요 이슈	하위범주	상위범주
성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환경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성장과정</li> <li>부모님 강압적인 발언에 상처</li> <li>소심한 성격으로 친구 관계 소극적</li> </ul>	어려운 가족환경과 주변 지지망 부족	진로·진학에 부정적 영향
사회적 관계에서의 좌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안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와 경직된 분위기</li> <li>과중한 업무, 소통 방식 문제</li> </ul>	첫 직장에서의 실패와 좌절	조직과 사회에 두려운 이미지
사회적 관계 단절과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안장애와 심리치료</li> <li>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li> </ul>	심리적 불안 연속	진로계획 수립이 불가능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구직 절차 탈락</li> <li>불안으로 인한 심리치료 병행</li> <li>부모님의 냉소적 태도</li> <li>결혼이나 연애 비관적</li> </ul>	자존감 하락	진로 과정의 회복 탄력성 취약
전망과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속적으로 구직활동 전개할 계획</li> <li>취업이 아닌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도모</li> <li>외진 지역적 특성 한계</li> </ul>	낙후된 지역에서 지원은 요원	고용시장 냉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 임금 상향</li> <li>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 시스템 구축 필요</li> <li>신입직원과 융화되는 조직 문화와 유연한 분위기 조성</li> <li>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 차별받지 않도록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노동법 지식, 부모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상담이나 멘토링 등을 제공</li> </ul>	맞춤형 서비스 개발 필요	새로운 관점 도출 요구

[표 19] 실업형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 유형

○ 기회추구형 닛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화

구분	주요 이슈	하위범주	상위범주
성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 대한 책임감</li> <li>• 엄격한 부모님에 대한 복종과 반감 공존</li> <li>•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강한 인정욕구</li> </ul>	부모님의 과도한 통제와 인정욕구 강화	높은 진로 목표 설정의 원인
사회적 관계에서의 좌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된 실패</li> <li>• 부모님 압박</li> <li>• 단기 아르바이트 유지</li> <li>• 일하는 직장에서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악한 환경</li> <li>- 기울어진 의사결정 구조</li> </ul> </li> </ul>	자책과 자괴감	진로추진 동력 약화
사회적 관계 단절과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을 장기적으로 준비</li> <li>• 탈락과 시험준비 반복 (공무원, 공공기관)</li> <li>• 험난한 시험과정 (약한 몰입도)</li> <li>• 커뮤니티 내 새로운 도전</li> </ul>	험난한 시험과정	취업의 장기화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감 증폭</li> <li>• 스케줄 관리 미흡</li> <li>• 경제적 압박</li> <li>• 진로 적합성 의문</li> <li>• 부모님의 따가운 눈총</li> </ul>	혼란스러운 일상	취업준비과정 비효율화
전망과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도전</li> <li>• 채용공고 사이트 탐색</li> <li>• 자격증과 스펙 쌓기</li> <li>• 방향전환도 고려</li> </ul>	포기할 수 없는 도전	기계적인 진로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회사의 생활을 들어보거나, 체험</li> <li>• 취업과 창업 관련한 멘토링</li> <li>• 교육훈련비 확대</li> <li>• 슬럼프 극복을 위한 문화활동/자조모임 지원</li> <li>• 사회적 경제 종사나 창업에 대한 학습</li> </ul>	멘토링/커뮤니티 중심의 효과적 방법	커리어디자인 지원체계 구축

[표 20] 기회추구형 닛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 유형

○ 휴식 · 돌봄형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화

구분	주요 이슈	하위범주	상위범주
성장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해체,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li> <li>• 집단 따돌림과 학교 폭력 피해</li> <li>• 부모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li> <li>• 우울증 등 심리문제 조기 심화</li> </ul>	성장기의 극심한 피해 경험	가족 지지 유실
사회적 관계에서의 좌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과 사회 첫 직장 부적응</li> <li>• 타인의 갈등과 마찰에 취약</li> <li>• 감정적 선택과 후회의 악순환</li> </ul>	심리적 역동성 (자존감, 성취감, 상호교감) 저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사회적 옹호가 부재
사회적 관계 단절과의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심리문제 악화</li> <li>• 자신의 문제 회피</li> <li>• 온라인 게임 과몰입</li> </ul>	삶의 위기	사회적 고립 심화
현재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의 압박</li> <li>• 단기 아르바이트 전전</li> <li>• 취업한 친구들과 비교</li> <li>• 상담 기관, 교회 등 간헐적 관계</li> </ul>	자신의 처지 비관/ 자포자기	사회적 배제
전망과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변화 갈망</li> <li>• 희소한 주변 관계가 단초</li> <li>• 산적한 개인 문제 정리가 관건</li> </ul>	삶의 변화 갈망	지원체계 점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상담과 심리치료</li> <li>• 교육, 직업체험, 직업탐방, 자조모 임 등 집단적인 방식지양</li> <li>• 온라인 비대면 사회체험</li> <li>• 개별적 관계 형성 요구</li> </ul>	비대면/ 개별적 관계 형성 요구	단계별 지원체계 수립이 관건

[표 21] 휴식 · 돌봄형 니트 청년 주요이슈와 범주화



## V. 충남 니트 청년 리빙랩 아이디어 제안

### 1.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개요

니트 청년연구 국내외 지원정책 현황, 사례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남 니트 청년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을 진행했다.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은 니트 청년들의 문제와 제안들을 분석한 사례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니트 청년 당사자들과 충남의 니트 청년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빙랩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충남에서 니트 청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충남 청년들의 인턴십을 지원하는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충남 청년들의 노동 관련한 권익 옹호 활동을 지원하는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청년 당사자 조직인 느루공동체 등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니트 청년 연구 사례대상에 신청한 니트 청년 당사자 6인이 참여한 가운데, 니트 청년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통합워크숍을 진행했다.

NO	구분	이름	소속	일시	비고
1	인터뷰	강유정	느루공동체 대표	2021.05.28	충남 청년 조직 운영
2	리빙랩 아이 디어 개발 워크숍	심전호	충남공익활동 지원센터 팀장	2021.06.18	충남 청년 지원 전문가
3		신아롱	충남청소년인권 문화네트워크교육 협력국장	2021.06.18	충남 청년 노동지원 전문가
4		김성림	공감심리상담 센터 센터장	2021.06.18	충남 심리상담분야 전문가
5		장인선	아산YMCA 간사	2021.06.18	충남 청년조직 활동가
6		최**	니트 청년 당사자	2021.06.18	니트 청년 당사자
7		박**	니트 청년 당사자	2021.06.18	니트 청년 당사자
8		김**	니트 청년 당사자	2021.06.18	니트 청년 당사자
9		윤**	니트 청년 당사자	2021.06.18	니트 청년 당사자
10		박**	니트 청년 당사자	2021.06.18	니트 청년 당사자
11		김**	니트 청년 당사자	2021.06.18	니트 청년 당사자

[표 22] 리빙랩 아이디어 인터뷰 참여자 명단



[그림 13] 리빙랩 아이디어 워크숍 현장 스케치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정책연구, 사례연구, 초점집단인터뷰 및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워크숍 등으로 도출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한 리빙랩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충남 니트 청년 리빙랩 아이디어는 총 9개이며 다음과 같다.

① 회사생활 이해 부족, 생활 리듬 불규칙, 자존감 회복 등의 문제를 해결해줄 온라인 회사체험『충남 어찌다 백수』이다. 주로 온라인 출·퇴근과 니트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② 삶에 지치고 불안과 집중력 장애로 힘들어하는 니트 청년들에게 쉼을 제공함으로써 재도전의 활력을 북돋아 주는 지역 인문학 학교『쉼 학교』이다. 충분한 휴식을 기본으로 차이의 다름과 존중을 이끄는 교육과 대안적 경제를 학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③ 니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매뉴얼『충남 니트 청년 직장백서』 개발이다. 사회 첫 직장에서 어려움과 좌절을 겪는 니트 청년들에게 첫 직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규범, 기준, 취업규칙의 샘플을 수록할 수 있다.

④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니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이다. 욕구 중심의 목표와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멘토링 방법론이다.

⑤ 니트 청년들의 우울증, 스트레스, 대인관계 공포증, 가족 문제 등 심리적 문제를 상담해주는『충남 토닥토닥』이다. 니트 청년 상담은 놀이 치료, 산림치유, 연극치료 등이 가능하다.

⑥ 니트 청년 자신에게 적합한 커리어 계획을 수립하는 커리어디자인 프로그램『충남 슬기로운 직업생활』이다.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 적합성에 맞는 단계별 커리어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⑦ 니트 청년 눈높이와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을 제공하는『충남 니트 스타트업 챌린지』이다. 창업 사업계획 기획방법론, 경영, 마케팅 자금 조달 등을 교육한다.

⑧ 니트 청년과 부모와의 갈등과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한 부모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모 교육, 가족유대감 강화 등을 제공한다.

⑨ 니트 청년 당사자 조직화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다. 니트 청년의 의제를 발굴하고, 조직화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리빙랩 아이디어명	문제정의	문제원인	리빙랩 아이디어
충남 어찌다 백수 : 온라인 회사체험	-사회/조직에 대한 두려움 니트화 고착-불 규칙한 생활은 활동력 약 화 -사회적고립	-첫 직장 혼란/실패 -생활 리듬 불규칙 -자존감 저하 -다수/타인 관계기피	- 온라인 회사체험 - 온라인 출퇴근 - 니트 개선 프로젝트 수행 - 걸음 수 만큼 공익단체에 기부금 전달
쉽 학교 : 쉽을 기본으로 한 지역 인문학 학교	- 삶에 지침 - 불안과 집중력 장애 - 높은 목표에 따른 연이 은 좌절	- 장기화 된 취업 준비 - 운동 부족 - 경쟁주의적 사회 분위기	- 충분한 휴식과 안전한 자율 - 차이의 존중을 이끄는 교육 - 대안적 경제 학습
충남 니트 청년 직장백서: 니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매뉴얼	- 사회 첫 직장에서의 어려 움과 좌절 - 니트 청년 높은 이직율 - 니트 청년 매뉴얼 부재	- 권위적인 조직문화 - 상하수직적 의사소통구조 - 조직의 니트 청년 이해부 족	- 니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 한 매뉴얼 개발 (문제해결단계, 규범 등)
『어서와유』: 니트 청년 멘토링	- 사회적 관계단절 - 과거 상처/트라우마 - 방향전환 필요	- 심리 문제악화 - 문제 회피 - 산적한 개인문제	- 욕구 중심의 맞춤형 멘토 링 -ADDIE모형적용(목표와 개 선과제 중심)
『충남 토닥토닥』: 니트 청년 상담	- 우울증, 스트레스(불안) - 사회공포증, 가족문제	- 과거 트라우마(따돌림, 가정, 첫 직장) - 계속된 실패와 삶의 위 기	- 니트 청년 상담 - 놀이 치료, 산림치유, 연 극치유 등
『충남 슬기로운 직업생활』: 니트 청년 커리어 디자인	- 니트 청년 커리어 비전 부재 - 자신감 결여 및 맹목적 취업준비	- 부모·주위 시선에 따른 높은 진로목표 설정 - 고용시장 악화, 충남지역 일자리 부족	- 커리어 탐색(직업교육) - 커리어 개발(커리어 플랜 디자인)
『충남 니트 스타트업』 니트 청년 취·창업지원	- 사회적으로 창업이 붐 이지만 실제 창업교육의 접근이 어려움	- 충남 농촌지역 취창업 인프라 부족 - 고도화된 일반창업지원 사업의 높은 진입장벽	- 사회적경제, 취·창업교육
니트 청년 가족 및 부모역량 강화	- 부모와의 갈등 또는 단절 - 주변 지지망 붕괴	- 성장기 부모의 강압적, 권위적 태도의 트라우마 - 부모 기능의 약화	- 가족유대감 강화 - 부모교육 - 부모 직업훈련
니트 청년 조직화 및 정책 활동	- 니트 청년 당사자 조직 화 필요 -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업 전략 마련	- 청년 정책의 고도화에 따른 니트 청년 배제 - 니트 청년 중장기적 정 책화 부재	- 니트 청년 조직화 - 니트 청년 어드보커시

[표 23] 리빙랩 아이디어 개발 총괄표

## 2. 리빙랩 아이디어

### 1) 『충남 어찌다 백수』 : 온라인 회사체험

#### (1) 문제 정의

니트 청년들이 실제 회사생활이 어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장 운영시스템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지만 회사의 직무, 시스템, 조직문화 등을 알 수 없기에 이런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예방주사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니트 청년들은 사회 첫 직장과 경험에서 많은 혼란과 실패를 겪고 있었다. 이들은 사회초년생인 만큼 직장의 조직문화와 상하 수직구조에서 오는 업무지시 패턴이 낯설게 느껴진다. 그리고, 니트 청년들은 아무래도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다 보니 밤에 활동을 많이 한 후 낮에 늦게 일어나는 패턴이 반복되어 생활 리듬이 깨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 취업 관련해 공부하고 있지만 취업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에 스케줄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안감뿐만이 아니라 계속 니트 상태에서 성취할 기회가 없다 보니 자존감이 낮고, 일반적으로 정서 교감도 미흡한 수준이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게 쉽지 않고, 자기 관심 분야 정도에서만 반응을 보이는 낮은 단계의 소통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따라서 니트 청년들이 작은 프로젝트라도 실행해본다면 고립된 상황에 사회적 관계를 복원시키고, 유능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4] 『충남 어찌다 백수』 온라인 회사체험 문제정의/리빙랩 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니트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가상 회사체험을 한다면, 실제 회사의 직무, 조직문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스케줄 관리를 촉진하며 성취감과 유능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가상 회사체험 『충남 어쩌다 백수』는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운영되는 규정, 출·퇴근, 팀 프로젝트, 팀 회의, 조직문화 등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니트 청년들은 ‘반대로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심사방식은 심사위원들 다수가 배석한 가운데 심사를 받는 대상이 주로 질문을 받는다. 이는 분위기 자체가 엄숙하고 면접받는 청년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만 받고 탈락하는 경험을 남겨주었다. 이와는 반대로 ‘반대로 면접’은 참여를 원하는 대상들이 질문하고, 조직의 심사위원들이 답변하는 반대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니트 참여자들에게 과거 권위적인 심사에 대한 부정적 기억을 전환 시켜주고 본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심사 이후 선발된 대상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충남 어쩌다 백수 SNS 오픈채팅방’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게 한다. 이는 니트 청년들이 야간이 아닌 주간에 활동하는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충남 어쩌다 백수』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OJT(on-the-job training)이다. OJT를 통해 회사소개, 부서안내, 직위 설정, 기본적인 근태기록 및 인사관리, 업무 프로젝트, 회사 운영 프로세스 등을 안내한다. 회사가 어떤 조직체계로 구성되었는지 직급자들의 역량과 역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적 요소 외에 유쾌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주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니트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평소 하고 싶은 일상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니트 상태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한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해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충남 어쩌다 백수』에서는 일반 회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된 서비스는 명함 제작, 경력증명서 발급, 회사 키트 등이며 실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본 프로그램 참여에 성실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충남 어쩌다 백수』는 월 1회 오프라인에서 미팅을 하고, 참여자들이 원하는 문화 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참여자들 간의 소통 시간과 문화 활동은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충남 어찌다 백수』는 조직에서 원하는 직무교육이 아닌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또, 니트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온라인 미디어, 게임, 반려동물, 바리스타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강연을 제공한다면, 니트 청년들이 희망업종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충남 어찌다 백수』는 참여자들이 가고 싶은 다른 지역의 명소나 지역의 공동체를 살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런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의 네트워킹과 힐링,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와 사회적 경제 등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니트 청년들의 건강관리가 미흡한 만큼 건강검진이나 신체적 활동을 강화하는 『충남 어찌다 백수』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걸음 수 만큼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빅워크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참여자들이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의미 있는 기관에 기부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한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는 『충남 어찌다 백수』 성과공유회 ‘연말정산’을 개최한다. 성과공유회를 통해 참여자들이 목표를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

구분	내용
OJT (on-the-job training)	- 회사소개, 운영 프로세스 설명 - 참여자가 원하는 직책 만들기
회사 규정 만들기	- 참여자들이 원하는 규정 만들기
온라인 출·퇴근	- ‘충남 어찌다 백수 SNS 오픈채팅방’에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고 우수 개근상 시상
팀 프로젝트	- 각자 『충남 어찌다 백수』 참여 기간동안 실천 목표를 세우고 실행
업무회의	- 월 1회 참여자들이 각 프로젝트 공유 회의
직무교육	- 배우고 싶은 직무역량 교육 이수 - 참여자들의 원하는 분야 종사자 강연
로컬 워크숍	- 참여자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로 워크숍 가기 - 지역 투어하기 (지역 커뮤니티, 사회적 경제조직)
건강검진 및 빅워크 참여	- 건강검진 받기 - 걷기 목표를 세우고, 실행한 후 걸음 수 만큼 공익단체에 기부금 전달
연말정산	- 『충남 어찌다 백수』 실행기간동안의 진행한 프로젝트 발표

[표 24] 『충남 어찌다 백수』 프로그램



[리빙랩 예시]



도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출근하기

## 니트족들의 100일 출근 루틴 만들기

주요특성 : 니트족들의 100일 출근 루틴 만들기  
 대상 : 취업, 장래한 누구나, 프리랜서, 취업준비생  
 효과 : 100일간 출근 루틴을 만들어 자신의 일상 활력을 되찾기  
 신청처 : '카카오프로젝트100' 홈페이지에서 신청

\* LNEE(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생활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100.  
 본 프로젝트는 LNEE(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10001 팀을 지원함.

**니트생활자** **카카오 프로젝트100**



## 2021 니트컴퍼니 지금 막 OPEN!

#신청기간 : 3/2~3/14    #신청대상 : 청년 니트, 백수 200명  
 #신청방법 : 카카오프로젝트100 '니트컴퍼니' 검색 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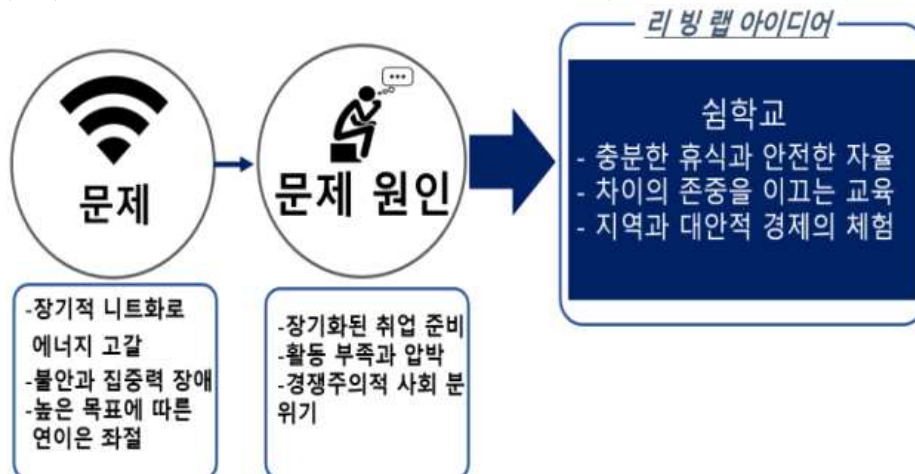
[그림 15] 니트컴퍼니 사례 (니트생활자 <https://www.facebook.com/neetpeople>)  
 : 거꾸로 면접, 랜선출근,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조직



## 2) 『쉽 학교』: 쉽을 기본으로 한 인문학 아카데미

### (1) 문제 정의

니트 청년들은 삶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탐색하고, 도전하는 일에 에너지가 고갈된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채용시험이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부하고 틈틈이 아르바이트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수면장애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책상에는 계속 앉아 있지만, 집중력은 떨어지고 운동은 멀리한 채 공부만 하다 보니 체력은 많이 부실해졌다. 가정에서는 엄격한 부모님의 기대와 사회적으로는 성공의 잣대가 너무 높다 보니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면서 쉽게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정된 높은 목표가 자신이 진심으로 원해서 수립한 계획인지, 아니면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상적 목표인지 혼란스러워했다. 니트 청년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꿈과 비전을 찾고 싶어했다. 하지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서열주의, 학벌주의, 경쟁주의의 사회적 분위기가 낳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니트 청년들은 산적한 자신의 주변 문제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삶의 변화를 주고 싶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막막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급할수록 쉬어가라는 말처럼 이들에게는 적절한 쉽과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교육과 변곡점의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 16] 『쉽학교』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니트 청년 쉽 학교는 ‘쉬다’, ‘있다’, ‘짓다’ 라는 세 가지 주제가 기본적인 방향이다. 첫째, ‘쉬다’는 니트 청년들이 잠시 멈추고 편히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희망적인 내일을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니트 청년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고 나아가면서 삶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쉬고 안전한 자원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있다’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다른 여러 주체들과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존중할 수 있다는 점을 견지해야 한다. 기존의 국가와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사람과 조직들을 연결해 건강한 생명력을 복원시킨다. 셋째, ‘짓다’는 타인이 강제하는 요구와 자본과 경쟁적 방식이 자리 잡은 자신의 관념을 허물고 니트 청년이 진심으로 원하는 새로운 꿈과 호혜적, 협력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쉽 학교는 기본적으로 도심 외곽지역에 있는 자연과 근접한 공간에서 진행하며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참여자들에게 온전한 쉬를 줄 수 있는 ‘쉬다’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심리상태를 알아보는 교육 및 상담, 자연에서 놀이, 요가 및 명상을 통한 치유, 자신을 한 페이지로 정리해보는 ‘사람 책’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있다’ 프로그램은 타인을 수용하는 법과 평등하게 회의하는 퍼실리테이팅, 비폭력 방식으로 대화하는 법, MZ세대에게 적합한 인문학 강좌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짓다’ 프로그램은 충남의 유기농 생산지/선도적 마을 커뮤니티 견학, 로컬 크리에이터/업사이클링/청년 농부 중심의 대안적 경제 스타트업, 커리어 디자인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 직업군을 탐색한다. 이러한 쉽 학교를 통해서 니트 청년들은 온전히 쉬며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의지를 고취할 수 있다. 니트 청년들은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다. 안전한 쉬가 제공된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용기와 동력을 가질 수 있다. 니트 청년들은 타인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이 어렵다고 말한다. 타인을 수용하는 법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주체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다면 나 자신과 타인을 연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

다. 니트 청년들에게 자본주의적 취업 경쟁은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생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을 커뮤니티나 또래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체험한다면 신선한 자극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쉬다	마음의 안부를 묻다	- 나는 누구인가? - 참여자 심리상태를 알아보는 교육
	생태놀이	- 자연 안에서 치유하는 놀이 - 참여자 네트워킹
	마음치유	- 요가 및 명상을 통한 쉼
	사람책	- 한 사람을 책으로 간주하고 강사의 지식 전달 - 모두가 사람책: 자신을 한 페이지로 정리
잇다	퍼실리테이팅	- 타인을 수용하는 법 학습하기 - 평등하게 회의하는 법 배우기
	비폭력대화	- 비폭력 대화법 배우기 및 실습
	MZ 인문학강좌	-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 철학과 삶 - 젠더와 지역사회
짓다	마을 살이 체험	- 생태적 마을 공동체 견학 및 체험 (마을커뮤니티, 유기농 생산지 견학)
	소셜벤처 체험	- 대안적 사회적 경제 스타트업 체험 (로컬크리에이터, 업사이클링, 청년 농부 등)
	다시 짓다	- 자신의 꿈과 비전을 탐색하고 디자인

[표 25] 쉬 학교 주요 프로그램

### 3) 『충남 니트 청년 직장백서』: 니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매뉴얼

#### (1) 문제 정의

니트 청년들은 사회 첫발을 내딛은 첫 직장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초년생인 만큼 직장상사들의 권위적인 조직문화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일관성 없이 수행하는 업무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의 임의적인 지시에 따라 달라지는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원 충원이나 업무조정이 없어 고충과 괴로움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성장시키지 않고, 업무만 부여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니트 청년들의 실망은 커져만 갔다. 또한, 조직이 수평적이기보다 수직적 상하 관계로 운영되는 체계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일을 수행하는 니트 청년 당사자가 제시하는 의견보다 상급자의 업무 방향을 강요하는 방식에서 청년들은 실망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직된 조직문화는 니트 청년 당사자에게 상급자 또는 동료들과의 불화로 작용했으며 심지어 불안장애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상급자에게 강도 높은 업무와 권위주의적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해 문제 제기했지만, 조직에서 개선의 변화가 없어 청년들이 퇴직을 선택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들은 결국 단기 아르바이트나 경과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 낮은 급여, 작은 고용 규모, 관리시스템 미비 등 대부분 열악한 환경이었다. 경과적 일자리들 역시 매뉴얼 없이 업무를 부여하며 권한 없이 책임만을 요구했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은 말할 것 없고, 휴가 체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조직의 리더들에게 무언가 상담하고 요구했을 때 수용되거나 합리적 답변을 받기보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태도에 니트 청년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조직에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갖기 어렵고, 상처만 커지는 상황이었다. 한편, 농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니트 청년들도 리더와의 의사소통을 힘들

어 했다. 니트 청년들은 농촌 지역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청년들에게 기대 수준은 높지만 정작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기보다 본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농촌으로 청년을 유입시키려는 크고 작은 정책과 프로그램 실행에서 니트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시사점이 큰 대목이다. 이렇듯이 사회초년생인 니트 청년들이 첫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안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개발된다면 니트 청년들은 장기적으로 근속하면서, 조직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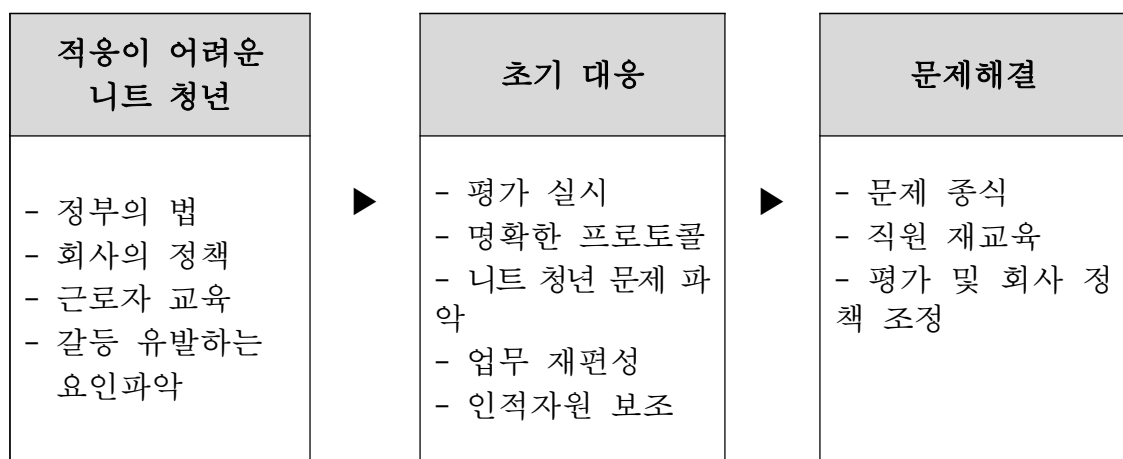


[그림 17] 『충남 니트청년 직장백서』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니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매뉴얼 개발이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u)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에서 니트 청년 연구 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조사한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니트 청년을 지원하는 외국에서는 니트 청년들이 직장에서 정착하기 위한 방법론이나 프로그램을 조사한다. 예를 들어, 본연구를 통해서 해외에서는 니트 청년을 위한 대기업 직무교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심층적으로 조사한다면 니트 청년들의 회사 정착 매뉴얼에 중요한 요소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니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고충과 개선방안

을 모색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닛트 청년들의 인구 사회학적 현황, 실제 겪는 어려움의 유형, 조직문화, 해결방안에 대한 설문 척도를 구성하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위한 통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닛트 청년당사자, 직장 동료, 중간관리자, 임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닛트 청년 문제해결 예방의 3단계를 도출할 수 있다.



[표 26] 닛트 청년 문제 해결 단계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토대로 닛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다. 닛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매뉴얼은 총 3가지 정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닛트 청년의 조직안착을 위한 가이드 필요성에 대해 제시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닛트 청년의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닛트 청년 신입직원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닛트 청년 신입직원이 조직 적응에 실패할 경우의 문제점을 부각시킨다. 닛트 청년 신입직원의 이직이 증가한다면 업무능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기업의 생산성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닛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사내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연구에서 개발된 표준화된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범들을 적용시킨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젠더 문제, 노동권 준수 여부, 상급자의 업무지시 방식, 회의 및 소통 방식 등과 같은

시사점들이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규범들을 토대로 니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해서 직원 설문 조사, 부서별 토론, 노조·노사협의회 등 조직단위 의견반영, 인사·노무·교육을 통한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효과적이다. 세 번째, 니트 청년 조직안착을 위한 점검리스트를 체계화한다.

영역	내용
조직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트 청년 의견제시 수용과 자율성 여부</li> <li>- 조직문화의 경직성</li> <li>-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의 원활성</li> <li>- 부적절한 언어 및 악의적 비판</li> <li>- 의사소통의 부족</li> <li>- 낮은 수준의 지원</li> </ul>
업무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트 청년 업무가이드 제공 여부</li> </ul>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 리더십의 확인</li> <li>- 책임의 부적절한 비공식적 위임 여부</li> </ul>
직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트 청년 스트레스 요인</li> <li>- 니트 청년 업무에 대한 압박</li> <li>- 니트 청년 위험 작업 시 안전 여부</li> <li>- 직장 내 행동기준이나 규율의 정도</li> <li>- 충분한 자료제공 여부</li> </ul>
유능감/자존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트 청년 성과 달성 인정 여부</li> <li>- 니트 청년 잡무 지시 여부</li> <li>- 니트 청년 사적인 부분 옹호 여부</li> </ul>
안전한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니트 청년 휴가나 복지혜택 활용 여부</li> </ul>

[표27] 직장 니트 청년 정착을 위한 규범 예시

#### 4) 『충남 니트 청년 멘토링 어서와유』 : 니트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 (1) 문제 정의

니트 청년들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고 친구, 부모,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힘든 마음이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외로워했지만,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서 선뜻 동아리나 집단에서의 참여는 두렵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직 자신의 이야기를 수용해줄 한두명의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강의형태는 일방적 지식습득에 용이하지만, 니트 청년들은 실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려고 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강의 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은 일반적 강의형태가 아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멘토링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요즘 직업적으로 관심을 각광받고 있는 미디어 IT분야부터 일상적으로 취업 가능한 회사나 직장생활까지 멘토링을 받는다면 니트 청년들이 취업 관련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된다. 멘토링은 심각한 경력단절과 오랜 방황 속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니트 청년에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인생의 커리어를 디자인하며 이를 점검하고,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말할 수 있다. 이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 자체를 꺼리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 일상생활의 리듬을 찾는 법, 취업하기 위해서 쌓아야 할 역량,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컨설팅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링이 제공된다면 이들은 점진적으로 니트를 탈출하는데 탄력받을 수 있다.





[그림 18] 『충남 니트 청년 멘토링 어서와유』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멘토링(mentoring)이란,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재를 겸비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1:1로 지도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어원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멘토(mentor)라고 하며 조력을 받는 자를 멘티(mentee)라고 한다. 즉, 멘토링은 업무, 경력 또는 전문성 개발과 관련하여 수령인이 인식하는 지식, 사회적 자본 및 심리 사회적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멘토링은 더 큰 관련 지식, 지혜 또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는 사람(멘토)과 더 적은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멘티) 사이에 일반적으로 대면하고 지속적인 기간동안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수반한다(위키피디아,2021). 즉, 니트 청년에 대한 멘토링은 사회적 고립 상황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하는 욕구, 취업이나 진학 관련한 해당 분야의 지식습득과 구체적인 조언, 현재 자신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해결방안이나 미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자인하며, 촉진하고 점검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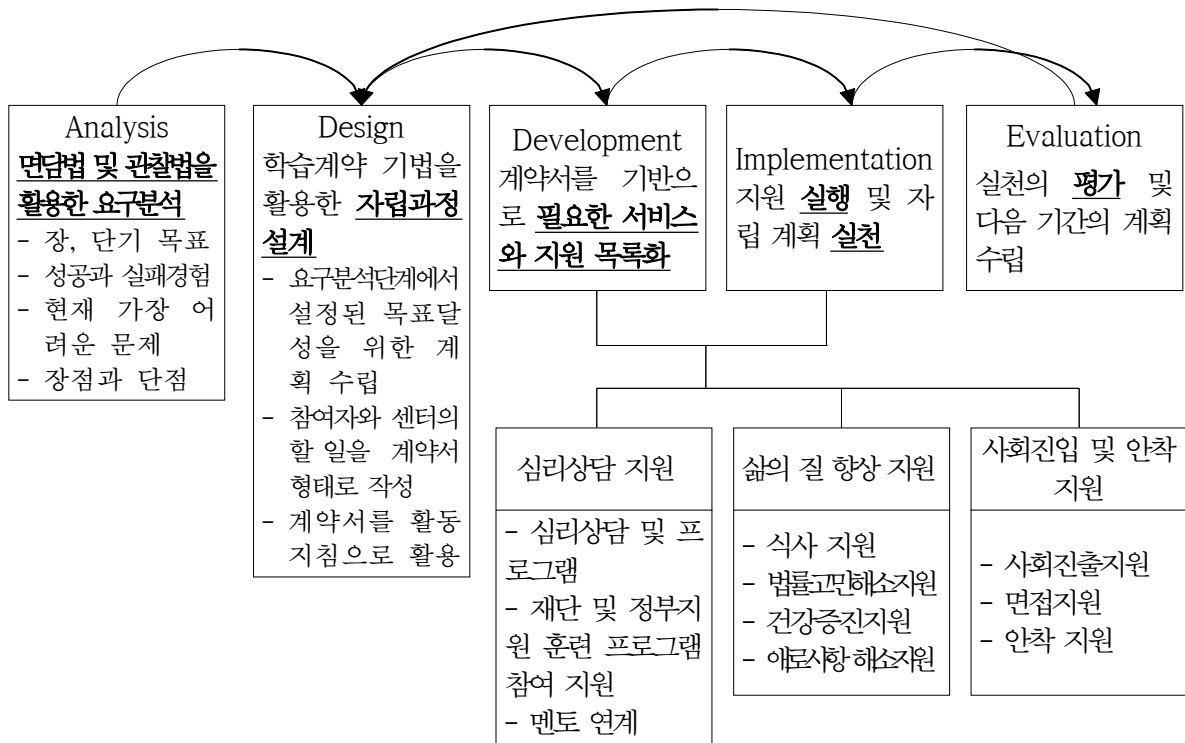
### ○ ADDIE모형 멘토링 프로세스 적용

참가신청서와 면접 내용을 기초로 니트 청년의 욕구를 분석한다. 이는 참여 니트 청년이 바라는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차이를 규명할 수 있다. 니트 청

년들이 구상하는 이상적인 진로 계획과 실천 가능한 현실적 상태 사이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한다. 이상적 상태의 조정 및 차이 극복에 필요한 실천을 리스트업 하고, 요구분석 과정에서 참여 청년의 자립 동기를 구체화하고 업그레이드 한다.

참여자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기반으로 멘토와 참여자 간 멘토링 계획을 수립한다. 미취업 기간이 길었거나 건강이나 가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신변상의 변화가 예측되거나 생활습관이 붕괴된 경우 멘토링 기간을 짧게 하여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목표와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욕구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자립을 위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실천 사항을 목록화한다. (예시 : 진로 흥미 및 적성 탐색, 학자금 대출 상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해소, 장기 미취업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멘티 이름, 멘토링 기간 및 날짜, 멘토링 목표 및 실행 방법,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조치 등을 포함한 멘토 계획서를 작성한다. 참여 청년의 실천과 조직의 지원 정도 및 내용을 수시 점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위의 모형은 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멘토링 내용의 실천 정도를 평가한 후 다시 설계 단계로 돌아가서 새롭게 멘토링 성과목표 수립계획을 작성한다. 특히, 멘토링 계획수립 내용에 취미와 여가 활동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멘토링에서 상담해야 할 세부내용 리스트업 및 유형을 분류해 본다. 참여 청년의 요구 목록에 제시된 항목을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재단 지원 연결, 센터 지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정기적 상담으로 참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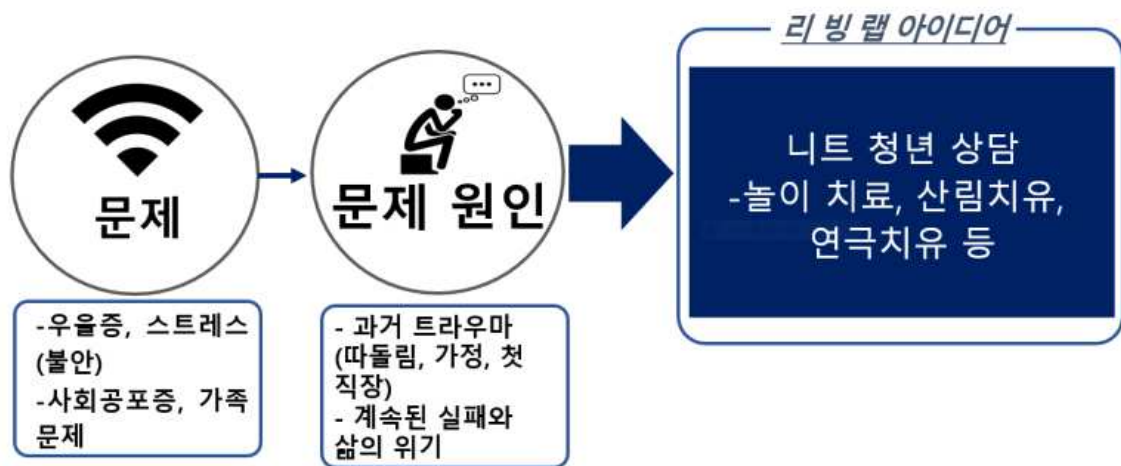
[그림 19]ADDIE모형 멘토링 프로세스

## 5) 『충남 토닥 토닥』: 니트 청년 상담 프로그램

### (1) 문제 정의

니트 청년들은 다양한 심리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들이 겪는 심리문제 유형은 우울증, 스트레스(불안), 대인관계(사회공포증), 가족 문제 등으로 구분된다. 우울증은 니트 청년들이 부정적인 생각, 자기 비난과 자책, 자살, 부정적 사고 등으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개인의 고통도 크며 일상생활 자체를 어렵게 하는 심리문제 중 하나이다. 주요증상은 지속적인 우울한 기분, 수면의 변화, 무기력함, 삶에 대한 흥미 및 관심 상실, 식욕 및 체중의 변화이다. 사례연구 대상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심리문제이며, 청소년기에 일찍 시작하는 사례도 많기에 치료가 시급한 하다고 볼 수 있다. 불안장애는 니트 청년들이 우울증만큼 많이 호소하는 심리문제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충격을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조화가 깨지며,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항진 또는 저하

됨으로써 혈액순환, 림프순환, 혈압, 혈관수축, 소화 기능 등 신체기능이 오작동되어 신체에 질병이 발생한다. 니트 청년들은 학교에서 왕따 경험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업무 과부하에 의해 불안장애를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 청년들을 대변하는 심리문제는 대인관계 장애로 볼 수 있다. 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많이 힘들어하고 친구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대인관계 장애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 타인에 대한 왜곡된 지각, 과도한 히스테리성 성격, 경계선적 성격,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상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민함, 지나친 의존성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족 문제는 현재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님에게 갖고 있는 트라우마나 현재 미취업 상황에서 받는 냉대와 비난 등은 니트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다른 가족들과의 마음을 들어 주고,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니트 청년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림 20] 『충남 토닥 토닥』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상담자의 역할은 니트 청년이 가진 심리적 어려움의 내면을 조명함으로써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상담 과정은 니트 청년이 자신의 내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서 상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사점을 깨닫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상담 진행 과정은 니트 청년의 초기 면접을 통해서 문제 파악 및 목표를 설정하고, 상담 치료 수준과 유형에 따라 적절한 상담전문가를 연결해준다.

니트 청년 상담에서 활용되는 기법은 크게 기본적인 상담 치료와 그밖에 역동적인 치료기법으로 구분된다. 먼저, 니트 청년이 가진 문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탐색함으로써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심리상담 치료이다. 니트 청년들이 상담 과정에서 깨닫게 된 시사점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보는 연습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니트 청년들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충남지역 상담 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기법은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 기법 등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인지행동치료는 합리적인 인지, 정서, 행동을 나타내는데, 니트 청년은 부정적인 부분은 제거하고 긍정적인 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긍정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다. 두번째, 정신분석 상담은 무의식적 갈등을 의식화하며 자아의 통제하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고충을 해결하고 다양한 신경증적인 증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정신분석 상담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면서 의식되지 않는 내면의 자각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다음, 역동적인 기법들로는 놀이치료, 산림치유, 연극치료, 미술치료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놀이치료는 니트 청년들이 놀이를 통해 편안함을 느끼고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기의 경험, 정서, 욕구, 바램 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전문적인 놀이치료사와 니트 청년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놀이가 갖고 있는 치료적 힘을 활용하여, 니트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으

로 말할 수 있다. 또한, 충남에서는 산림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다. 산림치유는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충남은 산림치유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한다면 니트 청년의 심리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연극치료는 연극의 요소 및 기법을 이용해 니트 청년의 불안정한 경험을 재현함으로써 특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연극을 해봄으로써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능력, 상상력의 잠재 가능성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일상현실에서의 생각, 감정, 행동의 변화를 도출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 생각들을 미술을 수단으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의 정화를 이끌어내고, 내면의 성찰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겪은 일과 마음 상태를 더 상세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 6) 『충남 슬기로운 직업생활』 : 니트 청년 커리어 디자인 프로그램

### (1) 문제 정의

니트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찾기도 어렵고, 실제 자신의 진로적성에 맞는 커리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니트 청년 사례들은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니트 청년들은 취업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서 무수히 지원했지만, 합격은 요원해졌으며 자신감마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진로선택에 자신의 의지보다 부모님이나 사회적 기준에 의한 커리어만을 목표로 정하고 맹목적으로 준비할 뿐이었다.

어떤 니트 청년 사례의 경우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취업 준비를 후회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다면 다른 분야를 선택했을 거라며 이제 와 자신의 진로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번복할 수 없는 자신의 생활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런 주된 원인은 성장과정에서부터 부모님의 기대와 인정욕구가 작용하면서 진로·진학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현실에서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책이나 자괴감에 쉽게 빠져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었다. 부모님과 타인의 시선에 맞춰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하고, 응시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과정 자체를 즐기며 몰입도 높게 진행되기보다는 당사자가 힘겹게 꾸역꾸역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 만약,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를 탐색하며 그 계획대로 준비한다면 훨씬 몰입도도 높고, 구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되었고,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없어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사회상황도 한 몫 거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청년 취업자 376만명은 전년대비 18만명 감소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21). 그리고, 충남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면서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충남지역에서는 직업 선택의 폭 자체가 협소하고 급여도 낮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도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충남 즐거운 직업생활』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 ○ 커리어 탐색 프로그램

커리어 탐색 프로그램 대상은 자신의 흥미와 강점 등의 진로에 대해 깊은 생각이나 탐색을 해보지 않은 진로 탐색이 필요한 니트 청년이다. 프로그램명은 진로 스쿨 및 진로캠프, 직업탐방 등의 집단 프로그램 또는 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혹은 참여라고 말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초기에 진로 아카데미 및 진로 워크숍 등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 및 강점을 탐색해보며 진로 비전을 수립하고 실행목표 및 계획을 스스로 작성한다. 직업 흥미, 진로 성숙도, 직업 가치관, 적성 등 객관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참여 초기 진로 스쿨 및 진로 워크숍 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 그 외에도 직업탐방 등 단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해보도록 촉진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직업의 이해, 선배와의 만남, 직업 체험을 위한 박람회 부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지역사회 내 관련 박람회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사업 참여자 이외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여 지역사회로 성과가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은 직업적 소양, 가치, 기술, 지식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가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니트 청년들이 교육대상이다. 주된 프로그램은 현업 직업인 등 선배와의 1:1 멘토링 활동을 통한 직업 체험, 진로 동아리 활동이다. 진로 스터디, 선배와의 만남,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동아리 기획 및 실행, 진로 개발캠프, 진로 개발과 재능기부의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진로 탐색을 통하여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직업과 가치를 선택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진로정체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



점이 있다. 1:1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진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구성원 간의 친화력, 소속감 등 결속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동아리를 구성하기 전, 집체 교육 및 활동 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로 동아리 활동은 스터디, 선배와의 만남, 포트폴리오 작성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이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구성원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 리더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교육과 모임 등을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진로개발 캠프도 활용이 가능하다.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들을 섭외하여 참여자들이 그들로부터 직접 관련 직종의 기술, 지식, 태도 등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의 진로개발을 강화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대상자의 욕구 사정 이후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7) 『충남 니트 스타트업 챌린지』 니트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 (1) 문제 정의

니트 청년들은 취업이 아닌 창업이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하지만, 농촌 지역에는 이런 교육과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문제로 제시할 수 있다. 일부 니트 청년 연구사례 대상들은 그동안 자신이 미뤘었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플랫폼, 교육, 상품, 디자인, 문화 예술과 같이 혁신적인 아이템에도 관심이 높다. 본 연구사례 중 한명은 영상제작이나 카페 창업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충남 농촌 지역에서는 교육 기회도 부족할뿐더러, 충남 북부권에만 창업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 창업사업들의 선발 기준이 까다로워 니트 청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선발될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창업지원 사업들은 보통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선호하기 때문에 IT 소프트웨어나 상품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되어야 한다. 하지만, 니트 청년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상품개발의 밑그림이 되어줄 사업계획서 작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창업 지원사업들의 대부분이 사업기간 내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의 법인격을 설립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니트 청년들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법인을 창업하거나 대표를 맡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연구 사례대상은 고도화되어 있거나 경쟁력이 강한 일반창업보다는 호혜와 협력적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반 창업지원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나 대표자의 경영역량 검증시스템이 냉정하기 때문에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을 비롯해 여러 주체들이 협업하며, 보호된 시장에서 사업하는 장점이 있어 충분히 가능성은 갖고 있다. 이를테면, 인증 사회적 기업의 66%(1,629개소)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형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니트 청년의 범주로 규정할 수 있는 청년실업자부터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다문화 이주여성, 보호 종료 아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사업의 진입은 공공시장에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주는 공공시장 우선 구매제도와 5년 미만으로 인건비 등의 지원정책이 있어서 일반창업보다는 니트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가능한 지점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림 22] 『충남니트 청년 스타트업 챌린지』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 ○ 직업훈련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격증 이수, 고용시험 준비, 기술 개발 등의 취업, 창업 훈련기관 혹은 사설 학원 및 온라인 강의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니트 청년이다. 출석률, 수강률 및 목표 이행 정도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참석률이 일정 정도 이상인 경우 교육참여 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참여보다 교육에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차원이다. 사업 및 사례 종결 이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역량개발 및 강화, 지원에 대한 피드백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취업을 위한 구직 관련 정보 수집,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직장 매너 등과 같은 구직기술 습득이 필요한 청년 및 구직활동 중인 니트 청년이다. 전문 강사를 통해서 취업정보 수집,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면접 기술 익히기 및 모의 면접 등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욕구에 따라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해 전문강사를 연계하여 집합 교육을 실시한다. 기본적인 지식 습득 후 실제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모의 면접 등을 통해 강사, 구직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에 관심 및 의지가 있으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니트 청년과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지원을 통해 자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이다. 창업에 대한 이해, 창업가 정신, 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며, 창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교육을 연계한다. 창업교육의 심화 과정으로 공통의 아이템이 있는 경우 동아리를 구성하여 스터디 및 워크숍, 창업 기관 탐방 및 교육, 창업공모, 모의 창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창업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자립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실제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창업지원 혜택에 대한 피드백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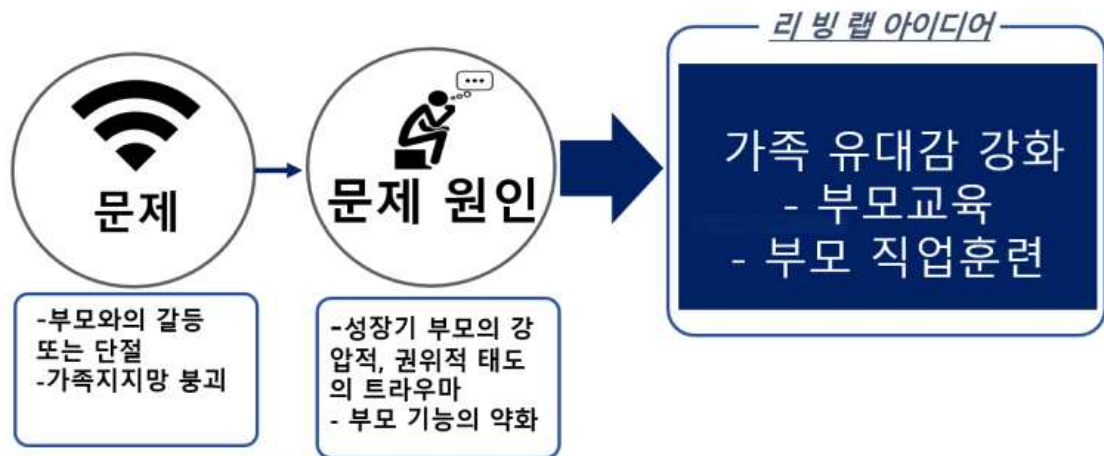
#### ○ 인턴십 프로그램

대상은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 능력을 고양 시킬 필요가 있는 니트 청년이다. 대상자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인턴십을 연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NGO, 사회복지기관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턴십 연계가 실습 혹은 직업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직무 수행에 대한 급여는 사업비에서 최저 임금 등의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턴십 교육을 맡은 기관이나 개인이 구조화된 직무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직무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인턴십이 취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인턴십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및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무를 수행하기에 직무 이해 및 기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전문강사 및 마을 활동가 연계를 통한 기본적인 직무교육을 선행적으로 지원한다. 또, 일상생활 관리가 되지 않는 청년의 경우 집 밖으로 나오는 데 의의를 두고 생계형으로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연계 지원할 수 있다.

## 8) 니트 청년 가족 및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 (1) 문제 정의

니트 청년들은 성장기에 부모의 강압적이며 권위주의적 행동에 트라우마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재까지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니트 청년들은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 가정의 빈곤, 기독교 집안의 권위주의적 분위기, 부모님의 강압적인 발언, 성장기의 방치, 가족 해체 또는 가족폭력, 부모의 이혼,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그에 따른 니트 청년의 인정욕구,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의 자괴감, 부모로부터 주거를 독립하지 못한 채 받고 있는 경제적 압박감, 부모님의 냉소적 태도 등 다양한 부모와의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문제들은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개선과 옹호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이나 니트의 문제가 흔히 게으름이나 의지박약과 같은 청년 개인의 문제에서만 기인하지 않았으며 이전 세대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부모 기능의 약화로 기인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진로 준비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건강한 역할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성장·발달을 독려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니트 청년 지원기관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부모 혹은 보호자들 가운데 자녀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려하기보다는 자녀의 취업으로 인해 본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수급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수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고 말한다. 청년 개인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이들의 중요한 지지체계 중 하나로써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유대감 증진, 부모교육, 부모의 직업훈련 및 취업, 창업지원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대상은 경제적 자원, 시간, 에너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모-자녀가 공유하는 감정, 생각, 경험 등이 없어 가족 구성원 간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이다.



[그림 23] 『가족 및 부모역량 강화프로그램』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니트 청년 가족 및 부모역량 강화하기 위한 리빙랩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유대감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빈곤 가정의 경우 문화 체험 및 활동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사업 참여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여러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하거나 캠프, 여행 등을 계획하여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모들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자조 모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 체험이나 여행에 대한 계획서를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족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여 가족 단위로 개별 지원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가족유대감을 고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지원 자격을 부모 프로그램 참여 시로 한정하여 사업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고취해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면적 요인들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 가족 치료 서비스에 연계할 수 있다.

둘째, 부모교육이다. 자아 탐색, 자녀 양육, 경제생활 등 구조화된 집합 교육이

나 발표, 토론, 시연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부모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강의식 집합 교육을 기반으로 발표, 토론 및 시연이 결합된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을 심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1:1 재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족의 소득, 지출, 저축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자조 모임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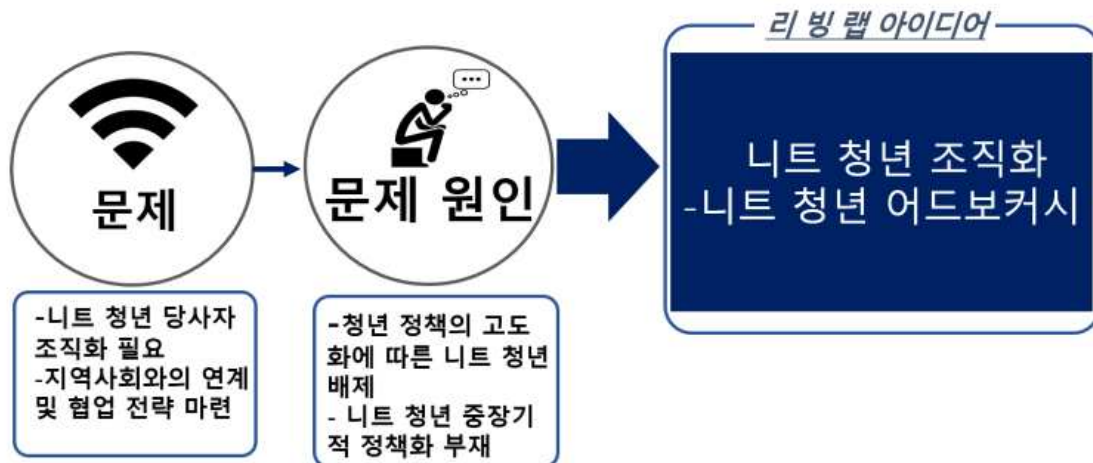
셋째, 부모 직업훈련 및 취업, 창업지원프로그램이다. 대상은 니트 청년의 부모 혹은 보호자 중 역량개발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이다. 자격증 이수, 고용시험 준비, 기술 개발 등의 취·창업 훈련기관 혹은 사설 학원 및 온라인 강의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과 창업교육, 컨설팅 및 창업비 지원이다. 대상자의 욕구 사정 이후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석률, 수강률 및 목표 이행 정도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결정한다. 창업교육 및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자립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실제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역량개발 지원에 대한 피드백으로써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능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 시킬 필요가 있다.

## 9) 『충남 니트 청년 조직화』: 니트 청년 조직화 및 정책 활동

### (1) 문제 정의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충남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전략으로 구성한 청년 정책에 989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청년 주거환경 개선, 미래인재육성지원 등의 청년 취·창업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물론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희망계좌 사업이나 사회 서비스 사업이 있지만, 니트 청년을 위한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정책의 편향성도 원인이지만, 각 청년위원회나 네트워크 등의 활동에 니트 청년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인 의제들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항상 니트 청년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앙정부 역시 니트 청년 정책을 은둔형 외톨이와 같이 극도로 고립된 청년들로 규정하며 불안정한 단기적 취업자와 취업 준비생들은 니트 청년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사안의 본질을 분석해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일자리 중심의 정책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책이해관계자들에게 맡겨서는 니트 청년 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다. 니트 청년을 조직화하고, 당사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이슈 캠페인을 통해서 니트 청년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니트 청년 문제는 공공이 어떻게 해결할지 뒷집 지고 관망할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청년 지원조직, 사회복지, NGO, 커뮤니티,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마을 단위에서는 니트 청년들과 협력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조직하고, 니트 청년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24] 『충남 니트 청년 조직화』 문제정의/리빙랩아이디어 모형



## (2) 리빙랩 아이디어

### ○ 주민 조직화 및 지역사회 활동

청년 자조 활동은 지역사회에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해 알리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제도변화를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활동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청년 및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자조 모임의 형성을 촉진시킨다. 여가 활동 등을 통해 참여자 및 지역사회 청년들이 친밀감, 유대감 증진을 위한 활동들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자조 모임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니트 청년의 경우 빈곤, 진로역량개발 등 현실적으로 닥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인 고충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원(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등)과 더불어 이를 지지해줄 상호관계와 정서적 지지를 통한 개인적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청년 자조 모임이 지역사회와 사업 내에서 본인들의 역량에 맞는 활동을 모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성원 간의 정서적 지지를 넘어 목적성 있는 활동을 주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주된 내용은 청년 지원정책 모니터링 및 학습,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조성, 포럼, 토론회, 총회 등의 개최, 캠페인 활동, 서명운동, 청년 정책 제안 등이다.

주민 조직화 프로그램은 지역센터의 내·외부 환경에 따라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선정 기준이 달라지므로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마을활동가 조직을 위한 모집 홍보 및 추천을 받아 마을활동가를 조직할 수 있다. 마을활동가는 대부분 지역사회 대학생 코칭 및 상담 등에 있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지역 활동가,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들로 구성한다. 지역주민의 경우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및 주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주의 가능성이 적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사업 종결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청년들과 세대 차이로 인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 및 마을활동가의 역할 안내, 마을활동가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을활동가 활동에 대한 공유 및 슈퍼비전(supervision)을 위한 정기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모집 홍보 및 유관기관을 통해 조직된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 사업 및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마을활동가로서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니트 청년의 특징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사례관리 교육 등이다. 마을활동가로서의 사업 참여 후,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활동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들에 대해 슈퍼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할 수 있다.

#### ○ 지역사회 어드보커시 및 네트워크 활동

니트 청년 정책의 제도적 불합리성 개선 활동, 약자에 대한 옹호 활동이다. 취약계층 청년의 빈곤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불합리한 제도, 선진 사례 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지역사회 포럼, 토론회, 시민참여예산 제안서 제출, 지역사회 시민 총회 참여, 지역사회 단체장과의 면담, 보고서 발간 등의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청년의 빈곤 대물림 현상의 문제 및 원인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활동들을 계획하여 실행한다. 본 사업에서는 지역행사 주최를 통한 캠페인 활동,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다. 특히, 위와 같은 활동은 지역활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주민조직 및 타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서도 실천할 수 있다.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참여 기관과의 자원교환을 추진할 수 있다. 자원교환의 내용은 강사, 자원봉사자 등 인력의 교류, 시설, 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교류, 사업 네트워크(공동사업 혹은 공동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관과의 공동사례 관리,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인식 확산, 제도

마련 및 개선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정보교환은 지역사회 청년 관련 협의체, 정책위원회 등의 공동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한 조언, 아이디어 교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 조례 및 정책안 공동발표,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 지원 모델에 관한 공동연구도 가능할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클라이언트 및 자원에 대한 정보교환도 가능하다. 주민센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청소년 상담 기관,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으로부터 사례 의뢰를 받아 개입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기현.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청년니트”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 김은비. 2017.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위한 청년니트족의 현황분석 및 시사점” 고용패널학술대회
- 백은미. 2019.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영향 예방대책 개발”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신희경. 2014. “청년니트(NEET) 현상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리서치”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 송위진. 2017. “리빙랩을 활용한 공공연구개발의 사업화” 기술혁신학회
- 이봉주. 2019. “희망플랜(니트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변화과정: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 이봉주. 2018. “배분의제2-3차년도 성과평가-니트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플랜사업” 사랑의 열매 나눔문화연구소
- 조수민. 2019. “성인이행기 빈곤아동·청소년발달지원사업 희망플랜 연구보고서” 한국사회 복지관협회
- 진형익. 2020. “NEET 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의 효과분석” 한국혁신학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청년기본법/충청남도 청년 기본조례 검색”
- 통계청. 2021. “충남 청년 인구 통계현황 검색”
- 고용노동부. 2019.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 충청남도청.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 2019. “함께만들어가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리빙랩 길잡이”
- 행정안전부. 2019. “사례에서 배우는 지역문제 해결 리빙랩 가이드북”
- 일자리위원회. 2020. “청년지원정책 현황”
- Bălan, M. (2014). Youth labor market vulnerabilities: Characteristics, dimensions and cost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8, 66 - 72.
- Bell, D. N. F., & Blanchflower, D. (2010) Young people and recession: A lost generation *Economic Policy*, Fifty-Second Panel Meeting.
- Bell, D. N. F., & Blanchflower, D. G. (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41 - 267.

Canada 2020. (2014).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youth: A challenge to Canada achieving its full economic potential. Paper series.

Federal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Division Information, Publications, Editorial Activities, (2014) National Implementation Plan to Establish the EU Youth Guarantee in Germany

Government of Canada. (2016). Understanding the realities: Youth employment in Canada (Interim repor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2017a). Inclusion of Marginalized People. Retrieved from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Paris, France: OECD.

Pullman, A. & Finnie, R. (2018). Skill and social inequality among Ontario's NEET youth. Education Policy Research Initiative. Toronto, ON. Ontario Minist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ussell, L. (2013). Researching marginalised young people. *Ethnography and Education*, 8(1), 46 - 60.

Sonnet, A., Quintini, G., & Manfredi, T. (2010). Off to a good start? Jobs for youth. Paris, France: OECD.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New York, NY: Bloomsbury Academic.

The Youth Employment Champions, 2020 YES ANNUAL REPORT from <https://www.yes.on.ca/>